



언니네트위크 비혼 자료집



언니네트위크 비혼 자료집



비혼 자료집을 만들면서!

이 책은 언니네트워크가 다뤄왔던 비혼이슈에 관한 언니네 특집 및 칼럼, 토론회 발제문, 비혼여성축제와 같은 문화행동, 성명서, 외부 기고문 등을 담은 자료집입니다.

진행 중인 현상으로서의 ‘비혼’은 담론화 과정에 따라 그 위치성과 정치성이 구성됩니다. 앞으로 언니네트워크가 펼쳐나갈 운동 역시 비혼의 위치성과 정치성을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해나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은 가족·독립·성소수자·공동체 등의 다양한 의제들과 어울려왔던 언니네트워크 비혼운동에 남겨진 질문, 성과, 한계로부터 자원을 얻어 ‘비혼’을 읽어내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보기의 시작으로 언니네트워크의 활동 내용 중 공식적으로 소개되었던 2002년~2010년까지의 자료들을 엮어내었습니다.

편집팀이 월간으로 발행해왔던 <언니네> 채널넷 특집 <32호-나는 비혼여성입니다! 2002.4>를 시작으로 <58호, 정상가족, 명절대비판 2005.2>, <78호-가족주의보 2006.11>, <86호-혼외正事 2007.7>를 통해, 언니네트워크가 정상가족이데올로기 및 국가관리체계비판의 연장에서 ‘비혼여성’의 경험과 목소리를 등장시키고, 대안가족으로서의 비혼공동체 실험을 소개하는 등 비혼담론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혼이슈를 주 활동으로 해왔던 액션나우팀(2005-2009), 액션+ 공감팀(2009-2010)은 ‘감자모임’이라는 작은 집담회, 2009년 상반기<언니네>에 연재했던 칼럼 ‘비혼열전’, 그리고 기획단과 함께 만든 2007, 2008년의 1,2회 비혼여성축제를 지나왔습니다. 또, 2007년 대선을 맞아 각 후보들에게 비혼이슈에 관한 질의서를 보내는 등의 활동을 보입니다. 이 자료집이 언니네트워크 활동가 및 연대단체들, 그리고 언니네트워크의 비혼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언니네트워크가 남겨왔던 비혼운동의 흔적들을 되짚어볼 수 있는 자료로 읽혀지기를 바랍니다.

채널[넷] 특집기사, 비혼여성축제, 감자모임 등은 언니네트워크 활동기뿐만 아니라 기고, 발제, 토론, 기획단으로서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과의 공동작업이었습니다. 자료집을 엮는 과정에서 글의 수록을 허락하고, 또 조언을 주었던 전 활동가 및 그 외 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신지 못한 글들은 채널넷 및 언니네트워크 세 번째 책 <태그놀이>에서 직접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언니네> DB의 문제로 복구하지 못한 콘텐츠들 역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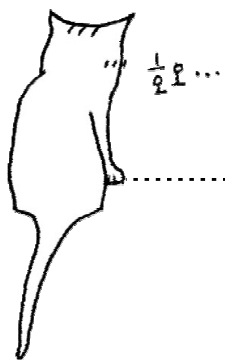
앞으로 언니네트워크의 비혼운동을 준비하면서, 자료집 발간의 취지인 ‘역사보기’의 성과를 가지고 더 넓고 깊게 비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 5월 액션+ 공감팀 일동

차례



● 첫 번째 페이지	2002년 4월	언니네 채널[넷] 특집 32호 : 나는 비혼여성입니다!	13
● 두 번째 페이지	2005년 2월	언니네 채널[넷] 특집 58호 : 정상가족, 명절대비판	21
	2005년 2월	[감자모임] 심란하다, “여성가족부”	32
	2005년 3월	[성명서] ‘여성가족부’에 반대합니다!	38
● 세 번째 페이지	2006년 8월	[감자모임] ‘비혼을 비혼이라 부르지 못하고...’	43
	2006년 9월	[감자모임] ‘비혼 맞춤형 경제 생활’	46
	2006년 10월	[감자모임] ‘비혼 차별적 제도, 이견 아니잖습니까!’	48
	2006년 11월	언니네 채널[넷] 특집 78호 : 가족주의보	59
	2007년 3월	1회 비혼여성축제 ‘비혼, 꽃이 피었습니다’	66
	2007년 7월	언니네 채널[넷] 특집 86호 : 혼외 正事	71
	● 네 번째 페이지	2007년 11월	2007년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선거 질의서
● 다섯 번째 페이지	2007년 12월	[기사] 참세상 - 양날의 차별... 레즈비언과 비혼여성	102
	2007년 12월	[감자모임] ‘비혼여성, 정치적 주체로 거듭나기’	104
	2008년 5월	2회 비혼여성축제 ‘비혼, 그 입술을 열어요’	117
● 부	2008년 7월	[칼럼] ‘우쭈 플리즈 비혼할래~?’	122
	2008년 2-5월	[칼럼] 비혼열전 (1)-(3)	126
	2009년 6월	[토론문] ‘비혼이야기’	136
	2009년 6월	[토론문]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그녀들, 비혼 여성’	138
	2010년 3월	[비혼세미나] ‘비혼의 집단 현상, 적극적으로 읽기’	144
● 부	록	비혼 관련 추천 도서	148



비혼, 첫 번째 페이지

미혼(未婚), 독신, 싱글, 노처녀...

수 많은 호명을 뒤로하고,
'비혼'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 없는 여자는
자전거 없는 물고기와 같다
- 글로리아 스타이넘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먼저 꿈을 꾸지 않고서 이루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다
- 로라 잉걸스 와일더

비상하려는 충동을 느낄 때는
절대로 포복하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
- 헬렌 켈러

CHANNELnet. 채·널·넷·특·집



나는 비혼여성입니다

이번 언니네 특집에서는 수많은 '비혼의 삶'의 조합 가능성을, 그리고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이다...

- ▶ 비혼의 삶, 비혼의 꿈
- ▶ 비혼지도 그리기
- ▶ 상식적 법률? 비상식적 차별들~!
- ▶ 비혼여성을 위한 생활 TIP

[◀ 지난 특집보기](#)

- '비혼지도 그리기'와 '비혼여성을 위한 생활 TIP'은 현재는 확인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2006년 언니네 사이트 리뉴얼 이후 링크 페이지가 사라졌기 때문이지요 ;_;
비혼에 관한 소중한 기록들이 사라져 아쉬운 마음 가득입니다.

언니네트워크 비혼자료집_ 13

나는 비혼여성입니다!

[32호] 비혼의 삶, 비혼의 꿈

zoze / zozeda@hotmail.com

#1. 비혼?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는 거야?

A : 아니, 뭐 꼭 혼자 산다는 것보다는 그냥 결혼을 안 하고 살겠다는 거지.

B : 그게 그거 아니야? 식구들이랑 같이 살면, 엄마 아버지나 다른 친척들이 시집 안 가냐고 계속 그럴텐데 그래도 같이 살게?

#2. 비혼? 친구들 다 결혼하고나면 어떻게 하게?

A : 뭐 결혼한다고 어디 가는 것도 아니잖아.

C : 그래도 친구들 다 모여서 얘기 키우는 이야기하고 시댁 이야기하고 그러면, 너 좀 그럴걸? 같이 이야기할만한 꺼리가 별로 없어지는 거잖아.

#3. 비혼? 그런 거 잘 나가는 커리어우먼들한테나 붙여주는 말 아니야?

A : 세상에 있는 결혼 안 한 여자들이 모두 잘 난 사람들이겠어?

D : 잡지같은 데 보면 그럴텐데? 어쩐 그렇게 다들 좋은 직장에 높은 연봉, 멋진 아파트에 멋진 인테리어 감각까지... "지난 휴가 때에는 해외 어드메로 여행을 다녀왔죠. 결혼을 안 하니 어찌나 자유로운지." 어쩌구 하잖아. 그런 거 생각하다가는 가량이가 찢어지겠더라, 야.

'결혼하지 않는다'는 말은 말하는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종종 '선언'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마치 결혼에 대한 (혹은 결혼제도에 대한) 저항 내지 투쟁처럼 읽혀지고 있는 '비혼'의 이미지. 네가 지금은 그러지 조금 더 나이 들어봐 라던가, 넌 결혼이 그렇게 손해보는 일인 것만 같으냐 라던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누구한테 의지하고 살거냐 라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덮쳐오는 염려들. 그 중에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 말들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물음표를 붙여야 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결혼이라는 함수에 대응하지 않는 내 삶은 상상하고 계획할 수 없는가? 결혼이 그저 자신이 꾸려갈 삶에 있어서의 독립적인 선택 중 하나일 수 있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결혼하지 않은 삶'도 그 선택의 지점 중 하나가 될 수 있을텐데.



비혼(非婚)이라는 말은 결혼을 '아직' 하지 않았다는 (즉 언젠가는 해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쓰이는)

'미혼(未婚)'이라는 말을 비꾸자는 의도로 등장한 말이지만, 이 역시 결혼 '혼(婚)'을 염두에 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뜻에서 온전히 독립적인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든다. 우리는 왜 이에 대해 풍성한 언어를 가지고 있지 못할까?

사실, '미혼'이란 꼭 혼자서만 살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과거에 결혼을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어야 한다는 증명서가 필요한 것도 아니며, 꼭 멋진 집, 멋진 옷, 멋진 차로 폼을 낼만큼 돈을 잘 벌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 붙는 설명은 단 하나, 결혼이라는 법적+제도적+정신적(?) 울타리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혹은 그렇게 살겠다는 것.

이번 언니네 특집에서는 수많은 '미혼의 삶'의 조합 가능성을, 그리고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이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혼자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 혹은 결혼하지 않고 가족 구성원들 또는 친구들과 지속적이면서도 변화무쌍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 혹은 결혼을 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이 아닌 삶을 선택한 사람, 그리고 이러한 선택과 결심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더해지고 빠지는 다양한 조합. 어떤 조합이건 간에 동반되어야 할, 결혼식과 가족계획과 노후대책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준비 과정!



자, 미혼을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내 손에 붙잡기 위해 지금부터 다같이 한 발짝 떼어놓기를. 혼자 이되 혼자가 아닐 수 있는 삶, 그것이 '미혼의 꿈'이다.

* 이 글을 펴기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월간 언니네(www.unninet.co.kr) 2002년 4월 특집 "나는 미혼여성입니다!" 중.

나는 비혼여성입니다!

[32호] 상식적 법률? 비상식적 차별들~!

땀사 / indisee@dreamwiz.com

'비혼과 법률'이라는 주제를 제안하게 된 것 '미혼의 젊은 여성이 집을 살 때는 세금이 엄청 붙는다더라'는 소문을 듣고서이다. 부동산 업자가 한 말이었는데, 조사해보니 한국의 세금제도가 그렇게 비상식적이지는 않은 듯 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규칙들이 비혼에게 불리하게 되어있어 '상식적 법률'아래서도 '비상식적 불이익'을 받으며 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을 알게 되었다.

1. 세금제도

'비혼이 집을 사면 세금을 많이 물리나요?'라는 나의 질문에 국세청 직원은 '아니요, 그런 걸로 차별을 주면 난리나죠'라고 대답했다. 대부분의 세금이 재산이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나, 국가정책 수행 시 기혼가정을 중심으로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런 혜택으로 '급여자 소득 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임금급여자의 소득세 대상 금액 중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을 공제대상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게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점에서는 상식적인 제도이나 여기에서 부양가족의 기준이 혈연가족과 결혼을 통한 배우자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동거의 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위에서 말한 헛고문은 '증여세'와 관련된 것이었다. 대체로 연령이 낮은 사람은 모아 놓은 돈이 적다고 판단하므로 어린 사람이 비싼 집을 사면 (증여세 탈세의 혐의에 의해) 세무서에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 대체로 25살이면 공시지가 기준 1000만원 정도, 35살이면 1억, 40살이면 1억 5천정도를 넘어선 부동산을 취득할 때 조사를 하게 되어있다고 하니 알아두면 좋을 듯 싶다.

2. 주택자금 대출 대상 제외

조사결과 비혼이 집을 구하지 못하는 것은 대출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주택자금 대출은 일반 금융기관을 통한 것과 구청을 통한 방법이 있는데, 주택자금대출은 국가의 주택정책에 힘입어 낮은 금리를 자랑한다. 그런데... 비혼에게는 턱이 높았다.

① 일반 금융기관의 주택자금 대출 불가

최근 6%까지 낮아진 주택자금 대출의 경우 별도로 담보를 설정하지 않아도 '주택보증신용기금'을 통해 신용보증을 받게 되는데, 이 때 자격요건이 다음과 같다.

* 보증신청 대상자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부양가족(배우자, 본인의지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있는 만20세 이상인 세대주
- 세대주는 아니지만 세대주에 준하여 보증대상으로 인정 가능한 자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인 경우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경우로서 배우자에정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키는 자

즉, 가족과 함께 살며 부양하거나 결혼하거나, 결혼예정일 때에만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통해 주택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② 구청의 저리융자혜택 대상 제외

서울의 경우, 각 구청에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에 대해 3%대의 저리융자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년 상환이며 2년까지 연장가능한데 여기에서도 자격요건의 위의 '보증신청 대상자'와 유사하다. 구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영등포구청은 대상에서 '단독가구 제외'를 명시하였으며, 마포구청은 '35세 미만 단독가구'를 제외시키고 있다.

여기까지 조사하며 잠시 한숨을 쉬었던 나는 '그럼 적금 부어서 살아야겠군'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장기 주택마련저축'과 같은 상품을 보면 '근로소득자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는 연간 저축액의 40%(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비혼은 기혼에 비해 1년에 30만원까지 세금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3. 호주제

비혼들이 자신의 부모와 함께 이루었던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다고 하더라도 호적만은 남게 되어있다.(굳이 일가창립을 하면 완전독립이 가능하다고 한다. 방법은 '비혼여성을 위한 생활 TIP'을 참고) 남성중심의 호주제에 대한 대안으로 부부와 그 자녀만으로 가족범위를 한정하는 '일가 호적제'와 개개인에게 호적을 부여하는 '1인 1적제', 그리고 현재의 주민등록제도에 호적관리를 포함시키는 '개인별 주민등록제도를 수정한 호적'제도가 있는데(<http://antihoju.jinbo.net> 참조) '일가 호적제'는 비혼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1인 1적제'나 '개인별 주민등록제도를 수정한 호적'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4. 입양

비혼도 자녀를 입양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입양법에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입양법에 명시된 입양자격은 '20세 이상의 성인'이면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입양단체에서 입양자격을 '3년 이상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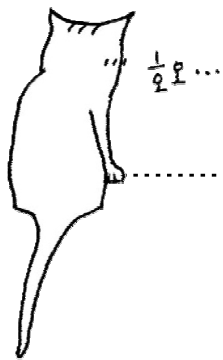
혼생활을 유지한 (이성애자)부부'로 내세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혹시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더라도 입양과정 중 가정법원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있다고 하니,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조사를 마치며, '비혼'이 '결혼준비기'나 '결혼실패의 결과'가 아닌 '선택된 삶의 형태'라고 한다면 제도적, 법적 준비가 시급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프랑스에는 '연대 민권 계약'이라는 의미의 'pacs'제도가 있다. 여기에는 이성애자 커플과 함께 동성애자 커플도 인정받게 되는데 'pacs'는 결혼제도가 아니지만 계약 후 3년째 되는 해부터 커플 합산소득 과세가 시작된다. 둘 중 하나가 직업이 없거나, 양자의 수입에 큰 차이가 있거나, 세 명 이상의 자녀가 생기면 면세 혜택도 받는다고 한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당사자들과 관심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부지런히 목소리를 내야 변화할 수 있다.



'비혼의 삶이 어렵다는 것', '잘 살아남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것'이 중요한 만큼 '비혼도 잘 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일일 것이다.

* 이 글을 펴기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월간 언니네(www.unninet.co.kr) 2002년 4월 특집 "나는 비혼여성입니다" 중.



비혼, 두 번째 페이지

여성을 '가족'의 틀 안으로 밀어 넣고자 하는 시도들 속에서
'정상가족' 안에 존재하는 어머니, 아내, 딸로서가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시민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구성하며 살아갈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2005년 2월 | 언니네 채널[넷] 특집 58호 : 정상가족, 명절大비판

2005년 2월 | [감자모임] 심란하다, "여성가족부

2005년 3월 | [성명서] '여성가족부'에 반대합니다!

결혼을 했든지 안했든지, 남자친구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당신 자신이 내적으로 쌓아 올리는 것 외에는
진정한 안정감이란 없다

- 길다 래드너

진정한 해방은 선거나 사법 제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영혼 속에서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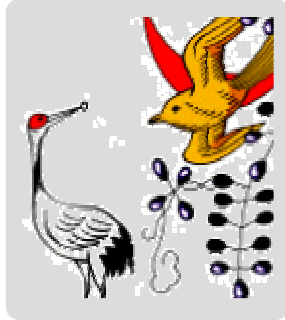
- 에마 골드먼

내 딸 마리아에게,
내 딸과 그 세대의 모든 소녀들은 온갖 꿈을 꿀 자유를,
그리고 어디든 언제든 누구와 함께든
마음껏 비행할 자유를 좀 더 누리기를 바라면서

- 캐롤 M. 앤더슨 <단독비행> 중에서

CHANNELnet.

채·널·넷·특·집



정상가족, 명절大비판

명절이 즐거움보다는 너무 많은 부담과 의무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걸만 요란하게 치장했던 거라면, 이제라도 그 포장을 뜯어내보자.

- ▶ 여는 글
- ▶ 명절, 너무나 지독한 정상가족이야기
- ▶ 정상가족이데올로기와 법률
- ▶ 30대 비혼여성의 명절나기
- ▶ 명절에 대한 모녀의 동상동몽 혹은...
- ▶ 며느리맛이 기념 시댁의 명절대변신...
- ▶ 혼자만의, 또다른, 명절보내기

◀ 지난 특집보기

- ‘정상가족이데올로기와 법률’은 언니네 채널[넷](www.unninet.net/channelnet)에서 읽으실 수 있어요~
- ‘30대 비혼여성의 명절나기’는 언니네트위크 3번째 책, <태그놀이>에서도 확인가능!



[58호] 여는 글

꿈틀 / 언니네 편집팀, toolove@hanmail.net

2월. 1년 중 가장 짧은 달. 달력 속 빨간 날이 3일이나 되니 더 짧게 느껴진다. 그만큼 묵은 피로를 벗고 삶에 여유를 가져보겠다고 마음먹기 딱 좋은 시기다. 그런데 그런 희망도 잠시뿐, 연휴라고 하기엔 왠지 뻑뻑지근하고 불안한 이유는? 바로 연휴의 내용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라는 막강한 명절 연휴기 때문이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올해도 고향에 내려갈 차편을 예약하고 선물을 사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들로 분주한 분위기는 여전하다. 대한민국 곳곳은 지금 설날이라는 명절 기운으로 온통 들떠있다.



이런 연휴를 잘 이용해서 여행을 가는 '암체족(?)'이 점점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일 년에 설날, 추석 두어 번은 그래도 명절답게 '쇠야'한다고 말한다. 그때가 아니면 언제 온 가족이 모여 보겠냐고, 옛날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간소화됐으니 이것조차 하지 않으면 전통이나 미덕이 사라진다고 하는 온갖 명절 시수에 관한 당위성들로 인해, 우리는 연휴동안 몇 시간의 고통체증을 감수하면서 고향을 방문하고 친지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간다. 뭐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평소엔 거의 찾지 않는 친척을 만나서 적당히 친한 척을 해야 한다가나 그래도 뽕뽕하면 깊숙이 넣어두고 명절 때만 등장하는 윗놀이를 함으로써 가족, 친척 간의 유대를 강화하려고 한다가나 하는 일들은 솔직히 말해 너무 명절스러운 연휴이 아닌가?

사실 민족의 명절 즈음에는 어김없이 '명절증후군', '명절 스트레스'라는 말들이 등장한다. 온 가족이 모이는 즐거운 명절의 이미지 뒤에는 바로 그 명절로 인해 괴롭고 힘들어서 명절 자체를 없애버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다. 명절은 아버지, 남편, 아들, 손자라는 남성중심의 혈통에 기반한 가계를 토대로 성묘를 가고 제사를 지내는 거대한 정상가족 재생산 프로젝트의 일부이다. 이 와중에 엄청난 음식 장만과 남자들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엄마, 아내, 딸, 며느리 등 여성들의 명절대착취가 벌어진다. 아무리 평소에 평등한 가사노동 분담을 하고 가족 중심의 생활방식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다가도 명절이 되면 다시금 가족, 가계, 민족의 품으로 '귀향'하면, 공든 탑이 무너지기 십상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명절'은 너무나 정상가족 중심이다 보니 그렇지 않은/못한 사람은 '명절스럽게' 보내지 못하는 데서 소외감이나 우울함, 불편함을 느낄 수 밖에...

이번 특집에서는 '정상가족'에 포함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고통받는 명절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페이지 퍼문은 명절이 사실 얼마나 지독한 정상가족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지 들려준다. 이지선 변호사는 바로 그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제도적, 규범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법률에 대해 짚어준다. 사실상 법률이 얼마나

가족을 보고하고 지원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성지는 30대 비혼 여성으로 명절을 나는 경험을, 달마는 갓 결혼한 며느리의 초 울트라 슈퍼엽기적인 명절 대변신 스토리를 생생하게 전해준다. 여량은 명절을 어떻게 모녀 스토리로 만들어 갈 지를 자신의 어머니와 허심탄회하게 나눈 대화를 토대로 들려준다. 마지막으로 오래 비혼생활을 해온 안이희옥씨는 중년의 비혼 여성으로서 자신의 명절 경험을 통해 새롭게 구상해보는 명절 보내기 노하우를 알려준다.



어쩌면 우리가 이미 경험한 이야기라 별로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 지도 모르겠다. 읽다보면 맞아 맞아 고개를 끄덕이다가 결국은 화가 날지도 모르겠다. 편집팀은 이번 특집을 준비하면서 명절이 더할 나위 없는 초강력 정상가족 프로젝트라는 사실을 재차삼차 확인하며 속이 부글부글거렸다.

명절이 즐거움보다는 너무 많은 부담과 의무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걸만 요란하게 치장했던 거라면, 이제라도 그 포장을 뜯어내보자. 새로 쓰는 결혼, 가족 이야기가 있듯이 새로 쓰는 명절 이야기도 많이 나올 수 있

게... 그런 이야기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언젠가는 정상가족 명절에 과감히 초강력 칼라파워액션을 날려버릴 수 있을 거다. 이번이 그 시작이길 바라며, <정상가족명절대비판> 시작!

* 이 글을 퍼가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월간 언니네(www.unninet.co.kr) 2005년 2월 특집 "정상가족, 명절대비판" 중.



[58호] 명절, 너무나 지독한 정상가족이야기

페이퍼문 / 언니네 편집팀, sidestory101@empal.com

지독한 소외와 배제문화

활달한 성격의 큰 이모는 명절이나 회갑연 같은 공식적인 가족행사는 오지 않았었다. 이모는 왜 안와? 라고 물으면 엄마는 눈을 찡긐 하며 내 옆구리를 쿡 찌르곤 했다. 엄마의 이런 행동은 내가 뭔가 눈치 없이 굴 때 하는 행동이다. 엄마의 그 행동으로 이모가 왜 안 오는지 물으면 안 된다는 걸 짐작한 나는 명절 연휴가 끝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큰 이모가 웬지 안쓰러웠다. 그 마음은 엄마도 마찬가지였는지 엄마는 꼭 그 주 주말을 비워놓고 큰 이모를 위해 손으로 만든 만두를 남겨두고는 했다. 지금이야 이것보다는 낫겠지만 대부분 이혼여성들은 명절 때 집으로 가도 제 자리를 찾기가 어렵다. 그래. 큰 이모는 집안의 유일한 "이혼녀"였다. 나중에야 들은 얘기지만 큰 이모가 이혼 후에 가족 행사에 찾아갔을 때 친척들은 냉랭한 눈길로 못 본 척 했다. 그 이후 큰 이모는 모든 가족 행사에 발길을 끊고 엄마와 외할머니만 가끔 찾아가곤 한 것 같다.

명절 때 가족들 얼굴을 보기 계면쩍어 하는 건 이혼 여성들뿐 아니다. 취직을 못한 실업자도, 혹은 서른이 넘어 똥차 취급받는 미혼, 비혼자들도 마찬가지이다. 결혼과 출산경험으로 서열을 매기고 성인이 된 인증서를 지급하는 기존의 "정상가족" 수호자들은 정상가족을 아직 못 만든 모든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며, 가족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와 다른 삶을 사는 모든 이들의 삶을 의미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횡포를 잘도 저지른다. 명절이 되면 두 손 가득 선물을 들고, 아내 혹은 남편과 아이들 손을 잡고, 한복을 입고 귀경하는 "정상가족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명절 때마다 소외를 느끼고, 배제당하는 것이다.



그럼 정상가족들은 행복하신가요?

그럼 정상가족들끼리는 행복하고 화목하게 명절을 잘 보내다 가느냐면, 그것도 아니다. 기껏 일 년에 한두 번, 많아야 네 번 정도를 모이는 친척들 사이에 깊은 신뢰와 인간적인 이해가 쌓였을 리가 만무하다. 어린 시절의 몇 년 말고는 서로에 대해 아는 게 없는 사람들끼리, 혈연이라는 가느다란 인연의 끈을 중심으로, 성인이 되어 다시 모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회생활처럼 서로 성인으로 대접해주며 예의를 차려도 분쟁과 갈등이 있게 마련인데,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역할과 이름을 다시 주며 그에 따른 예법을 강요하고 결과적으로 서로에게 무례를 일삼는 상황에서 이 "친척모임"들은 그 어떤 성인들이 모이는 모임보다 분쟁과 갈등의 요인이 많다.

또한 이 모임에서 주로 나누는 대화의 내용은 서로의 재산 상태와 각자 가족들의 정상가족 진입여부(결혼과 출산 여부)이므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그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누구라도 마음상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 게다가 집안 마다 꼭 있는 크고 작은 돈 문제가 명절을 기회로 불거져 나오거나 아니면 기어이 화투판에서라도 돈 문제가 생겨 큰 소리가 오가고 싸움질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렇게 난리부르스 한판이 지나가고 나면 아이들과 함께 윗놀이를 하는 시늉을 잠시 하다가, 한편에서는 남자들끼리 술판과 화투판을 벌이고, 또 울그락 푸르락이 반복되고....한쪽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시누이와 올케, 동서지간끼리 남자들 흥보며 연대도 했다가, 서로에게 화도 냈다가, 혹은 스트레스받은 티도 못내고 꼭 찹다 핫병이 나는 정상가족 내 여자들의 우울한 명절풍경이 다른 편에서 펼쳐진다.

명절,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해

드디어 호주제가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평등에 반하는 성차별적 제도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았다. 호주제가 성차별을 끊임없이 재생산해내는 가족제도를 수호하는 법적 근거였다면, **“명절”은 정상가족의 문화적 근거**로서 존재한다. 하지만 가족은 변하고 있다. 이혼 가족, 재혼 가족, 한부모 가족, 독거노인, 동거 가족, 공동체 가족 등 정상가족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수많은 다른 가족과 더불어 가족제도로 보호되지 않고 있는 개인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복입고 절하고 윗놀이하고 경복궁 찾아가고 외국인들 불러모아 한복입혀서 퀴즈대회를 여는 번치 않는 TV프로그램과 때마다 차례상 차리는 법을 칼리화보를 동원해 알려주는 신문들과 국가차원으로 대응하는 대대적 귀경 전쟁 등 명절이 되면 온 나라가 갑자기 가족과 전통적 가치의 수호자로 대변신을 한다.



그리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은 명절때 소외된 이웃을 돕자는 내용이다. 그러나“달라진” 명절을 조명하고 새로운 명절 문화를 보내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소외된 이웃들”을 돕자는 이야기보다 더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난리법석을 피우는 것이 바로 그 문화에 함께 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킨다. 명절이라는 너무나 지독한 정상가족이야기는 이제 너무 오래된 테이프처럼 누구의 귀에도 즐겁지 않은 불협화음만을 내고 있다.

* 이 글을 퍼가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월간 언니네(www.unninet.co.kr) 2005년 2월 특집 "정상가족, 명절대비판" 중.



[58호] 며느리맞이 기념 시댁의 명절대변신작전

달마 / 언니네 회원

명절 때 아무것도 안한다길래 믿었건만

며느리 맞기 전과 후를 기점으로 대변신하는 시댁의 명절 보내기 스토리는 코믹스러운 정도로 기막히다. 어찌보면 난 명절에 설거지를 덜 하기 위해서, 혹은 도저히 개선의 여지가 없는 아들 없는/대가 끊긴/아들이 없기에 박복한 우리 집 명절을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어서 결혼해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남편네 집이 설날에 떡국도 안 해먹고 있는 반찬에 밥 먹는다든 말, 그리고 추석 때 송편도 안 먹는다든 말을 들으며 이 남자면 같이 살 수 있겠다든 생각을 했을 정도니까 말이다.

남자의 이런 종류의 말을 절대 신뢰하면 안 된다. 그 당시에 그것은 진실이지만, 며느리 없는 집의 편안했던 명절은 며느리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거대해지기 시작할 테니 말이다.



결혼을 하니, 시댁의 명절은 달라졌다. 결혼하고 첫 번째 추석 때에, 시부모님들은 30년간 왕래가 없었던 큰고모님 댁에 가야한다고 했다. 큰아들 내외, 작은아들 내외를 대동한 친척 방문의 시간이 오고야 말았다. 그리고 설날 역시, 이제까지 거의 왕래가 없었다던, 경상남도 끝자락에 터잡은 큰집에 내려가야 한다고 했다. 하루 전날 내려가서 그 날 저녁밥상과 술상을 봐야하고, 다음 날 아침에는 차례 상을 봐야하며, 아침상을 치우자마자 술상을 차린 뒤, 다시 치우기가 무섭게 “점심 먹자~” 소리를 들어야 하는, 어이없고 억울한 시간이었다. 억울했다는 말로는 모자란다. 차라리 친정에서 삼일 밤낮을 친척들 밥을 해줘도 이보다는 덜 억울할 것 같았다. (심지어 나는, 내가 기억하는 2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기억되었던 우리집 명절이 그리워지기까지 했다. 내가 왜 여기에 와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밥을 해먹이고 있어야 하는 것이냐!!!!!!) 급기야 화가 나서 방에 들어가 울어버렸다. 좋은 전략은 아니었지만, 전략을 짠 것도 아니었고 짤 수도 없었고. 우왕좌왕 그 집을 벗어나고만 싶었던 것 같다.

또한, 두 번의 명절 모두, 친정 부모님들은 ‘시댁’에 먼저 다녀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나는 그게 어이없어 남편과 갈등이 더 깊어졌지만 말이다. 남편은 자기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으나, 결혼하고 첫 번째 맞는 명절이니까 **부모님 뜻에 따라드리자고 했다**. 그럼... 나도 결혼하고 첫 번째 맞는 명절이라 **나의 부모님 뜻대로 시댁을 먼저 챙겨야 하는 거냐** 말이다!

이빨새 속았구나



나에게 결혼 후 첫 번째 명절은 정치적으로 올바른 명절 문화를 시도할 생각도 못하고 지나가 버렸다. 설날에 떡국도 안먹고 추석에 송편도 안먹는다는 시집의 명절이야기를 철떡같이 믿고 있다가, 아무런 대비책 없이 흘러가 버렸다. 남편은 이번 한번이 마지막이라고 했다. 멍청이. 분위기 파악을 그렇게도 못한다. 나에게 과도하게 시집을 몰아붙인다고 하지만, 일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것은 뭐냐 말이다. 지난 추석에도 역시, 명절마다 제사마다 큰집에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던 시어머니다. 나도 그 자리에서 바로 가기 어렵겠다고 말하긴 했지만, 설날이 일주일 남은 지금 언제 어떤 전화가 올지 모를 일 아닌가.

철떡서니 없는 남편은 아직도 명절날의 행보에 있어서 자기가 결정한 대로 움직이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믿는다. 나에게 연휴동안에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가자고 조르고, 나는 가지 않겠다고 말한다. 명절을 일주일 남겨둔 지금, 남편과 나 사이에는 긴장의 기운이 감돈다. 남편이 나에게 시댁에 가야만 한다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나에게 가지 말자고 하지만, 나는 가지 말자는 남편의 말도, 그 말의 간편함에 짜증이 밀려온다. 가는 것, 가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은 남편에게가 아닌 나에게 지워진다는 것, 남편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눈치를 보게되는 사람은 나라는 것을 그 인간은 알고 하는 말일까. 시집에 가지 않을 거니까 친정에도 가지 말자고 하는 말에서도 짜증이 밀려온다. 명절은 이러나 저러나 짜증나는 일만 만드는 재주를 가졌다. 고작 한번의 설과 두 번의 추석을 지냈을 뿐인데, 나나 남편은 초긴장 상태로 명절을 맞이할 것 같다.

머느리맞이 행사를 치르고 난 뒤, 확~ 바뀌는 시집의 명절 스토리는 나만의 특수한 이야기가 아니다. 개인적인 일로 결혼 5년 안팎의 여성을 만나 결혼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하고 있는 나는, 안 지내던 제사를 지낸다든가, 안 담그던 김장을 한다든가, 안 만나던 친척을 찾아 인사를 다니는 것이 비단 나만의 경험이야임을 새삼 확인한다. **자녀의 결혼은 가족임에 대한 확인을 대외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이 된다. 가족임에 대한 공포, 이제 가족다운 가족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강제, 강제된 책임감, 결혼한 사람의 당연한 자세이자 임무. 이것들이 결합되어 머느리맞이 명절 대변신은 시작된다.**



따로 따로 각자 집 가는 걸로 합의보재

시댁 이야기와 무관하게, 난 명절만 되면 엄마걱정을 한다. 나 안키면 우리 엄마 혼자 힘들텐데...그냥 나는 우리집에 너는 니네집에 가면 안되냐. 그렇게 정말 합의보고 싶다. 아재

* 이 글을 펴가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월간 언니네(www.unninet.co.kr) 2005년 2월 특집 "정상가족, 명절大비판" 중.



[58호] 명절에 대한 모녀의 동상동몽 혹은 동상이몽

명랑여랑 / 언니네 편집팀, yoiting@hanmail.net



'명절특집글'을 써야한다는 목적으로 엄마를 만나야만 했다. 사실 설레고 기대되었던 것은 '중년 기혼 여성'이 아닌 나의 '엄마'의 이야기였다. 쑥스러워서 물어보지 않았던 것들도 오늘날은 다 물어봐야지라고 마음먹고 엄마를 만났다. 그리고 길고긴 애증의 관계를 지나서, 이제 엄마가 결혼한 그 나이에 벌써 내가 위치하게 되었음을 문득 깨닫게 되었다.

엄마, 인터뷰 기사를 쓴다면 이름을 어떻게 넣어줄까?

김지숙! 내가 '처녀시절' 펜팔하던 이름이야^^

(—;; 펜팔이라니..) 엄마 처음 결혼했을 때 명절 생각이 나?

응, 내가 결혼한 때가 1980년이야. 12월에 결혼을 하고 구정이 되어서 처음 시댁에 가게 되었지. 응. 근데 죽기보다 가기 싫었어ㅋㅋ

왜냐면 아빠네 시골이 새마을 운동이 안 되어서 나무를 때더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하라고 하는데 빨리 오고 싶었어. 일을 많이 해서 힘들기보다는 내 생활하고는 동떨어져 있으니까. 사람이고 뭐고 주변이 다 낯설으니까. 시댁 식구들 한두 번 봐서는 친숙하지 않잖아. 적응이 안되고.

그럼 요즘엔 좀 달라진 것 같아?

결혼한 지 26년이 되어 가는데 많이 바뀐 것 같아. 이제 제사도 많이 간소화된 것 같아. 예전에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음식을 해야 했잖아. 그래도 시댁식구들은 26년간 봐 와도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아. 1년에 한두 번 밖에 안가서 친해지지 않는지 몰라도 속마음 내놓는 대화의 상대는 아닌 것 같아. 멀어서 자주 못 만나기도 하고. 도리와 의무감으로 가야할 것 같은데, 또 때 되면 부담스럽고 짜증나고, 어떻게 하면 안갈까 고민하고...

그러게 엄마는 엄마 집 가서 제사지내고, 아빠는 아빠 집 가서 제사지내면 얼마나 좋아

그건 아니지. 부부가 각각 자기 집에 명절에 가는 거라면 결혼은 안 하는 것이 낫지, 뭐하러 결혼해? 부부는 그러면 안 되는거야.

요즘 엄마 친구들 중에는 며느리도 딸이랑 같다고 하는데, 나는 도저히 될 수 없다고 생각해. 어떻게 며느리가 딸이랑 같아?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일을 시키냐. 그래도 나는 시댁에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최소한 행사 때는 참석하는 게 도리지. 그런데 나는 가능한 안 가려고 노력해.

-

언제나 '큰집'에 가기 싫다는 나와 동생을 다그치면서, 그러면 안 된다던 엄마도 사실은 같은 마음이었다는 사실은 꽤나 위안이면서도 씁쓸했다. 결국 지난 26년간 **싫어도 의무이기 때문에 가**았다는 것 아닌가 '결혼한 여자'로서의 도리와 '사실은 하고 싶지 않음' 사이의 갈등은 아직도 강하게 진행 중인 것처럼 보였다. '결혼'이라는 것이 꼭 '가족행사에 동반참석'을 전제로만 하는 것은 아닐 텐데 말이다.

-

곧 설날인데 요즘 무슨 생각이 켈 많이 나?

엄마.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 참 보고 싶어. 항상 연락하고 해서 살아계실 때는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못한 것만 생각나서, 혼자 울기도 잘해. 엄마 손잡고 쇼핑 못한 게 한이 되는 거 있지. 살갑게 못 대했던 게 한이 된다. 같이 목욕탕가서도 맡겨놓고 손수 때 밀고 이런 거 못했어. 아직도 설날 되면 미리 점심 먹으러 오라고 전화하고... 빨리 오라고 하고... 했던 게 생각나. 외삼촌네 가면 엄마가 앉아있을 것만 같고...

그렇구나... 그럼 엄마는 명절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은 없었어?

나는 꼭 명절에 여행을 가고 싶어. 여행가면 정말 좋겠다.

어디로 가고 싶은데?

꼭 어디에 가고 싶다기보다도 그냥 **여행**을 가고 싶어.

그럼 개 가면 되잖아

아빠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고 해(-_-). 나도 평상시에는 일을 하니까 명절에는 조용히 쉬고 싶지. 며칠 명절이라고 있다보면 쉰 것도 아니고 피로가 더 오는 것 같아.

내가 죽어도 제사 지내고 이런 것보다도 너네들이 편한 시간에 와서 조용히 보내면 좋을 것 같아. 꼭 다가갈 이 명절이라고 그 날 할 필요 있나?

이제까지 명절에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은 뭐였던 것 같아?

딸만 있어서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았지. 제사에 가도 남자들만 참석하게 하고, 산소에 비석에도 남자 이름만 넣고.. '딸만 돌아냐 그런 소리가 제일 듣기 싫었어. **'딸이 돌아냐가 아니라 '딸만'이라는 거야.** 특히 제사 지낼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느니 큰집의 아들을 양자시키느냐 이런 이야기. 옆에 바로 딸들이 멀쩡하게 앉아 있는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 참 많이 받았지.

그럼 아들 낳을 생각은 안했었어?

둘째 딸 낳고,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우리나라에서 큰딸은 살림밀천이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고, 형제들이 다 둘째는 아들을 낳아서 나도 둘째는 아들을 낳을 줄 알았지. 미리 아들인지 딸인지 알아보고 이런 거는 안했어. 딸을 또 낳고 사실 한 달을 울었어. 그리고 나서 나는 굳게 마음을 먹고 '개혁'을 했어. 내 팔자는 딸만 돌아구나, 라고 마음을 먹게 된 거지. 아마 아들을 낳았으면 정말 평범하게 살았을 거야.

엄마 형제도 여자들이 많잖아.

응, 딸만 다섯 아들 하나여서 나도 아주 설움이 컸지. 그래서 내 애들까지 이 설움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더 낳을 생각은 하지 않고 마음을 바꿨지. 두 딸을 어떻게 잘 키울까를 정말 밤에 잠 안자고 고민했다니까. 여자라는 것 때문에 차별 안 받고, 당당하게 키우려고 했어.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유난스러웠구나 --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으면 굳이 고생하지 않았을 거 같아. 평범하게 아들은 아들답게 딸은 딸답게 키우려고 했겠지. 사람들이 저 집은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하면서 딸만 있다는 이유로 가엾게 여겼다니깐.

-

사실 나 역시 '딸은 아무 소용없다'라는 말을 아무 거침없이 내뱉던 그들이 참 싫었다. 나의 존재가 단지 '딸'로 평가받는다는 것이 싫었고, 딸만 있어서 갑자기 불쌍해지는 우리 엄마의 위치도 싫었다. 그렇다고 '남자들보다 인정받아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딸의 모든 영역을 관리 통제하는 엄마가 좋았던 것은 아니었다. 참 많이 피곤했고, 엄마의 큰 기대는 서로에게 상처만 주었다. 이제는 꽤나 여유 있게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음에도 말이다.

-

엄마, 그럼 결혼을 안 하는게 더 좋지 않았을까? (아...그럼 나는 존재하지 않지만)

내 세대만 해도 결혼은 꼭 해야 하는 거였어. 지금 마냥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었다니까. 그런데 다시 태어난다면 결혼 안하고 싶어. 그냥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싶을 것 같아. 이게 꼭 아빠에 대한 불만이 아니야. 상대가 누구라도 결혼 자체를 안 한다는 거야.

결혼해서 뭐가 제일 안 좋았어?

결혼하게 되면 본인의 자유는 하나도 없어. 다 자기가 희생을 해야만 정상적이고 화목하게 가정이 이끌어지는 거야. 그래서 결국 자기 자체가 없는거지. 그리고 아직까지도 여자의 희생이 크지. 당장 너네가 뭐 잘 못하고 다니면 누구 책임이라고 하겠니?

응, 그러니까 나보고는 결혼하라고 하지 마.

결혼은 하느냐 안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 뭐, 자기가 주관이 뚜렷하고 능력이 있으면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돼. 결혼을 하면 그전에 자기가 혼자 즐기던 것도 못하고, 다른 한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 신경써야 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다. 사람들은 결혼 안하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 외롭다고 하는데 사실 어차피 외로워. 같이 사는 사람이라도 100% 자기 마음을 상대방에게 드러낼 수는 없거든. 마찬가지로인 것 같아.



올해도 명절을 '그냥 때우면 된다'고 담담하게 말을 마치는 엄마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다. 26년간의 결혼생활을 한마디로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외롭기도 하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면서 딸에게나마 대신 실현하고자 모든 것을 희생했던 시간이 흘러버렸기 때문이다. 이미 엄마의 '분신'이 아닌 내가 엄마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소소하게 엄마의 욕망을 부추기는 정도. 언젠가는 꼭 한 번 혼자 훌쩍 여행하고 싶다는 엄마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 이 글을 펴기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월간 언니네(www.unninet.co.kr) 2005년 2월 특집 "정상가족, 명절대비판" 중.

- 2005년 2월 23일 - [감자모임] 심란하다, “여성가족부” ∷ 홍보문

월레수다모임 '뜨거운 감자'에 감자 데우러(태우러? 찌러? 구우러?) 오세요~

2005년 첫 번째 뜨거운 감자 : 심란하다, 여성가족부!

언니네트워크 액션나우 팀에서 2005년 첫 번째 뜨거운 감자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그 이름도 심란한, 여성가족부!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된다는 소식을 들어보셨나요?

이성애정상가족 중심의 가족주의를 ‘복구’하려는 일련의 흐름들 속에 건강가족기본법이 시행되더니, 이제는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개편된 여성가족부는 ‘가족보호 및 지원정책(주로 가정갈등 예방과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진)과 함께 ‘출산기능’을 주관한다고 하네요. 더구나 현재 여성부의 남녀차별 사건의 조사·처리 기능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된다고 합니다.

소식을 듣고 우선은 '안돼~~!'라는 심정이 들긴 하지만, 그와 더불어, 개편된 여성가족부가 가질 예상되는 한계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들, 정부 부처들 간의 역관계 속에서 힘 없는 여성부의 위치(여성부로 남아있지 않고 여성가족부로 개편해야 인력과 재정을 보장 받을 수 있는)에 대한 쓸쓸한 심정들, 개편안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지지를 표명한 한국여성단체연합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 이런 상황들 속에서 '나'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가족'에 관한 온갖 고민 등등이 주룩룩 떨어져 와서 말 그대로 정말 심란해 지는데요.. 회원들끼리 모여서 이 심란함을 허심탄회하게 털어 놓고 수다라도 한판 떨어봅시다!

월레수다모임 '뜨거운 감자'는 언니네트워크 회원들의 내부적인 대화 공간이자, 회원들의 목소리로 채워지는 난상토론 수다판입니다. 액션나우팀에서 조사한 정보 제공과 간략한 발제를 준비하고는 있지만, 발제를 들으러 오는 자리이기 보다는, 회원들 각자의 이런저런 정리되지 않은 단상들을 풀어놓으며 같이 언니네트워크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드러내고 다듬어 가는 자리였으면 합니다.

그러니 큰 부담 없이, 의아함 수준의 문제의식들과 정리되지 않은 이런 저런 생각들, 이것만은 집고 넘어가야겠다는 결심 같은 페너지들만 꼭꼭 챙겨오시면 되요.

장소 : 여성플라자 2층 소모임1실

일시 : 2월 23일 수요일 저녁 7시

참, 조출한 다과가 준비되긴 하겠지만.. 간단한 다과로는 저녁시간의 출출함을 못 이기실 것 같은 분, 혹은 회원들과 함께 먹고 싶은 맛난 음식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준비해주세요~~

● 2005년 2월 23일 - [감자모임] 심란하다, “여성가족부” ::: 발제문

심란하다, “여성가족부”

시타 (언니네트워크 액션나우팀, sita-fight@hanmail.net)

※ 이 발제문은 언니네트워크 회원들의 내부난상토론을 위해 작성된 것이니 인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그동안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져 새로운 정책영역의 설정과 정책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는 ‘가족보호 및 지원정책’ (가족해체, 이혼, 혼례, 가정갈등예방과 모부자기정지원 및 모부자복지법)과 함께 ‘출산기능’을 (가칭)여성가족부가 주관한다. (여성가족부 개편 관련 여성부 홈페이지 2004-12-17 기사 중)

“성폭행과 같은 민감성을 지닌 인권 침해 문제는 인권위에 맡기고 여성부는 가족적이며 돌봄(caring)의 분야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한혜정, 월간 {인권} 2005-1월 인터뷰기사 중)

"차라리 여성부를 폐지해야 한다. 출산, 보육 업무 같은 경우 모자보호 측면에서 보건정책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하는 것은 무리다. 남녀차별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업무 역시 여성부에서 국가인권위로 넘어갔는데, 여성부는 무엇을 하는 부처인가?"(김춘진 의원, 보건복지위 소속, 2005-1-24 국회 비공개 회의석상에서의 발언, 출처 : <시민의 신문> 2005-1-26일자)

가족부로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아닌가?! 여성은 가족의 일원이니까? 가족은 남성,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다 들어가니까. 여성적인 관점에서만 정책을 집행한다면 가족의 다른 성원은 어떤 처지에 처할지 깊이 고민하기 바란다. (여성가족부 개편 기사에 달린 악플, id=걱정하는 이, 2004-12-23)

공평하게 남성가족부도 만들어 주세요.. 왜 자꾸 여성만 가족에 일원입니까 (id=남성가족부추진위, 2004-12-27)
지장관 하늘이 무섭지 않는가. 레즈비언 연합회 만들어 놓고 뭐가 그리 좋다고 떠드냐. 왜 하필이면 여성가족부냐. 남성들은 그럼 뭐냐. 이 썩을 것들아. 양성평등 주장하면 난리 치던 때가 엇그제 같더라. 성 차별적인 단어로 완전히 남성들을 무시하고 배제한 단체를 다시 만드냐. (여성가족부 개편 기사에 달린 악플, id=독신자, 2004-12-23)

우리나라 페미들의 80%정도는 독신자들이다. 결혼을 안 한건지 못 한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가족이라는 경험이 없는 만큼 페미들은 실질적으로 가족이 어떻다는 것도 모르고 따라서 가족에 관한 정책을 바로 만들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여성가족부 개편 기사에 달린 악플, id=독신자가 가족을 권리, 2004-12-23)
어떻게 페미들한테 가족을 맞길 수 있지. 페미들의 목표는 가족해체인데 (여성가족부 개편 기사에 달린 악플, id=아예막나가는구나, 2004-12-25)

1.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

2003.3. 국무회의에서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에 대한 논의 시작. 여성부와 여연은 환영

2003.8-10.가정학계에서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 제기, 사회복지학계가 이에 대응하여 가족지원기본법안 제기

2003.11.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 개최, 가정학계와 사회복지계가 동의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만들기로 함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 국회보건복지위에 ‘여성주의적 관점 결여된 가족관련 법안제정 반대한다’ 건의문

발송)

- 2004.1. 여성부에서 '전국가족조사' 실시 결과 및 정책전망 발표
- 2004.1. 노무현 대통령이 "가정의 가치를 새롭게 세워나가기 위한 정부조직 분장방안의 장기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
→ 정부혁신위원회가 각계 의견 수렴 시작
당시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출산, 보육 등 일부 보건복지부 업무의 여성부 이관에 찬성
- 2004.2. 건강가정기본법(이하 '건기법', 보건복지부 소관) 제정. 한국가정관리학회에서 관련 논문 수록.
- 2004.3.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확정. 여연이 환영성명 발표.
- 2004.3. 건강가정시민연대 발족 (가정관련 36개 회원단체)
- 2004.6. 여연이 가족정책 관련 간담회, 연속토론회 등 개최
- 2004.7. 여연이 건기법에 대해 '대체입법'으로 대응방향 확정.
- 2004.9. 여연 중심으로 '가족지원기본법(가칭)제정공대위' 발족 (여연, 민우회, 여전, 여성학회, YMCA, 참여연대 등 7개단체)
- 2004.9. 국무총리주재 관계장관조정회의에서 장기적으로 "가족부"를 지향하며 중간단계로서 (가) "가족여성청소년부" 신설안 검토 (정부혁신위가 제안한 초기 입장)
: 보건복지부 소관 아동, 가족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한다는 내용 -> 보건복지부 결사반대
: 문화관광부 소관 청소년 업무(정보위 포함)를 여성부로 이관한다는 내용 -> 문화관광부 결사반대
문화연대, 민예총, 한국독립영화협회, 전교조, 시민문화네트워크 등도 반대성명 발표
: 여성부는 현 행정체계 내에서 최선책으로 "여성청소년가족부" 신설 주장
: 여성부의 덩치 키우기 식 '부처이기주의'라고 비난
- 2004.9. 건강가정시민연대에서 업무 이관 반대 성명 발표 (건기법을 잘 실행하고 보완하면 된다는 요지)
- 2004.12. 정부혁신위가 가족업무만 여성부로 이관하여 (가칭)'여성가족부' 신설한다고 발표 (현재 국회의결 앞두고 있는 상황)
: ① 보건복지부 소관이었던 건기법과 모부자복지법을 여성부 소관으로 이관
② 가족보호 및 출산정책을 여성부의 기존 기능과 연계하여 총괄 추진
③ 여성부 소관이었던 남녀차별의 조사/판단/처리 기능을 국가인권위로 이관
여연이 환영성명 발표
: ① 새롭게 등장하는 가족문제를 성인지 시각에서 분석
② 부모권을 평등하게 누리도록 + 여성이 노동권 보장받도록
③ '상담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가족'(빈곤가족, 입양가족, 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서비스체계
④ 법제도상의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시정, 부부간 평등권 확보를 이한 법개정
⑤ 여성가족부의 영문 명칭은 현행 그대로
⑥ 국가인권위에 남녀차별 관련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담구조 갖추도록 요구
여성부가 '여성가족부 신설에 따른 가족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브리핑(12월22일, 지은희장관 주재)
: ① 가족의 안정성 강화 (가족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확대, 이혼가족지원강화, 위기가족 one-stop지원)

- 1) "“건강가정”으로 상정되는 전형적인 가족형태의 육성이 특정 가족형태의 유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비쳐지며, 특히 전통 가족기능 약화의 원인을 가족구성원의 가족에 대한 책임의식 및 도덕성 약화로 보고 있어 결과적으로 ‘건강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전통적으로 담당해 온 돌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귀결 될 수 있다. 여성주의 시각에서 보면 현재 가족의 위기는 남성 중심의 가족주의에 대한 위기이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가족가치관의 변화로 여성이 가족 안에서 담당하던 돌봄 노동을 더 이상 담당할 수 없게 되면서 가족기능이 약화된 것이므로, 가족기능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가족지원기본법에서도 가족 위기의 원인을 가족구성원의 책임보다는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어 건강가정육성기본법보다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자녀양육, 노인부양의 문제, 결혼체제 등을 가족위기의 핵심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가족의 변화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두 개의 법안은 결과적으로 급격히 진행되는 가족의 변화를 수용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두기보다는 가족의 위기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도덕적 책임을 강화하거나 위기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등으로 가족의 변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국회보건복지위에 발송한 건의문 중. 밑줄은 인용자. (2003.11.27)

- ② 출산과 양육에 대한 보호와 지원 (지원 강화, 출산·양육친화적 직장문화조성 및 보육의 공공성확보)
- ③ 남성의 부모역할 강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 ④ ‘가족-학교-지역사회’의 소통과 연대강화
(돌봄의 사회적지원망 구축 위해 가족-학교-사회연계시스템 마련, 돌봄 관련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 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 가족친화적 여가문화 확산
- ⑥ 이 모든 가족정책의 통합적 정책 추진을 위한 체계 마련

2005.1.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이하 ‘차별시정위’), 노동부,여성부 차별시정기구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 발표
: 여성부의 남녀차별개선위도 해소될 예정. 대신 인권위법 개정하여 전문위원회 둘 예정. (국회 제출)

2. 구린 ‘위기’ 담론이 확산되다

- 그들이 ‘위기’라고 말하는 것 : 세계 최저의 출산율 1.19% (2003), 이혼율 증가, 비혼 인구 증가, 고령화 등
- 즉 이성에 핵가족의 해체를 ‘가족 해체’로 비약. 그리고 그것을 ‘위기’로 가치평가.
- 그런데, 정말 도대체 무엇이 왜 위기인가? 누구의 관점에서?

3. 앞뒤가 심하게 뒤바뀐 : 무엇을 위해 가족업무를 가져오나

- 여성부가 너무 힘이 없다는 건 맞다. (지자체도 우습게 여기는 부처, 타 부처의 이해도와 동의도 떨어짐, 예산/인력/권한 취약, 존폐론 제기, 하루도 그칠날 없는 사이버 마초들의 테러 등)
- 그러나 덩치를 키우는 것(관할업무/예산/인력 불리기)과 ‘힘/영향력/사회적 동의’를 키우는 것이 꼭 같지는 않다. 게다가 정작 중요한 건 덩치 키워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이다.
- 덩치 키우기 위해 소관업무를 늘려야 한다는 발상은 본말전도다. 그것도 하필 ‘가족유지’와 ‘출산기능(?)’을 가져와서.
-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여성부는 여성운동의 성과물이지만, 여성운동이 여성부가 된 건 아니다. 감정이입 좀 덜해도 되지 않나.

4. 심란한 이유, 토론해보았으면 하는 단상들

1) ‘가족’을 정부부처 이름으로?

- ‘가족’이라는 명칭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족 위기’ 담론에 대한 보수주의(가부장제)의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 가족은 이미 너무 심하게 보호되고 있다.
- 가족 해체를 방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
- 이런 상황에서 ‘가족’이 정부부처 이름에 공식 언급될 정도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건 퇴행 아닌가?
- 레이저니즘, 대처리즘의 예를 보아도, 정부가 ‘가족’ 강조하기 시작하는 건 좋은 징조가 절대 아니다.

2) 평등한 가족? 다양한 가족?

- 평등한 가족? 가족은 이성애제도와 성별분업에 의해 움직인다. 정말 ‘평등’ 하려면 기존의 ‘가족’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야 (즉, 더 이상 가족이 ‘그 가족’이 아니게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가족이 우리가 아는 그 가족인 이상) ‘평등한 가족’이라는 말은 형용 모순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 다양한 가족? 정말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면, 가족은 ‘해체’되고 있지 않다(해체되고 있는 건 이성애 핵가족 뿐이다). 해체되고 있지 않다면 예방할 것도 없고, ‘위기’도 더더욱 아니다. 기존의 가족을 유지하겠다는 발상을 전혀 수정하지 않은 채 ‘다양한 가족’이라는 말만 끼워 넣고 있지 않나?
- 동성애자 커플, 비혼 여성 공동체 등이 부모-자식으로 구성된 이성애핵가족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가족’ 형태 중 하나’가 될 수 있나?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가족’이라는 말을 유지하면서 가능할까? ‘다양한 가족’이라는 것이 정말로 가능하려면 기존의 ‘가족’이라는 말이 먼저 충분히 의문시되고 상대화되어야 한다.²⁾
- “찾아야 할 것은 대안 가족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대안이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를 것인지는 더 넓은 틀에서 상상해야 할 것이다.” (이박혜경, “끼어들기에 반대한다”, 2004-7-17 건기법 대안을 위한 난상토론회 발표문)

3) 어머니/아내/딸에서 겨우 ‘개인(시민)’이 되었는데, 왜 갑자기 다시 ‘가족구성원’이 되어야 하나?

- 가족이라는 틀(frame)로 정책을 사고하는 것 자체가 퇴행이다. 단독가구도 인정한다고? 왜 ‘개인’이 아니라 굳이 ‘가구’가 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건가?
- 이미 너무 많이 보호하고 있는 가족에 더 많은 인력/예산/관심을 정부 차원에서 쏟는다는 건, 가족 바깥에 있는 개인들에게 돌아갈 인력/예산/관심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 가족 안/밖을 나누는 선 자체에 차별이 있다. 그 선을 다르게 짜려면 “사회의 최소단위는 가정”이라는 전제 자체를 먼저 흔들어야 한다. 사회의 단위는 가족이 아닌 개인이다. 정책의 대상 역시 ‘가족구성원’이 아니라 모든 시민 ‘개인’이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가족정책’이라는 말 자체도 거부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4) 여연이 여성계를 대표할 수 없다.

- 건기법은 말할 것도 없고, 여연이 중심이 된 가족지원기본법제정공대위(이하 ‘공대위’)가 대체입법안으로 제시한 ‘가족지원기본법(안)’ 역시 부분적이고 보수적이다. 가족지원기본법(안)은 단독가구와 공동생활가족을 제외하지 않는 등 건강가족기본법보다야 확실히 낫지만, 가족을 여전히 ‘혼인/혈연/입양에 기초한 공동체’로 보고 있고, 그 외 공동체는 가족 유사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법에 의한 지원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개인이 아닌 가족 중심의 틀이며 가족 ‘바깥’을 필연적으로 차별할 수밖에 없다.
- 여성은 단일한 집단이 아니다. 다양한 여성들이 가족에 대해 다른 목소리 낼 수 있다. 여성부-여연-여성계 라는 식의 균질적 집단화를 깨야 한다. 여연은 여성계가 아니며, 여성계를 ‘대표’할 수도 없다. 여성부의 존재위기가 여성운동의 위기는 더더욱 아니다.
- ‘여성계’가 단일하지 않아야 여성운동들이 말할 공간과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어떤 다른 목소리를 어떻게 낼 것인가?

2) “여성주의 가족정책에서 목표는 불평등 제거만이 아니라 여성/남성을 포함한 근대적 이분법을 해체해야 한다. 이것은 필히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옹호로 이어진다. 다양한 것들은 고정적이고 안정되게 다양한 채로 서로 간에 경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 다양성이 아니라 경계 침범과 혼돈의 상태이며, 정치적 정체화이자 정체성의 거부와 동시에 일어나는 투쟁의 상태이다. 여성성과 남성성의 이분법의 해체는 이러한 혼돈과 투쟁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이박혜경, “끼어들기를 거부한다”, 2004-7-17 건기법 대안을 위한 난상토론회 발표문 (미간행) 中

참고한 자료들

- “차라리 여성부를 폐지하라고요?”, <시민의 신문> 2005-1-26일자 기사
- “모든 '차별민원인권위로’, <여성신문> 2005-2-4일자 기사
- 이박혜경, “끼어들기에 반대한다”, 건기법 대안을 위한 난상토론회 발제문 (2004-7-17)
- 이지선, ‘정상가족이테올로기와 법률’, 월간언니네(<http://www.unninet.co.kr>) 2005년 2월 특집 "정상가족명절대비판" (2005-2)
- 여성부, ““전국가족조사에 따른 한국 가족의 현실과 정책전망” 자료집, 2004-1-19
- 여성부 홈페이지 뉴스란에 실린 관련 기사들
-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명서,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환영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 자료실
- 한국여성단체연합, <성인지적인 가족정책을 모색한다!> 토론회 자료집, 2003-10-22
- 한국여성단체연합,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 및 가족지원기본법안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 입장” 건의 공문,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 자료실 (<http://www.women21.or.kr>) (2004-11)
- 한국여성단체연합, <‘일·가족 함께’ 양성평등 가족정책 로드맵 마련을 위한 토론회1 - 가족위기? 가족변화? - 가족개념의 발상전환을 위하여> 자료집, 2004-6-29
- 한국여성단체연합, <‘일·가족 함께’ 성평등 가족정책 마련을 위한 연속토론회2 - 가족정책의 새로운 틀짜기를 제안한다> 자료집, 2004-11-10
- 한국여성단체연합 입장 발표문, “여성가족부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입장” (2004-12-17)
- 건강가정기본법령집

다양한 삶의 형태를 선택할 권리,
 여성이 가족구성원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행복할 권리를 위해
여성가족부에 반대합니다!

가족.

당신에게 가족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최근 tv를 통해 간간히 볼 수 있는 광고 하나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한 목도리가 며느리에 의해 시아버지에게로, 할아버지에게서 손녀에게로 건너어져 다시 아빠에게 되돌아오는 모습을 '연출'하는 광고입니다. 마지막은 나레이션으로 정리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 가족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뜨는 '공익광고협의회'의 로고.

당신이 생각하는 가족도 이런 모습인가요? 아니면 얼마 전, 설 명절에 친척들이 모여서 서로 뽀족이 할말도 할일도 없는 그 공간을 채우던 전쟁 같은 풍경들- '남자' 친구는 있냐는 등, '시집은 언제 갈꺼냐는 등, '살이 찼네, 빠졌네' 라는 등, 내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수행하라고 요구하는 친척들의 간섭, 한편에서는 친척 누군가의 이혼이 인생의 재앙처럼 은밀히 이야기 되고, 제사와 식구들 끼니 준비만으로도 하루 종일 쉴 틈이 없는 부엌에서는 어머니의 허리가 휘어가고 있는..., 그 기억이 다시 떠올라 진저리를 치게 하나요?

가족의 위기가 아니라 가족 때문에 위기

오랜 세월 동안 이성에 '정상가족' 안에서 어머니로, 딸로, 아내로 살아온 여성들의 경험은, 그 곳이 무작정 안전하지도 행복하지도 않다는 것을, 아내폭력이 목격되고, 여성에게 가사노동과 출산/육아를 강요하면서 동시에 여성의 노동권을 박탈하고, 이성에 중심주의가 가장 첨예하게 실행되는 공간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어머니, 딸, 아내였던 그녀들은 이제 '가족' 밖에서 다른 삶을 기획하고 살아가려 합니다. 그녀들은 출산과업을 하고, 이혼을 결심하고, 비혼의 삶을 살아가고, 혈연과 결혼으로 묶이지 않았지만 혈연과 결혼으로 묶인 이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들과 함께 하는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많은 언론들은 이런 그녀들의 선택을 '가족의 위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존재하지 않는 가족의 감동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미 실현되고 있는 삶의 방향들에 역행하는 이런 정부의 '가족' 복구를 위한 몸부림은 단지 공익광고에만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국가의 이런 몸부림이야말로 '위기'입니다.³⁾ 가족 이야기라면 이

3) 2월 감자모임 「심란하다, 여성가족부」 준비 회의 중 시타의 말

제 더 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지긋지긋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가족을 다른 목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정부의 이런 몸부림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입니다.⁴⁾

여성가족부.

특정한 형태의 가정만을 ‘건강한 가정’이라고 보고 다양한 형태의 삶을 소외시키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에 뒤이어, 이제 올해 6월부터 여성부가 없어지고 여성가족부가 신설된다고 합니다. 국가 행정부처의 이름에 ‘가족’이 명시되는 것만으로도 어이가 없는데, 더구나 여성-가족부라니요 가족 구성의 권리는 없이 가족 유지의 책임만 여성에게 전가되어 왔고, 어머니, 아내, 딸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이유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부정당해 왔는데, 정부가 나서서 다시 ‘여성’과 ‘가족’을 튼튼히 묶겠다는 것입니까?

여성부가 보여주는 많은 한계점들에도 불구하고, 여성부가 해왔던 남녀차별과 성폭력,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들은 분명 어떤 성과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가족부’가 되면 여성에 대한 이야기는 가족의 틀 안에서, 그 틀을 지키는 방향으로 흐르기 쉬우며, 이것은 분명한 퇴행입니다. 또한 ‘가족’을 대상으로 정책을 시행한다는 건 결국 ‘정상가족’이거나 그와 비슷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⁵⁾, 이는 ‘가족’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한 결혼을 끝내고 행복해지기 위해 이혼을 선택했던 한부모 가족은 ‘위기 가족’으로 낙인찍힌 후에야 ‘복지와 상담’의 대상이 됩니다.⁶⁾ 동성 가족은 ‘정상가족’과 얼마나 비슷한지 증명할 것을 요구받게 되며, 가족을 구성하지 않는 비혼 여성의 삶은 아예 존재할 공간조차 사라져 버립니다.

여성가족부를 반대 한다.

정부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기초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복지를 ‘가족’을 중심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은 개인으로 살아갈 권리, ‘가족’이 아닌 다른 삶을 살아갈 권리를 정부가 나서서 박탈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구나 여성부를 개편한 여성가족부를 통해 가족을 복구하려는 정책을 펴는 것은, 가족의 틀 속에서는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는, 이미 다르게 살고 있는 여성들의 삶을 배반하고 무시하는 일입니다. 이미 여성의 삶이 가족과 얽혀 있는 상황에서 가족 역시 운동이 일어나는 장이어야 하겠지만, 가족 안에서만, 그리고 가족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⁷⁾

4) ‘개인적으로 가족애기를 하기 싫지만 국가 정책이 나에게 줄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거죠. 릴레이 성명 쓰게 된다면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풀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감자모임 「심란하다, 여성가족부」 속기록 中 고통의 말

5) 성명서 초안에 덧붙인 감자모임 참석자 술래의 의견

6) ‘항상 가족 위기 담론 얘기하면서 "결손가정"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위 "결손가정"에서 자란 당사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들의 논리에 따라 소외되게 된다. 그들 스스로 행복할 수 없게 만드는 언설은 개인의 행복을 침해하는 나쁜 짓인 것 같다.’ 2월 감자모임 「심란하다, 여성가족부」 속기록 中 샘의 말

7) ‘가족 담론이 나오고 여성부에서 가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전부터 단체들이 해왔던 평등가족 사업들이 힘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현재 여성계 내부에서 “새로운 아젠다를 찾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족 애기와 결부되어진다면, 여성가족부로 바뀌는 것은 훨씬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이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나,를 생각해봤을 때 가족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가족이라는 게 운동의 한 부분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여성과 가족이 같이 가는 것이 운동을 매우 좁게 만든다는 생각이 든다.’ 2월 감자모임 「심란하다, 여성가족부」 속기록 中 조제의 말

내 삶의 모습을 간섭받지 않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받을 권리. 이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여성가족부의 등장에 반대합니다. 여성을 둘러싼 차별적인 조건들 속에서, 가족 구성원으로서가 아닌 개인인 여성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아닌 여성부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시정해 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가족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개인들 간의 자율적이고 다양한 파트너십과,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입니다.⁸⁾

다른 목소리들로

언니네트워크 액션나우팀은 언니네트워크 회원들이 다양한 목소리로 말하고 나누는 자리인 「월레수다모임: 뜨거운 감자」⁹⁾ 2월의 모임 주제로 「심란하다, 여성가족부」를 제안했습니다. 이 성명서는 그 자리에 모인 네트워크 회원들이 생산해낸 고민과 말들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며, ‘성명서를 발표하자!’라는 의견 또한 그 자리에서 모아진 것입니다. 감자모임에서의 수많은 의견들을 모아서 정리한 것이므로 섞여 있는 말의 출처들을 모두 선명히 밝힐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인용해온 문구가 있는 경우나, 맥락을 더 풍부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출처가 있는 경우 주석을 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발표’될 뿐인 기존의 성명서 쓰기 방식에서 벗어나, 성명서가 쓰여지는 과정 자체를 공개하기 위한 시도이며, 이 역시 2월 감자모임을 통해 결정된 것입니다.

또한, 이 성명서는 완결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2월의 감자모임에는 오지 못하셨지만, 가족에 대해, 여성가족부에 대해 할 이야기가 많은 언니네트워크 회원들의 더 많은 목소리들에 열려져 있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명서입니다. 이 글을 읽고 어떤 부분들에 동감하고 있는, 그리고 더 많은, 더 다른 말들을 품고 있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2005. 3. 5. 언니네트워크

www.unninet.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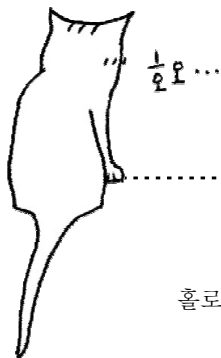
(초안작성 : 열)

※ 이 성명서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은 릴레이 성명을 꼬리말로 달아주세요~

8) 성명서 초안에 덧붙이는 메두사의 의견

9) 애칭 ‘감자모임’^^



비혼, 세 번째 페이지

‘정상가족’ 바깥에서
홀로 / 공동체를 꾸리면서 / 다른 형태의 가족을 구성하며 살아가고 있는
비혼 여성들의 삶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어져가요,

그리고, 다양한 비혼들이 서로를 확인하고
지지와 고마움의 마음을 전하며
비혼들만의 새로운 통과의례- 비혼여성축제를 시작합니다

-
- 2006년 8월 | [감자모임] ‘비혼을 비혼이라 부르지 못하고...’
 - 2006년 9월 | [감자모임] ‘비혼 맞춤형 경제 생활’
 - 2006년 10월 | [감자모임] ‘비혼 차별적 제도, 이건 아니잖습니까!’
 - 2006년 11월 | 언니네 채널[넷] 특집 78호 : 가족주의보
 - 2007년 3월 | 1회 비혼여성축제 ‘비혼, 꽃이 피었습니다’
 - 2007년 7월 | 언니네 채널[넷] 특집 86호 : 혼외正事

사람들이 나한테 우리들이 백 살이 넘도록 장수한 비결을 물어보면 나는
"우리는 독신으로 살았어요.

죽도록 속삭이는 남편이 없었다고요" 라고 대답해요.

- 베니 딜레이니(101세)가 자신과 언니 새디(103세)에 대하여

노처녀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백지 위임장이다

노처녀 지위에는 엄청난 위력이 있다

일단 "그 미친 노처녀"로 찍히고 나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 플로렌스 킹

- 2006년 8월 23일 - [감자모임] '비혼을 비혼이라 부르지 못하고...' :: 홍보문

열린 감자



언니네트워크 | www.unninetwork.net

8월의 열린 감자 : "비혼을 비혼이라 부르지 못하고..."

본디 세상은 성별, 장애, 계급, 인종 등 어떤 차이에 의해서건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 하늘의 도리이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결혼하지 않은 것을 낮게 보아온 악습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소. 어떤 이치에 닿지 못했다는 의미의 '미'자를 쓴 '미혼'이라 부르며 사회적 성인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오. 최근 결혼하지 않은 자라는 뜻의 '비혼'을 주창하는 이들이 있으나 뿌리 깊은 이성애 결혼중심사상의 벽에 부딪치고 있소.

결혼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에서부터 다른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 혹은 어떤 이유에서건 제도 안에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실로 이 '비혼'의 범주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소.

비혼을 백안시하는 환경속에서 살아남고자 '호호호, 저도 올해를 넘기지 않고 결혼 하려구요...'라는 거짓 결혼선망 멘트나 한부모 여성가장으로 살며 남편이 있다고 속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가슴 아픈 현실이오. 비혼을 비혼이라 부르지 못하는 우리는 비혼의 삶이 응당 누려야 할 사회적 배려와 제도적 지원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소.

이제 우리는 '비혼'의 이름으로 분연히 일어나 '비혼'에 대한 사회적 업수이어짐을 바로 잡고, 이성애 결혼중심으로 구성된 사회적 상호부조문화(예.결혼축의금)와 제도적 지원(예.자녀부양지원)이 만민에게 평등하게 재구성될 수 있는 중차대한 계기를 만들고자 하오. 그간 우리 사회의 '예외적 존재'이거나 '문제적 존재'로 침묵하며 살아온 그대들의 참여가 새세상을 여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으며 초대의를 대신하고자 하오.

일시 : 2006. 8. 23 (수) 저녁 7시

장소 : 언니네트워크 사무실

* '열린감자' 모임에는 언니네트워크 회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언니네트워크 (121-818)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84-6 대재빌라 302호 | Tel. 02-3141-9069

“비혼을 비혼이라 부르지 못하고..”

땀 + 시타 (언니네트워크 액션나우팀)

이미 우리는 많다

비혼들은 거짓 결혼선망연극, 적절한 섹스 파트너 찾기의 어려움, 긍정적인 역할 모델 없음, 아프거나 나이 들었을 때의 안전망이나 제도적 불이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점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혼자, 혹은 소수로서 외로이 어려움을 감수하거나 애써 ‘무시’하려고도 노력합니다. 어쩌면 ‘결혼하지 않았으니 이런 어려움이나 불이익은 당연한 것이지’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는지요? 물론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해도 함께 생각을 나누고 대안을 마련할 동지들을 만나기가 수월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소위 ‘정상가족’의 밖에서 살고 있습니다. 각종 매체에서 혈연 가족 이외의 다양한 가족의 존재를 다루기도 하고, 한부모가족이나 '돌싱'이라는 용어가 뜨는 대신 '노처녀', '노총각'이라는 단어는 구시대의 말처럼 낯설어집니다. 가족 상황의 변화를 또 다른 ‘시장’으로 파악하는 기업들은 싱글들을 위한 각종 상품들을 개발해서 내놓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비혼’으로 사는 사람들을 찾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비혼은 더 이상 ‘소수 극렬 페미’들만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하나의 사회적 사실로서 꽤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양식이라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들이 아직 서로 연결되지 않은 채 각자의 일상에서 홀로 분투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뭔가, 모여서 서로를 알아보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변하고 있는 것, 변하지 않고 있는 것

지난 몇 년 간 ‘정상가족’ 밖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목소리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싱글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나 캠프가 기획되기도 하고, 제도정치의 장에서 현 정부의 가족정책 방향을 비판하면서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않는 방식으로 법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단체도 만들어 지고, 동성애자들의 ‘가족구성권’ 요구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목소리들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쉽게 변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전히 일상 곳곳에서 비혼을 ‘예외’나 ‘문제’로 취급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거나, 혹은 제도정치의 차원에서 많은 인력/예산 등의 자원들이 가치없이 출산장려와 정상가족 강화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목도하기도 하니깐요. (며칠 전 발표된 세무정책안에 따르면 독신자는 앞으로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쟁점) 여하튼 그래서 정말 다른 누구도 아닌 나/우리 자신의 문제로서, ‘비혼’을 사회적으로 가시화하고 이슈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제화할 것인가

그런데, 비혼을 ‘어떤 식으로’ 문제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토론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1) 한편으로 ‘비혼’이라는 말 자체가 (‘미혼’보다 낫다는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婚)’의 여집합처럼 여겨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을 ‘비혼’으로 설명하거나 ‘비혼’을 이슈화하기 위해서, 항상 먼저 ‘결혼’에 대해 (비관이든 거부든) 뭔가를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가족 관련 정책/법에 대한 여성주의자들의 운동이 ‘정상가족 중심으로 가는 건 문제다’라는 식으로, 즉 무언가에 대한 반대로서 말해지는 것도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도’ 가족이니 인정해달라거나, ‘정상가족이 너무 구리니까 좀 수정/보완/개선하자’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도 들고요. ‘비혼’과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싱글’이나 ‘독신’이라는 말은 마치 결혼제도 바깥에서는 다들 ‘혼자서’ (외롭고 쓸쓸하게? 홀홀단신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게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심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 주변의 구체적 비전과 삶의 양식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2) 다른 한편, 사실상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비혼’이라는 집단으로 범주화되게 됩니다. 비혼들 중에는 결혼거부라는 정치적 입장으로서 비혼을 선택한 사람, 열심히 살다보니 결혼 안했는데 앞으로도 별 생각 없는 사람, 동성애자인데 결혼이 허용되지 않아 비혼인 사람, 동성애자이지만 결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 이혼 또는 사별 등의 이유로 혼자 살거나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 그래서 한편으로 ‘비혼’을 집단으로서 가시화할 필요성과 ‘비혼’이 하나의 정체성이나 동질적인 집단으로 고정되지 않도록 그 안의 차이들을 드러내고 각자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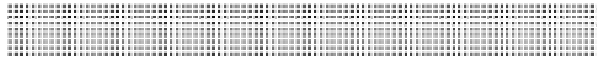
“비혼을 사회적 존재로 가시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라는 문제에 대해 이 외에도 다양한 토론들을 통해서 재미난 대답들을 만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서로를 알아보기, 네트워크 하기, 목소리 내기

‘비혼’이라고 해서 서로 다른 위치를 지닌 사람들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함께 열어가는 사람들로써 서로를 알아보고 네트워크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일겁니다. 오늘 언니네트워크 ‘열린감자-비혼을 비혼이라 부르지 못하고’에서는 그간 여기저기에서 조금조금씩 드러났던 ‘비혼’의 고민들을 정리하고 엮어내어 ‘비혼’을 사회적 의제로 만드는 작업의 첫 단추를 꿰어보고자 합니다. 각자 비혼 이라서 문제였던 삶의 에피소드나 경험들을 나누어 보고, 평소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비혼을 ‘어떻게’ 문제화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또 어떤 운동이 필요할지, 또 나는 어떤 운동을 하고 싶은지, 각자의 액션 아이디어들을 꺼내어 흥미진진하고 마음에 와 닿는 작은 액션들로 만들어내 봅시다.

- 2006년 9월 22일 - [감자모임] '비혼 맞춤형 경제 생활' ∷ 홍보문

열린 감자



언니네트워크 | www.unninetwork.net

9월의 열린 감자 : "비혼 맞춤형 경제생활"

9월 언니네트워크 액션나우팀 토론회 <비혼 맞춤형 경제생활> 열린감자모임에 초대합니다!!

8월 열린 감자모임 <비혼을 비혼이라 부르지 못하고.....>를 기억하시나요? 비혼의, 비혼에 의한, 비혼을 위한 인생설계들로 시작해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었지요. 비혼인들의 모임인 "비혼으로 함께 잘살기" 살롱도 언니네에 만들어졌답니다. 비혼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도 재미있었지만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9월의 열린 감자 주제는 바로 초미의 관심사, 경제생활입니다. 경제생활은 크게 소득생활과 소비생활로 나뉘집니다. 뻘한 소득을 늘릴 수는 없으니 관건은 재테크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소위 트렌드인 요즘의 재테크가 비혼인들에게 멀게 느껴지는 이유는 애초에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주부와 평균 이상의 일정한 소득을 올리는 정규직 가정이 포함된 4인 가족의 경제생활을 전제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비혼인에겐 비혼 맞춤형 소득관리가 필요한 법입니다.

소비도 노동이라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 정말 소비생활은 소득생활 만큼, 혹은 그 이상 비혼인들에게 중요한 경제생활이겠지요. 버는 돈이 적고 운용할 자산이 적다해도 현명한 소비가 쌓이면 기대 이상의 재정과 생활수준이 확보됩니다. '현명한 소비는 최선의 소득이다'가 되겠군요. 세금관리나 보험 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를 초빙해 듣는 강좌도 좋지만 비혼으로 이미 상당한 기간을 살아온, 또 앞으로도 살 언니들에게 직접 살아있는 정보를 얻고 자신의 경우에 대입해봅시다. 좋다는 건 알지만 비쌀 것 같아 엄두도 안 냈던 유기농 식품을 비교적 싸게 살 수 있는 정보부터 월 10만원으로 시작하는 소박하지만 알찬 투자까지.

비혼을 고민하는 분들, 개인 단위 경제생활에 관심 있는 분들, 흥미가 생기시지요? 금요일 저녁, 이미 정신적으로는 만족스러운 당신의 비혼 생활을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열린 감자모임에 놀러오세요~

일시 : 2006. 9. 22 (금) 저녁 7시 12분(좀처럼 잊기 힘든 시간!)

장소 : 신촌 작은 풀씨의 꿈 "<오시는 길 클릭~>"

준비물: 다과비 2,000원

* '열린감자' 모임에는 언니네트워크 회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 2006년 9월 22일 - [감자모임] '비혼 맞춤형 경제 생활' ∷ 발제문

2006년 9월 감자모임에서는, - 신치 : 보험 세 분이 발제를 맡았습니다.
- 무영 : 의료비
- 어라 : 기타

아쉽게도 이 감자모임은 발제문이 남아 있지 않아요~ ;;

- 2006년 10월 25일 - [감자모임] '비혼 차별적 제도, 이견 아니겠습니까!' ∷ 홍보문

열린 감자



언니네트워크 www.unninetwork.net

10월의 열린 감자 : "비혼 차별적 제도, 이견 아니겠습니까!"

- 2007년 바뀌어야 할 열 가지 비혼 차별적 제도 선정 -

10월 언니네트워크 열린 감자 <비혼 차별적 제도, 이견 아니겠습니까!>에 초대합니다.

10월 언니네트워크 열린 감자 <비혼 차별적 제도, 이견 아니겠습니까!>에 초대합니다! 8월의 열린 감자 <비혼을 비혼이라 부르지 못하고...>, 9월의 <비혼 맞춤형 경제생활>에 이어, 10월엔 <비혼 차별적 제도, 이견 아니겠습니까!> 감자모임이 열립니다.

지금 "비혼"은 선택이 아니라 일종의 결의에 가깝습니다.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택 청약이나 전세금 대출에서 제일 끝순위로 밀리는 일이 다반사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집을 사거나 빌릴 권리도 없다는 말인가!) 결혼하지 않았으니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치부되어 소득 공제 등 세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은 물론, (결혼하지 않았어도 누군가와 함께 생활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이다) 비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정상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의료보험, 국민연금, 자동차보험 등에서조차 차별을 받습니다. 게다가 모든 복지 정책들은 결혼과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혼 "여성"은,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한 가지 이유로 원래의 가족으로부터 아직 독립하지 않은 것으로, 여전히 '성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결혼"만이 가족을 구성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전제되어 있는 제도들인 것이죠.

- 가족별로 이루어지는 신분등록에서 소외되는 비혼
- 재산 상속/증여에 있어서의 가족구성원이 아닌 자들에 대한 차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가족복지정책
- 비혼에게 특히 차별적인 전세금 대출 및 주택 청약
- 결혼한 부부에게만 입양이 가능한 양자제
- 가족들에 대한 세금 혜택, 소득공제
- 자동차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에서의 비혼 차별 등등등

비혼으로 사는 것이 힘들지 않고 즐겁게 비혼을 선택할 수 있기 위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 자유, 꼭 결혼과 혈연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가족을 구성할 자유를 얻기 위해, 알고 나면 너무 억울할 비혼 차별적인 제도들을 10월 열린 감자모임

<비혼 차별적 제도, 이건 아니잖습니까>에서 마구 씹어보아요. 그리고 "2007년 바뀌어야 할 열 가지 비혼 차별적 제도"를 선정하여 언론에도 발표하는 겁니다. 이런 제도들이 개선되면 비혼도 즐거운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란 상상을 하면서 말이죠.

광고 하나 더! "비혼으로 함께 잘살기" 살롱이 지난 8월 언니네에 만들어졌답니다. 앞으로 비혼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여러 정보들이 쌓여갈 살롱이에요. 비혼으로 잘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사회적 네트워크"라는 것, 아시죠? 살롱에서부터 만들어가요~

일시 : 2006. 10. 25 (수) 저녁 7시 12분 (맛기 힘든 "감자 타임")

장소 : 서강대학교 K관(김대건관) 406호 <오시는 길 클릭>

* '열린감자' 모임에는 언니네트워크 회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언니네트워크 (121-818)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84-6 대재빌라 302호 | Tel. 02-3141-9069

비혼 차별적 제도, 이진 아니겠습니까!

액션나우팀 (민, 무영, 어라, 땀, 나비아, 차력사)

지금 '비혼'은 선택이 아니라 일종의 '결의'에 가깝습니다.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택 청약이나 전세금 대출에서 제일 끝순위로 밀리는 일이 다반사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집을 사거나 빌릴 권리도 없다는 말인가!) 결혼하지 않았으니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치부되어 소득 공제 등 세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은 물론, (결혼하지 않았어도 누군가와 함께 생활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이 대!) 비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정상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의료보험, 국민연금, 자동차보험 등에서조차 차별을 받습니다. 게다가 모든 복지 정책들은 결혼과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비혼을 선택할 수 있기 위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 자유, 꼭 결혼과 혈연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가족을 구성할 자유를 얻기 위해, 비혼 차별적인 제도들을 오늘 함께 얘기해보아요. 그리고 "2007년 바뀌어야 할 열 가지 비혼 차별적 제도"를 선정하여 언론에 발표하는 건 어떨까요?

■ 대한민국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이란? _ 민

1. 법률상에서 가족의 의미

현행 법률에서는 가족을 각종 권리를 행사하고 양도받을 수 있는 단위로 보호하고 있으며, 따라서 비혼자는 상속, 입양, 대출, 복지 등 우리가 살펴볼 여러 분야의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다.

2. 민법 개정안의 제정

- 1) 기존의 가족의 정의 : 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
- 2) 법원의 판결 :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家)를 편제한 호주제는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호주제는 위헌"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법원에서 위헌 판정을 내린 조항들은 ① '호주'를 정의한 민법 제778조 ② '자녀의 입적'을 규정한 제781조 1항 ③ '부부간의 의무'를 정한 제826조 3항 등이다.
- 3) 민법 개정안에서의 가족의 정의
 -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②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단,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3. 대안의 모색

- 1) 대안 모색의 필요성 제기 : 2008년 1월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를 전제로 신분관계를 등록하도록 한 현행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필요가 생겼고, 이에 따라 아래의 몇 가지 안들이 제시되었다.

- ① 가족부(법무부 안) :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관계를 기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때 부부 중 1인은 '기준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성인 남성이 가족을 대표하는 '호주'의 개념과 별반 다르지 않다.
 - ② 1인 1적부(대법원 안) : 개인이 하나의 신분등록표를 갖게 되는 양식으로 기준인을 정하지 않고 각 개인을 중심으로 출생, 혼인 등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 ③ 목적별 신분등록제 : 개인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을 목적에 따라 분류해 개인 정보의 필요한 사항만 증명에 쓸 수 있게 해 개인 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을 막는 것이다. 개인별로 변동이 생길 때마다 최신의 정보를 담은 신분등록부와 혼인등록부를 발급하고 이전의 기록은 신분변동부, 혼인변동부에만 기재해 필요할 때만 증명문서로 사용된다. 가족관계와 혼인관계는 신분등록부와 혼인등록부의 부기번호의 일치로만 파악할 수 있으며, 가족 구성의 범위를 보다 폭넓게 해 줄 수 있다.
- 2) 각 안들의 문제점 (대법원 안과 법무부 안)
- ① '본적' 개념이 여전히 남아있다.
 - ② 가족을 통해 개인의 신원을 확인한다.
 - ③ 혼인과 혈연에 의한 핵가족 구성을 기본으로 한다.
 - ④ 과도한 양의 개인 정보를 수집한다.
 - ⑤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다.
- 3) 외국의 사례들
- ① 가족별 편제: 우리 나라와 유사한 가족(부부)를 기준으로 하나의 등록부 (일본, 대만)
 - ② 1인 1적부: 각인마다 하나의 등록카드를 작성 (스웨덴)
 - ③ 목적별 편제방식 : 사건별이나 등록부 공간에 신분 변동을 부기하는 방식으로 가족부 등으로 각 등록부를 연결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등), 완전한 사건별 등록부 (미국, 캐나다)
- 4) 현재의 진행 상황 : 현재 법무부, 대법원, 민주노동당이 각각 제출한 3개 신분등록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2006. 9. 25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신분등록제 안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결렬돼 국정감사 이후인 오는 11월쯤 법안이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4. 동성 간에 가족을 구성할 권리

현재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스페인 등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동성애자가 가족구성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성애중심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혁신을 일으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가족'중심 이데올로기의 외연을 확장시켜 가족제도 자체를 공고화하게 될 우려도 없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 결혼제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대안가족' 운동과 함께 가족제도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족의 의미를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시민동반자법(Civil Partnerships Act)

2005년 12월 영국에서 발효된 시민동반자법 또는 시민결합법이란 동성 커플에게도 이성 커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법이다. 동성 커플에게는 결혼(Marriage) 대신 '결합(Union)'이란 용어가 사용되지만 세금, 연금, 유산 처리 등에서 이성 커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전부터 1천200쌍의 결혼식이 등록되었으며 영국정부는 이 법이 발효되는 첫해에만도 무려 4천500 커플이 결혼식을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상속과 증여에서의 비혼 차별 _ 무영

1. 상속세의 세액공제 항목 중 가족에 해당하는 사항들

1) 배우자 공제

- ①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전액공제 (30억 한도)
 - ② 상속재산 미분할 및 미신고시는 배우자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1/2 공제 (15억원 한도)
 - ③ 배우자 실제 상속분이 없거나 상속금액이 5억원 미만 시, 5억원 공제
- 2) 자녀공제 : 1인당 3,000만원 (미성년일 경우 '500만원*20세에 달하기까지 남은 년수' 추가 공제)
 - 3) 연로자 공제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자는 3,000만원 공제
 - 4) 장애자 공제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75세에 달하기까지의 년 수 X 500만원

2. 증여세의 세액공제 항목

- 1)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 : 3억원 공제
- 2)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것 : 3,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 공제
- 3) 기타 친족에게 증여한 것 : 500만원

3. 법정상속인 이외의 사람을 지정상속인으로 정하여 재산을 물려주고자 할 경우

- 1)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 유증을 통해 지정상속인을 우선 정하여야 한다.
- 2) 법정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3) 법정상속인들로부터 상속액의 1/2~1/3에 달하는 재산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다.
- 4) 법정상속인 :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들로서 피상속인이 사망 시 유언이 없을 경우 당연히 재산을 상속받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법정상속인은 그 상속 순위가 정해져 있으며, 윗 순위의 사람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의 사람들은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으로, 없을 경우에는 모든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된다.
- 5) 유류분제도 : 피상속인은 자유의사에 의해 자신의 재산을 특정상속인에게 자유로이 줄 수는 있으나, 유족의 생활기반이 붕괴될 위험을 방지하고자 유족을 위해서 남겨두어야 할 최소한도의 재산 비율을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유족은 지정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유류분의 비율은 사망자의 자녀나 배우자인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에 달한다. 통상 소송에서 유족의 생활기반 붕괴의 위험 여부에 관계없이 1/2~1/3의 상속 재산을 유족에게 돌려주려는 판결이 나게 된다.

■ 공보험, 사보험 등에서의 비혼 차별 _ 어라

1. 국민연금

- 1) 사업장가입자는 표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 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 비혼일 경우 더 내거나 결혼한 사람이 덜 내는 차등은 없음
- 2) 부부일 경우 각각 개인연금. 한 명 사망 시 남은 수급권자는 둘 중 선택하여 수급할 수 있다. => 비혼으로 동거하던 경우 사망한 사람의 동거자는 수급 선택권 없음. 특히 본인 명의 국민 연금이 없던 경우 재정적으로 심각한 상황 초래.
- 3)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최우선순위 유족에게 유족 연금) :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남편은 60세이상), 자녀(18세미만), 부모(배우자 부모포함 60세이상), 손자녀(18세 미만), 조부모(배우자 조부모포함 60세 이상)이며 장애 2급 이상인 자는 연령에 상관없이 해당된다.

- 4)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망 일시금을 받는다. 사망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최우선 순위 자에게 지급된다.
- 5) 연금을 지급받을 대상이 되었으나 청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유족이 사망한 분의 연금을 대신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유족연금수급사유에 해당이 되면 유족연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 자의적인 수급인 지정 불가능. 비혼의 경우 동거자 지정 불가능

2. 건강보험

- 1) 피부양자 추가 시 보험료 인상 없음 => 부양자가 없는 사람의 건강보험료 수입을 피부양자가 추가 된 사람이 나누어 쓰고 있는 셈. 그러나 실소득 차이는 정반대.(통계청 조사에서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15만4000원으로 2인 이상 가구(306만2300원)의 37.7%에 불과)
- 2) 건강보험증에 등재 가능한 범위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형제자매(미혼인 동거 형제자매여야 하며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며느리사위, 손자며느리손자사위, 장인장모시부모, 처조부모시조부모, 손자녀, 계부계모, 생부생모, 계자, 생자녀, 외손자녀, 이 모든 경우 호적등본이 필요하고 생자녀 같은 경우 친인척과 통,반장의 인우 보증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 동거인을 넣을 유일한 방법은 생자녀인가-_-;
- 3) 보험료 경감 요건 :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0세 이하 직계비손을 부양하고 있는 모자. 부자, 조손 가정 (21세 이상이어도 군복무, 학생이면 가능), 소년소녀가장세대 => 자식이 있는 경우나 노인을 부양하는 경우만 가능. 비혼인이 친형제자매와 함께 살 경우에도 보험료 경감 안 됨. 수직적 가계구조가 기본 전제임.

3. 사보험에서의 비혼 차별

사보험에서의 수혜대상은 법정상속인(가족)이다. 예외가 있다면 사실혼 상태의 '아이'가 있는 이성애 커플, 혹은 연고지가 전혀 없는 천애고아의 경우 등인데, 이 경우엔 수혜자로 동거인을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부모가 없이 보호시설에서 자랐을 경우에는 수혜자가 보호시설의 원장이 될 수도 있지만, 천애고아가 아니고 여타의 혈연가족이 있는 경우에 동거인을 수혜자로 지정하려면 가족들의 동의 각서(상속 포기 각서) 등이 필요하다. 결국 사보험의 수혜자 규정 역시 우리나라 가족구성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 전세자금대출, 주택청약, 입양 _ 맨

1. 전세자금대출

대출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나 전세자금 목적이거나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이 제격이다.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제외)로 연간 기본급여가 세후 3천만원 이하라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10%를 지불한 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3천만원 이내에서 전세금의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할 경우 전세금의 최고 6천만원 이내에서 전세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최저 금리는 5%. 전세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영세민 전세자금대출은 최저금리가 3%다. 역시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제외)로 대출대상 주택의 임차 전용면적이 25.7평 이하에 부동산이나 땅 같은 재산이 없고 배기량 1500cc 미만의 자동차를 보유

한 사람이라면 영세민 자격에 해당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전세금은 5000만원 이내이어야 하고 대출액은 3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영세민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추천장을 발급 받아 대출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한 소득 증빙이 필요하고 근로복지공단 복지제도 등 기존의 국가복지기금 혜택 수혜자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월급여가 170만원 이하의 근로자로 대출받고자 하는 금액이 크지 않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지원자금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금리는 3.8%. 이 밖에 소속 회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직원복지 대출도 시중 금리보다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고려할 만하다.

(머니투데이 2005-08-26, “영세,근로자 우대? 솔로엔 그림의 떡” 기사 중)

그러나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이나 영세민 전세자금대출은 비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둘 다 ‘세대주로 인정’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여기에서 세대주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 세대주의 조건

- ①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경우(주민등록상 등재 및 부양)
- ③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경우
- ④ 만20세 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⑤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이상 경과한 만35세 이상 단독세대주
- ⑥ 대출신청일 현재 이혼 등의 사유로 호주를 달리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2. 주택청약

청약의 과열, 출세기 등의 여파를 없애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청약 가점제는 2008년부터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민영 아파트에, 2010년부터는 민간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부양가족이 가장 큰 점수차를 만들게 되는 아파트 청약 가점제는 그나마 청약통장으로 내집마련을 해보겠다는 비혼의 꿈을 저 멀리로 날려버리고 있다. ‘45세 이상, 부모부양, 3자녀 이상, 무주택, 가입기간 10년’일 경우 만점을 받게 되며 따라서 비혼자에게는 거의 주택청약의 기회가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입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2007년 1월부터 비혼도 신생아를 입양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특례법 시행규칙 중 ‘결혼 중’으로 양부모의 자격을 제한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 시행규칙은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일 경우 적용되며, 친분이 있는 사람들 간의 입양은 예전부터도 양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시행규칙 변경에 대해 실제 입양기관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실제로 비혼이 입양을 진행할 경우 매우 엄격한 기준들을 적용받을 것이 예상된다.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시 양부모 심사관련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받지만 실질적인 세부심사기준과 심사권한이 모두 입양기관에 있다고 한다. 반면 다음의 반발내용을 보면 입양기관의 비혼에 대한 인식

을 잘 알 수 있다.

* 입양기관의 항의내용

- A 입양기관 관계자 : “미혼모 중 상당수는 편모리는 사회부정적 인식 때문에 아기를 입양기관에 내놓는다. 엄마 아빠가 모두 있는 가정에서 아기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미혼모들의 바람을 무시하는 것”
- B 입양기관 : “지금도 예외조항으로 독신자 입양이 가능해 실제로 입양되고 있는데 왜 굳이 개방하려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 C 입양기관 : “우리나라가 저출산 세계 1위라고 시끄러우니까 정부가 공여정책으로 급하게 만들어 낸 것이 독신자 입양허용”

(한국일보 2006-07-18 “임신,고령자도 입양허용”기사 중)

■ 가족 수당, 세제 혜택 등에서의 비혼 차별 _ 나비아

가족수당지급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원가족의 안락한 생활을 위하여 생계비 지원을 위한 가족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지급대상자는 사원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만, 주거 또는 근무의 사정상 당해 사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3. 만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② 가족수당지급대상자는 ① 명 이내로 한다.
 ③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사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중 1인의 사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제3조(지급액) ① 가족수당지급액은 별도로 정하며 지급액이 월①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가족수당은 매월 급여액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계산방법) ① 가족수당은 급여규정이 정하는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사원은 가족수당지급(또는 중지)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가족수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지급한다.
 ④ 가족수당지급중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월 분까지 전액을 지급한다.

제5조(지급제한) 사원이 휴직 또는 정직 시에는 가족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제6조(기타) 본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 지정 공고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 00 년 00 월 00 일부터 시행한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

개정안에 따르면 가족연령은 ‘남편나이+ 아내나이-자녀나이’를 말한다. 이 계산대로라면 부부의 나이가 어릴수록, 출산을 빨리할수록 가족연령이 낮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기준 연령을 60세로 정할 경우, 30세 남편과 25세 아내가 아이(1세)를 낳으면 가족연령이 54세(30+25-1)가 돼 향후 6년(60-54)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혜택 기간도 1년씩 연장된다.

모든 가족의 나이를 합하고 더하는 식이기 때문에 꼭 아이가 없어도 부부의 나이만 어리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35세 남편과 30세 아내처럼 늦게 결혼한 경우에는 아이(1세)를 낳아도 가족연령이 64세가 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경숙 의원 측은 “결혼과 출산을 빨리하는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조혼을 유도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부부 나이만 어리다면 자녀가 없거나 한 명밖에 없어도 두 자녀 이상의 가족이 받고 있는 혜택을 똑같이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

- 권지희 기자

■ 각종 가족지원정책 : 비혼자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닌가? _ 차례사

급격한 가족의 변화속에서 국가의 가족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그동안 개별가족에게 전가해 온 가족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국가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는 것이 저출산과 노령화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비혼자인 나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2004년 2월에 '건강가족기본법'을 제정하고 각종 가족지원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각계에서 이법의 한계점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정을 요구했고 곧 '가족정책지원법'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성애중심의 결혼과 가족제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양한 가족형태와 가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고 하지만 여기서 국가가 생각하는 소수자는 한부모가족, 노인가족, 결혼이민자가족, 장애인가족, 공동생활가족(사실혼 관계) 등이다. 사회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비혼자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가족정책지원법'을 중심으로 국가의 가족지원정책에 대해 살펴보겠다.

가족지원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선 정부에서는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05.6.23)하였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관리, 운영 등 건강가정지원사업과 모부자복지사업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하고 관련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과 모부자복지법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였다.

○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가족친화환경조성법 제정 추진(가족친화기업 세제감면 등 지원,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 육성)

Ⅱ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Ⅱ

- 탄력적 근무제도(시차출퇴근제, 집중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 등)
- 육아지원제도(육아데이, 육아휴직, 부친휴가 등)
- 가족지원제도(가족간호휴가 등)
- 직장과 가정문제 상담
- 가족친화문화교육
- 대표적 사례
 - ① 유한킴벌리 : 탄력적 근무제도, 피톤치드 전문상담제도
 - ② 삼성SDS : 근로시간 단축 및 탄력적 근무제운영, 부서장협의후 출퇴근시간조정, 반월차제도 재택근무제
 - ③ 한국네슬레 : 16일 육아데일로 정해 오후5시30분 퇴근해 아이 돌보라는 안내문 붙임

○ 가족부양의 사회적 지원 :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구성원 지원

○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 두자녀 이상 보육비 지원(0세-4세) : 4인가구 353만원이하 소득가정대상 (105,000원-47,000원)
- 방과후보육비, 시간연장 보육비, 야간보육비, 시간제 보육비 지원
- 셋째이상 경우(4세미만) 서울시는 실보육료 지원

○ 남성 돌봄노동에 대한 참여 확대 : 육아휴직 관련된 것이 많음

○ 임신/출산/육아의 권리보장

- 불임부부시술 지원 : 419만원 넘지 않는 자,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 여성44세 이하, 신청자 많을시 소득작고 젊을수록 불임기간 길수록 점수가 높음, 시험관 아기 1회 150만원, 2회 300만원
- 산모도우미 지원 : 4인가족 152만원 이하, 10일간 무료제공
- 지자체 출산지원 : 출산지원금 33개 시군구에서 시행, 전북순창 첫째 둘째 50만원, 셋째 300만원 지원
- 산전후 휴가 급여 지원 : 산전후 휴가 급여 90일분 전체 국가부담, 현재 육아휴직급여에 40만원 지급, 2007년부터 50만원

○ 가족의 건강 지원 및 경제적 안정 지원 강화

- 사회보장제도 조세감면 혜택 : 근로소득지원세제(EITC제도): 미국의 EITC제도에 기반, 2008년부터 실시되면 한 해 근로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면서 아동 2명 이상을 부양하는 가구가 최대 80만원까지의 급여를 지원받음. 부부와 부양아동으로 구성된 '가구단위'로 받음, 급여수준은 과세대상인 부부 합산 근로소득에 따라 매겨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0조 가족연령에 의한 세제 감면

○ 안전한 가정생활 보장 : 가정폭력 등 예방

○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조성 : 상담 교육 지원

○ 이혼예방 및 이혼가족에 대한 지원

- 상담, 도움 지원
- 이혼가족의 자녀양육비 지원

○ 가족센터의 업무 신설 : 상담지원사업, 교육 및 문화사업, 가족지원 서비스 관련 정보제공사업, 가족지원기관과의 서비스 연계사업, 가족지원사의 교육관리파견 사업

|| 가족지원센터 현황(2006년 10월) ||

- 총38개(국비지원 19개) : 서울 16개, 대구, 인천, 부산 2개, 울산, 광주, 경기 10개, 경남 김해, 경남 창원, 전북 익산, 전남 여수, 충남 천안, 제주 서귀포
- 향후 2010년 지방 140개소이상 설립 예정
- 소요예산: 중앙 6조9억, 지역14조(1개당 1억원)

나가며...

이상 가족정책지원법을 중심으로 가족지원 정책을 살펴보았다. 가족의 변화를 심각한 국가의 위기로 보고 그 가장 큰 문제점을 저출산, 고령화로 보다보니 지원정책이 임신출산지원이나 육아보육 지원, 세제감면 혜택으로 나타난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가족, 이혼가족양육비 지원으로만 머물고 있다.

결국 비혼자는 저출산을 유발하는 사람으로 국가의 위기를 만드는 이기적인 존재로 치부될 뿐이다.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채 독립적으로 경제적기반을 다져야 하는 비혼자들의 살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참고자료>

한국여성개발원, 2005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2006. 9.7)

여성가족부, 가족정책토론회 자료집(2006. 6.23)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등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2006.4.14)

심경미, 2003 『비혼여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논문

CHANNELnet.

채·널·넷·특·집



가족주의보

이번 11월 특집의 주제는 '여성정책'이다. 그런데 왜 제목은 '가족주의보'일까? 매우 단순명쾌하게도, 현재 한국의 여성정책은 가족정책...

- ▣ 여는 글
- ▣ 인구가 정말 문제인가요?
- ▣ 여성주의는 가족주의인가?
- ▣ 여성청소년가족부 너 혼자가라 나는...
- ▣ 가족연령제라는 코미디
- ▣ 우리 비혼하게 해주세요

◀지난 특집보기

- '여성청소년가족부 너 혼자가라 나는 빼고'는 언니네 채널[넷](www.unninet.net/channelnet)에서 읽으실 수 있어요~
- '인구가 정말 문제인가요?'와 '우리 비혼하게 해주세요'는 언니네트위크 3번째 책, <태그놀이>에서도 확인가능!

[78호] 여는 글

나나. / 언니네트워킹 편집팀, shull@hanmail.net



이번 11월 특집의 주제는 '여성정책'이다. 그런데 왜 제목은 '가족주의 보'일까? 매우 단순명쾌하게도, 현재 한국의 여성정책은 가족정책으로 이름을 바꿔도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여성은 곧 가족이다. 이 명제를 따르고 있는 정책들이 나아가는 바는, 예정된 주제를 바꾸어 급하게 이번 특집을 준비하게 할 만큼 불편하고 문제적이다.

여성정책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 고용평등, 여성노동관련, 가족문제,..아마도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관련 정책들을 하나로 모아 한 부서에 몰아넣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각 부처에서 하는 모든 정책과 사업들이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행해지고 있는가를 감독하고 조정하고 총괄하는 무언가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탄생했던 부서가 바로 '여성부'였다. 여성 위상이 너무 높아졌다고, 역차별이라고, 남성위원회를 만들지는 온갖 히스테리에 시달려야 했던 '여성부'는 실제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성부 홈페이지의 '아이와 부모의 미래! 가족행복의 씨앗! 여성가족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라는 '따뜻한' 문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출산, 보육이라는 가족 내 성역할에 충실하지 않은 여성들을 위한 정책은 하나 둘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만이 아니다. '저출산 담론'으로 인해 많은 여성정책들이 생겼고, 이는 대부분 출산과 보육을 다각도로 지원해주는 정책들이다.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늘리는 등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 필사적으로 구성원 재생산에 몰두하는 움직임들은 결국 여성의 역할과 보장받는 권리를 가족에 한정시키고 있다.



사람들은 물을 것이다. 의심하며 분노할지도 모른다. 도대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불평할 때는 언제나, 이제는 지원해줘도 싫다고 하는 거냐고.

여성문제가 그나마 사회에서 가장 잘 먹히는 방식이 '가족주의'에 붙어서 사람들의 멸종해가는 공감 능력을 자극할 때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걸 정말 외로운 저항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예산이 늘어나고 지원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여성정책의 발전과 여성 삶의 질 향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족 정책을 탄탄히 늘리며 그와 함께 다른 여성정책들도 고르게 성장해나가면 모를까. '결혼해라, 최대한 어릴 때, 빨'

리 애를 낳아서 국민국가에 이바지하고, 보육과 가족에 헌신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여성정책들은 다른 선택을 하는 여성들이 갈 땅을 점점 없애버리기 때문이다.

한국여성민우회 백영경 정책위원은 저출산 담론과 인구위기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재생산의 정치학에 대해 흥미로운 물음을 던진다. 모래는 가족담론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새로운 대안을 꿈꾼다. 콩은 여성가족부의 출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를 되짚으며 강한 문제제기를 하며, C+은 최근 발의된 여성정책 중 하나인 가족연령제의 허상을 파헤친다. 마지막으로 늘은 비혼여성의 삶을 외면하고 있는 여성정책에 대해 고발한다.

마지막으로 11월이 다 가셔야 특집글을 올리게 됨을 사과드리며, 다소 목직한 가족주의보를 발령한다

이미지 1 :Familia, Optikak

이미지 2 : Familia, Ariel Mlynarzewic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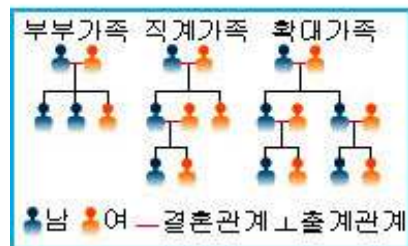
글을 퍼가실 때에는 출처를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월간 언니네(www.unninet.co.kr) 2006년 11월 특집 '가족주의보' 중

[78호] 여성주의는 가족주의인가?

모래, / 언니네트워크 편집팀, jang-ie@hanmail.net

'출산을 저하라고 한다. 언론과 정부는 여성들에게 아이 좀 낳으라며 난리다. 돌만 낳아 잘 기르자는 시대에 태어난 20대들이 서른이 되기도 전에 제발 좀 낳아달라는 구호 속에 출산을 고민해야 할 판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 공익적이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이 되고 있다. 물론 젊은 여자들의 이기심 덕에, 돈 없는 남자들이나 농촌 남자들은 결혼도 못하고, 국가의 미래마저 흔들리게 되었다는 소리 또한 여전히 들린다. 그러나 더 이상 여성들을 탓하고 나무래서 출산/양육을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해졌기에, 이제 그런 소리들이 대안 없는 무력한 뒷다마라는 것은 명백해졌다.



출산의 의무가 위대한 것이 되어가는 만큼, 출산의 담당자로서 여성의 권리 역시 주목받고 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가능한 대상과 기간은 확장되었고,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이익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육아휴직 기간은 경력에도 가산된다. 아직 강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뒤늦긴 했지만,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지난 7월 입법예고된 민법개정안은 여성들의 임금노동 참가 여부를 불문하고, 부부 각자의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간주한다. 여성가족부 예산 역시 여성부 시절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로 높아졌다(물론 대부분은 보육에 들어간 예산이지만 말이다). 이제 여성의 권리가 출산과 양육의 권리로 해석되는 범위 안에서, 여성의 권리를 더 이상 부정해서는 사회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새로운 사회적 상식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여성친화적인 것이 가족친화적인 것을 가리키는 한, 그 여성친화성은 점차 사회적 동의를 얻어가고 있고 주목받아간다. 사실 여성친화적 정책은 사실 정상 가족군 안에 들어있는 여성과 남성을 위한 가족정책이다. 여기서 말해지는 '여성의 권리'는 사실 가족 내에서 여성으로서의 성역할을 하는 여성들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를 비롯, 각종 여성 정책은 출산을 저하 '담론'과 더불어 빠른 속도로 가족 중심으로 돌아서고 있다. '여성'의 이름으로 친가족적 정책들이 기획하면서, 각종 정부 캠페인을 비롯 국가 산하 연구소와 관련 기관들은 여성과 가족을 주저없이 짝지으며, 그 안에서 여성을 위한 것은 곧 가족을 위한 것이 된다. 이 안에서 '여성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그 여성의 목소리는 결혼해서 출산과 양육을 책임지는 여성의 목소리로 제한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정상적이고 평균적인 핵가족, 표준적인 세대 재생산을 담당할 만한 가족 밖의 여성들의 권리는 이 안에서 소외되고 있다. 민법 개정안은 전형적인 남성 생계부양자와 여성 전업주부(내지는 아내보다 수입이 높은 남편)를 전제할 때만 여성을 위한 것이 될 뿐이다. 오히려 남성들이 수입이 적거나 없고 여성들이 생계부양자 역할을 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는, 이번 민법 개정안은 남성을 위한 것이 된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2&article_id=0000027633&ion_id=102&menu_id=102). 또한 아이를 둔 부부에 대한 세제 혜택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1인, 2인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은 사라질 예정이다(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1212194&ion_id=101&menu_id=101).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게 되었고 사회적 변화는 보다 개인적이고 다양한 삶의 모델을 가져왔다. 그러나 근래 정책과 법은 이성애 핵가족 모델에 경제적/문화적 특권을 더 실어서, 현 사회를 다시 가족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향으로 현 시점을 타개하고자 한다. 그러나 지구적으로 여전히 7초에 한명의 어린이가 영양부족과 이와 관련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고 환경 문제, 청년 실업, 교육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이 마당에, 현재 출산을 저하는 인류를 위해서나 지구를 위해서나, 단순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출산을 저하 현상이 문제되는 것은 국가 경계 안에서 기존의 한국 사회가 재생산되기 위한 조건의 재생산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다.

최근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없이 한국 사회의 재생산이 불가능한 지점에 와서야, 우리 사회는 뒤늦게 그 역할을 이행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금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들의 짐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분명 여성친화적이고 여성주의적인 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미 사회적 재생산을 위한 가족 재생산을 목적으로 여성정책과 예산이 채워진다면, 여성들을 더 가족 안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이미 우리 앞에 와있는 새로운 질서들을 적극적으로 직면해서, 그 안에서 가능성들을 만들어낼 시점 아닌가. 과거의 대안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시점이야말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새로운 꿈을 꾸기에 가장 좋은 때일 테니까 말이다.

글을 퍼가실 때에는 출처를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월간 언니네(www.unninet.co.kr) 2006년 11월 특집 '가족주의' 중

[78호] 가족연령제라는 코미디

연화 / 언니네트워크 편집팀, 68845661@naver.com

지난 9월 7일 열린우리당 이오경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여당의원 20명이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오경숙 의원은 '한국의 대표적 여성운동 단체'라고 스스로 소개하는 한국 여성단체 대표 출신이며 열린우리당의 공천을 받아 현재 국회의원직을 맡게 된 사람이다. 또한 제도 정치 권에서 이른바 '주류 페미니스트'라고 불리며 여성주의적인 정책을 실현해나가리라 기대되었던 활동가인데 그런 그가 제출한 이 법안, 뭐가 어떻길래 이렇게 소란스러운 걸까?



이 법은 '부부연령의 합계에서 자녀연령의 합계를 차감한 값을 가족연령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부부나이-자녀연령의 계산에서 부부의 나이가 어릴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더욱 많은 지원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오경숙의원 측은, "생활마라톤 대회에 나가면 누구나 기록에 상관없이 완주만 하면 완주 메달을 주지만 프로마라톤 대회에는 기록에 따라 순위를 매겨서 1,2,3 등에게 금, 은, 동메달을 각각 주고 세계기록을 경신하면 스폰서가 보너스도 몇 천만원을 준다"며 "두 가지 경기형태가 다르듯이 가족연령제를 소개할 때 ~할수록, ~

더 많이 라고 하여 프로마라톤 대회인 것처럼 소개하면 곤란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오른쪽 표에서와 같이 지원가능한 가족연령을 60세로, 한 명의 자녀를 둔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 때 부부나이가 각각 30세인 A가족은 2년 동안만 지원받지만 부부나이가 각각 25세인 B가족은 12

	A가족	B가족
2007	$30+30-1=59$	$25+25-1=49$
2008	$31+31-2=60$	$26+26-2=50$
2009		...

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데도 가족연령제가 생활마라톤의 경기형태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루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가히, "일찍 결혼해서 많은 자녀를 낳아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가족연령제에 대해 "돈 많은 부모 만나 일찍 결혼할 수 있는 이들에게 돈을 더 준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 네티즌의 말은 충분히 가능한 비판으로 보인다.

가족연령제의 핵심은 그러니까, 나이인 것이다. "이 나이엔 이 정도는 해줘야 돼"라는 나이에 대한 강박이 그 어느 사회보다 강한 한국사회이니만큼 나이에 따라 지원금이 왔다, 갔다 하는 법안이 나온 것은 그다지 놀랍지도 않다. 재수를 한다면? 유학을 간다면? 여행을 가고 싶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상상이 모두 나이에 걸리게 되지 않을까?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의 경우는 어떨까? 나이 자체가 돈이 되고 그

에 따라 자원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대로 족쇄가 되어 입막치고 한국사회가 허용하는 삶의 방식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저출산 대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제적 지원대상을 임신 단계부터 실시하도록 한 것을 결혼 단계부터 지원하고, 가족연령 개념을 도입하여 가족연령이 낮은 우대가족 및 준우대가족에게는 취업지원, 주거지원, 세제혜택 등의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이라고 밝히며 인구 통계학적으로 저학력일수록 더욱 일찍 결혼하여 자녀를 낳지만 세 자녀를 두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기존의 세 자녀 지원책에서 소외되는 젊은 부부들을 지원해주는 법안이라며 '현실적으로 이미 결혼한 어려운 젊은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어려운 부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면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 법에서 말하고 있는 가족은 무엇을 말하나? '가족이라 함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라고 하며 기존의 정상가족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혼, 사별, 입양 등으로 인한 가족구성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값을 가족연령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정상가족'에는 명시되어 있는 가족연령 계산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 법안 발표 이후 논란이 일고 난 이후에야 '자녀수 기준만으로는 한부모가족, 미혼모, 부가족, 입양가족 등의 경우에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면서 기본법안에 없었던 이들 가족들에 대한 계산법을 마련하였다.

가족연령제가 '국가를 위한 출산율 높이기'를 위한 법안이라기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젊은 부부나 한부모가족, 비혼모, 부가족, 입양가족을 위한 법안이라면 가족에 대한 개념 설정부터 다시 해야 할 것이다. 가족연령제가 담고 있는 '정상'가족으로부터 '다양한'가족으로 법의 지원 대상을 확장시켜 나가는 방식은 곤란하다. '정상'인 가족에서 '다양한'가족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란 형태는 원래 다양했다. 원래 다양했던 가족의 형태 중에 하나만을 '정상'으로 기준 삼아 그를 중심으로 사회를 유지시키는 돌봄의 가치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지원의 중점을 '가족'과 그 안에서의 '생산'에 둘 것이 아니라 사회의 돌봄의 가치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



가족연령제 안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나이에 대한 강박과 정상가족이데올로기 뿐이었다. 하지만 출산과 양육의 의미가 국가의 유지 존속을 위한 재생산에 있지 않고 사회 유지를 위한 돌봄의 가치에 있다고 이해했을 때 나이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한 강박 없는 법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그림 출처 = www.myshape.co.kr>

글을 퍼가실 때에는 출처를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월간 언니네(www.unninet.co.kr) 2006년 11월 특집 '가족주의보' 중

2007년 3월 10일

[3.8 여성의날 기념]

1회 비혼여성축제 '비혼, 꽃이 피었습니다!'

● 2007년 3월 10일 - 1회 비혼여성축제 '비혼 꽃이 피었습니다' :: 홍보문

언니네트워크 1회 비혼여성축제



비혼, 이 피었습니다!

2007년 3월 10일 토요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3시부터

'노처녀', '애어른', '독신주의자'라는 오명을 거부하는
그녀들의 당당한 비혼선택!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삶, 다양한 가족을 꾸릴 수 있는 권리를 추구하는
 비혼들의 꽃피는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비혼의 이름으로 따로 또 함께 행복한 삶을 꿈꾸며,
 서로를 축복하고 지지하는 축제의 장에서,
 삶의 화양연화를 마음껏 누리보아요!

1부
미혼 말고 비혼!
 그녀들의 신나는 무대

- 비혼에 관한 가장 적나라한 진실! "OX퀴즈퀴즈"
- 이 순간만을 기다려 왔다! "비혼들의 자유발언대"
- 언니네가 만들었어요~ "비혼송 부르기"
- 웃다가 사망주의, "꽃다방 여성녀들의 비혼 꿈트"
- 비혼 예술인들의 화려한 공연

2부
 우리는 당당한 비혼여성입니다
 비혼들의 통과 의례, **비혼식**

- 신성한 선언의 자리, "비혼선언문 낭독"
- 서로서로 축복을! "함께하는 주례"
- 비혼 음유시인의 "비혼축가공연"
- 집안의 가보로 남을 "비혼기념촬영식"

비혼식에 참가하는 일본은 붉은빛 망토를 두르고 관객들의 축하를 받습니다.
 비혼여성축제에 오시는 모든 참가자 분께 붉은색 꽃 코사지를 선물합니다.

3부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만찬,
비혼식 피로연

축제 뒷풀이에서는 각자 먹고 마신만큼 부담합니다.

부대행사
 천개의 빛깔, 천개의 목소리,
 비혼들의 다양한 삶 **전시회**

- 비혼생애주기 그려보기
- 비혼을 대체하는 새로운 언어 만들어보기
- 언니네 비혼살롱 홍보 판넬 전시
- 비혼생활백서 나누기

언니네 비혼살롱 "비혼으로 함께 잘살기" [바로가기](#)

- 2007년 3월 10일 - 1회 비혼여성축제 '비혼, 꽃이 피었습니다' ::: 리플렛 (1)



3.8 여성의날 언니네트워크 1회 비혼여성축제

비혼, ^가꽃_이 이 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자유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떠들썩한 축복과 함께
비혼으로 함께 또 홀로
잘 살겠노라고 신성하게 선언합니다!

- 일시 : 2007년 3월 10일 3시부터
- 장소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 주최 : 언니네트워크

미혼 말고 비혼,	비혼, 꽃이 피었습니다
<p>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혼 여성들은 단지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이와는 관계없이 미성숙하고 미완된 존재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미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온전한 한 사람의 독립된 성인이 아닌 불완전한 존재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지요.</p> <p>그래서 우리는 비혼(非婚)이라고 말합니다. 비혼이라는 단어는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서 결혼하지 않은[非] 상태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혼은 누구나 결혼해야 하고,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고정 관념에 물음표를 던집니다. 비혼은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숙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는 편견에 반대합니다. 비혼은 이성간 결합만 허용하는 협소한 혼인제도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비혼은 누구나 원하는 대로 살 자유와 권리가 있다는 우리 자신의 선언입니다.</p>	<p>1회 비혼여성축제 '비혼, 꽃이 피었습니다'는 모든 비혼들을 지지하고 축하하는 축제입니다. 결혼이 경사로운 일이듯 비혼이라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유지하겠다는 결정 또한 축하받아 마땅한 일입니다.</p> <p>그동안 비혼 여성들은 단지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수히 많은 사회·문화적 편견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아이를 낳거나 키우고 싶어 하는 비혼 여성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입양·양육 전반에 걸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대출·주택 청약 등 경제적인 면에서도 배제되어 왔습니다.</p> <p>우리는 이 축제를 통해 비혼을 이유로 겪어야 하는 차별에 대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비혼이 삶의 한 가지 방식으로 당당히 드러나는 그날까지 비혼 여성축제는 계속 될 것입니다.</p>
<p>우리들의 행복한 비혼, 꿈은 실현됩니다.</p>	
<p>지금 '비혼'은 선택이 아니라 일종의 '결의'에 가깝습니다.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택 청약이나 전세금 대출에서 제일 끝순위로 밀리는 일이 다반사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집을 사거나 빌릴 권리도 없는 걸까요?) 결혼하지 않았으니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치부되어 소득 공제 등 세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은 물론, (결혼하지 않았어도 누군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말이죠.) 비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정상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의료보험, 국민연금, 자동차보험 등에서조차 차별을 받습니다. 게다가 모든 복지 정책들은 결혼과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p> <p>즐겁게 비혼을 선택할 수 있기 위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 자유, 꼭 결혼과 혈연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가족을 구성할 자유를 얻기 위해, 비혼 차별적인 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p>	
<p>비혼으로서 당당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으신 여러분께, 비혼들의 공동체를 꿈꾸는 비혼살롱을 소개합니다. 비혼살롱에서는 각종 명절 번개, 비혼생활 노하우, 비혼 의료생협 준비, 비혼 차별적 제도에 대한 정보 수집과 각종 액션을 기획합니다.</p>	
<p>여성주의로 숨쉬는 마을, 언니네 비혼살롱 <비혼으로 함께 잘살기> http://www.unninet.net/jalsalzo</p>	



비혼 선언문

우리는 비혼 여성입니다.

결혼 하지 못한 미혼여성이 아닌, 결혼 하지 않은 상태를 선택한 비혼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립된 섬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홀로 꽃필 수도 있고, 함께 꽃필 수도 있는 자유롭고 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배타적인 정상가족과 결혼제도를 넘어 새로운 공동체를 꿈꿉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활방식으로 살아나가며, 다름이 문제가 아닌 더 큰 힘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려 합니다. 우리는 가장 나다운 방식으로 멋지게 살아나갈 것이며, 비혼 차별이 없어지는 그 날까지 비혼 여성임을 자랑스레, 끊임없이 선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떠들썩한 축복 속에서 비혼으로 홀로 또 함께 잘 살겠노라고 신성하게 선언합니다!

- 2007년 3월 10일 - 1회 비혼여성축제 '비혼, 꽃이 피었습니다'



CHANNELnet. 채·널·넷·특·집



혼외正事

이번 언니네 특집은, 혼 바깥에 자신의 빛깔과 향기에 맞는 길을 만들며 힘껏 살아가고 있는 비혼 언니들의 고민과 이야기를 담았다.

- ▶ 여는 글
- ▶ 나의 여성공동체 경험사 3장
- ▶ 혼 뒤 비혼의 삶, 천만번 괜찮아!
- ▶ 비혼으로 엄마 되기 _ 입양
- ▶ 비혼, 여성, 생태, 공동체
- ▶ 언니네는 공동체 실험 중

◀ 지난 특집보기

- ‘비혼으로 엄마 되기 _ 입양’은 언니네 채널[넷](www.unninet.net/channelnet)에서 읽으실 수 있어요~
- ‘비혼으로 엄마 되기 _ 입양’은 언니네트위크 3번째 책, <태그놀이>에서도 확인가능!

[86호] 여는 글

헤나 / 언니네트워크 편집팀, igentsia@daum.net

엠에스윈도에 지뢰찾기와 함께 들어있는 ‘핀 볼’이라는 게임이 있다. 우주선을 나타내는 쇠구슬이 우주공간으로 그려진 게임판을 튕겨다니며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이다. 구슬이 굴러다니도록 여러 가지 울타리와 홈들이 만들어져 있다. 구슬은 그 사이를 왔다갔다하며 아래쪽으로 떨어지는데, 운 좋게 왼쪽이나 오른쪽 레버에 닿아 힘을 받으면 게임을 계속하고, 비어있는 한가운데로 떨어져버리면 수 깊은 지하로 사라져 버린다.



비혼에 대해 생각하다가 나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쇠구슬이 되어 그 게임판을 굴러다니는 상상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다들 게임판으로 튕겨졌고, 우리가 내려갈 저 아래 펼쳐진 게임판을 내려다본다. 그러면, 오직 하나의 길이 널따랗게 닳여 있는 게 보인다. 우리가 내려갈 유일한 그 통로에서 몇몇 구슬은 통통 잘 튀어 다니고, 몇몇 구슬은 저 아래에서 깊은 신음과 새된 비명을 내며 사라져가기도 한다. 우리도 다들 열 맞춰 때가 되면, 그 쪽으로 흘러내러가는 상상. 그 넓은 길은 ‘결혼’이라는 길이다.

다행히도 우리는 지금, 이와 똑같지 않지만, 그렇게 많이 다르지도 않고, 조금 달라지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은 인생 게임판에 서 있다. 그 결혼길의 비명에 동참하지 않으려는, 우연히 부딪히게 되는 좌우 레버에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으려는 사람들, 굳건하게 지어진 큰 길 대신, 새로 길을 내며 가느라 힘들고 외로워도, 자신의 신념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영감 가득 찬 다른 길을 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비혼, 꽃이 피”는 환희에 찬 순간도, “엘락도”로 씩씩하게 길을 내는 트럭도, 언니들이 손과 손을 맞잡아 “전광”하는 액션 박람회 순간도 없이, 악몽같은 상상의 현실이 지속되었을 것이다.



< 언니네트워크 제1회 비혼여성축제 / 퀴어퍼레이드 “엘락도” / 1회 여성주의 액션박람회 >

무엇이든 기존의 틀을 바꾸는 것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다. 게다가 이 사회는 '정상'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나, 제도권 학교의 학생, 번듯한 직장의 사원이 되었다가, 다시 결혼을 통한 '정상'가족을 이루어 살아가다가 생을 마감하도록 풀 세트로 견고하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견고하기만 한가, 그 흠은 몹시 성차별적이다. 그 흠을 벗어난 여성들에게는 개인적, 사회적 비난과 차별적 처사로 벼랑 끝으로 내몰고, 그 흠을 따라 흐르던 많은 여성들 역시 상처받고 고통 받고 인생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 사라지게 하는 곳이기도 하다. 여성들은 자신의 온전한 자아를 지키는 최소한을 위해서라도 결혼 제도로 상징되는 기존의 흠을 거부할 수 있길 갈망해왔고, 그 절실함은 지금도 여전하다. 그렇기에, 현실의 벽을 깨는 고통을 감수하고서 점점 많은 언니들이 비혼의 길을 택하고 있다.

비혼은, 단지 '미혼을 제대로 부르는 말'이 아니다. 또, 이 비혼이라는 색다른 길은, 그저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길이 아니다. 그 길은 갈래가 여러 가지이고, 서로 교차하는 매끈한 환승점이 준비되어 있는 길이다. 비혼은 국가가 공인하는 여 1인과 남 1인의 법적, 사실적 결합 상태가 아닌 모든 상태의 삶의 모습을 일컫는 말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인 삶을 선택하는 사람은 물론, 입양을 통해 2세대 이상의 공동체를 꾸리는 사람도 비혼이고, 여남커플을 이루었지만 제도 결혼을 거부한 사람도 비혼이다. 동성 커플은 결혼을 거부하거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비혼이고, 결혼을 선택했다가 다시 거부한 사람도 비혼이며, 사별이나 여타 이유로 결혼을 종식한 사람도 비혼이다.



이처럼 다양한 삶의 모습을, 머리 자르고 다리 잘라 몸통만 남겨놓고 그것만이 '정상'이라고 일컫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절대다수의 절대행복을 가로막는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결혼이 곧 불행이라는 말은 아니다. 그 길이 결혼이 아니라 어떤 길이라 해도, 갈 길이 단 하나뿐이고 우회할 길도 빠져 나갈 길도 없거나, 나와도 온통 수렁뿐이라면 곤란한 것이냐고, 그 길의 '외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비혼의 길이 다채롭게 놓여야만이 결혼의 길도 지금의 굴레를 벗고, 선택가능한 하나의 삶의 형태로 제 모습을 찾을 것이다. 결

혼 바깥에도 다른 길이 많기 때문에 탈출구가 없어 그 안에서 숨 막혀하며 눈치보고 참을 필요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언니네 특집은, 혼 바깥에 자신의 빛깔과 향기에 맞는 길을 만들며 힘껏 살아가고 있는 비혼 언니들의 고민과 이야기를 담았다. 이런 언니들 덕분에 우리는, 후회없이 행복한 길로 조금 더 쉽게 나아갈 수 있다.

namu말테님이 비혼 여성들과의 진한 공동체 경험을 풀어놓았고, '돌아온' 싱글의 천만번 괜찮은 삶에 대해 빨강님이 생생한 이야기를, 입양이란 방법으로 '그대'들과 삶이 엮이길 바라는 콩님이 비혼여성 입양제도에 대한 고민을 나눈다. 기존 시스템을 넘어서 일하고 놀고 사랑하고 즐기려는 비혼여성귀농공동체를 준비하고 계시는 이완님과 길날님이 그 문제의식과 그 지향점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고, 언니네 곳곳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오프라인 공동체를 향한 우리 안의 자원들에 대해서는 이체가 곰살맞은 소개를 준비했다.

자, 이제 우리도 꽃삽 하나씩 들고 따라나서 보자.



* 그림 : ms-window 3D 핀볼 화면 캡처, 언니네트워크 행사 포스터와 사진, kelly connell의 사진, 네이버 카페 interiorplan 공개 사진

*글을 펴 가실 때에는 출처를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월간 언니네(www.unninet.co.kr) 2007년 7월 특집 '혼외 正事' 중

[86호] 나의 여성공동체 경험사 3장

namu말테 / 언니네 회원, ssakbak@hanmail.net

나의 여성공동체 경험사 chapter 3

- 우리는 모두 다른 몸이다

블루가 아니라, 블루 스타킹

블루스타킹(bluestocking) : 원래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문인이나 문학에 관심 있는 귀족을 초청하여 대화를 나눈 여성모임의 구성원을 지칭하는 말이었다고, 오늘날은 문학이나 학문에 관심 있는 척 하는 여성을 가리키는 경멸적인 뜻을 지닌다. 이들은 사교모임이 열리는 저녁시간을 카드놀이나 하면서 허비하지 않고 좀 더 지적인 활동으로 보내려고 했다.... -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블루스타킹’이라는 다음 카페가 있었다. 왜 블루스타킹에 필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당시 ‘그로테스크하고 신비주의적인’ 것 등에 심취해 있던, 난해한 정신세계의 소유자 X가 이 이름을 붙였는데 그만 실수로 ‘블루’가 아닌 ‘블루’가 된 것이었다. 자판 하나 잘못 눌렀을 뿐 아주 작은 차이인데, 뭔가 불룩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있어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어설피고, 경멸을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듯도 하고, 블루보다 더 화끈해보여서, 나는 왠지 ‘블루스타킹’인게 좋았다.



아무튼 이곳은 모대학 안에서 여성주의라는 화두를 가지고 이리저리 만났던, 희한한 구석이 많은 여자들의 온라인 소통공간이었다. 그리고 왕년에(!) 나름 한카닥씩 무슨무슨 활동들을 했던 ‘봄바람’이라는 카페 정회원들은 이곳에서 서로 치고 박고 슬쩍 메롱거리기도 하고 울분을 토하고 그루밍도 하면서 생활의 소소하고도 거대한 이야기들을 했다. 가끔 영문을 모르는 이들이 ‘구멍난스타킹’이라던지, ‘스타킹벗기기’와 같은 닉네임으로 들어와 비공개인 카페에 노크를 했다. 그때 우리들은 그냥 무시하거나 별 희안한 애들 다보겠네라는 식으로 코웃음을 치기도 하고, 그냥 한번 공개시켜버릴까? 얼마나 실망할래나? 이러며 깔깔거리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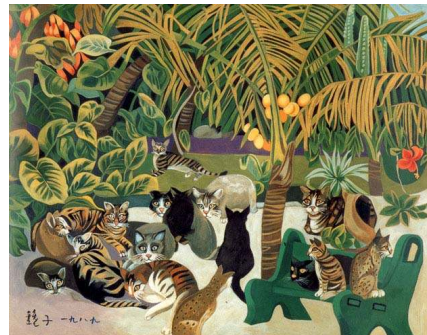
그 ‘블루스타킹’의 ‘봄바람’들 중에 X, Y, Z가 있었다. 우리들은 꽤 오랫동안 같은 공간에서 살았다. 사실 X는 같이 산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았거나 아예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지근거리의 동네주민으로서 무슨 일이 있건 그냥 심심할 때면 이렇게 종종 넷이 모였기 때문에, 같이 산 것 같은 기억으로 남겨져 있다. 우리는 여성공동체를 꿈꾸며 공통의 지향을 갖고 만났다기보다는, 어쩌다보니

운때가 맞는 바람에 같이 살게 됐었고, 게다가 사실 우리는 사고모임이 열리는 저녁시간을 카드놀이나 하면서 허비하지 않고 좀 더 지적인 활동으로 보내려는 일은 전혀 없었다.

“우리집, 자궁 같지 않니?”

문득 누가 그랬다. 다 쓰러져가는 어두컴컴한 시장골목에 깊이 들어가다 나오는 철문을 열면, 좁고 긴 현관과 복도가 이어졌고, 거실겸 부엌이 있었고, 양쪽으로 방 두 개가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가 방 뺄 때 즈음에 벽지가 담배연기로 노오랗게 변색이 되어 있었을 정도로, 그 손바닥만한 거실에서 우리는 많 이도 피워대고, 마셔대고, 엉겨붙었다. 나와 X, Y, Z의 성격들이 한뭉뭉했지만, 우리는 그다지 아끼자끼하게 서로를 챙기거나 하는 살뜰한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보다는, 뭐랄까... 억척스럽기도 하고 대견 하기도 하고 아주 조금 안쓰럽기도 한, 꾸물꾸물 느리게 같이 성장한 나날들이었다고나 할까... 어쨌든 호 락호락하지 않았다.

우리는 누가 설거지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같은 걸로 핏대를 리며 싸우기도 했고, 서로의 못견디는 성격과 습관, 실수들 때 문에 대판 싸우며 냉각기를 몇 번씩이나 겪었으며, 술 먹다가 수틀리면 거리에서 **년 어찌구 하면서 씹박질 혹은 달음질을 하기도 했다. 또 더운 여름날 생닭 두어마리 사다가 삼계탕 해서 다른 봄비람들 불러다 나눠먹기도 하고, 오랜 취업 준비 기간의 허덕임을 견디기 위해 ‘하루에 천원으로 살기 비법’ 등을 공유하고, 비축해놓은 갈루아를 훌쩍이며 사랑과 인생을 논하 기도 했으며, 연말에는 각자의 애인과 친구들을 불러 대규모 화투판을 벌이기도 했다.



X는 종종 아령을 들고 와서는 TV를 보며 심드렁하게 넓적다리 운동을 했고, 나는 아토피로 고생하던 같은 방 쓰는 Y의 등짝을 긁어주곤 했고, Y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나에게 잔소리하다가 제풀에 지치기도 했다. X와 Z는 곧잘 술을 끊겠다고 공언을 했지만 그다지 오래가지 않았고, 나는 Z와 요가도 하며 담배도 끊으려고 했었지만 역시 얼마 안 갔다. 우리 중 나이가 아주 조금 더 많은 X가 '어린 것들이 내 심정을 알아?' 하며 흐느적거리면 나머지는 잘근대며 야유를 보내거나 어르고 달래는 것도 재미있었고, 누군가의 연애가 동강나거나 위기에 처하면 어김없이 넷이 모여 술을 푸는 맛에 살기도 했다. 그 시절 밤마다 출입했던 술집은 우리가 가면 의례 새벽까지 있으려니 생각했고, 우리는 종종 술이 덜 깬 상태로 혹은 만취한 채 주정을 하며 아침에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술집 갈 돈이 부족하면 좀 더 싸게 먹으려고 거실에서 술 판을 벌이곤 했는데, 쌓아놓기 시작한 맥주병은 긴 현관 복도를 채우고 남아 나중에는 심심찮게 발에 채일 정도였다. (정말, 왜 그렇게 할 얘기들이, 술 마실 일들이 많았을까) 서로 지지해주기도 하고, 치밀하게 논쟁하면서 더 섬세하게 성찰해보기도 하고, 통한다 싶은 시간도 꽤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서로 갈아먹기도 하고, 못나게 굴기도 하고, 오기를 부리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오해를 거듭하고, 날을 바짝 세우기도 하면서,

그렇게 일상을 공유하며 같이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시간들이 몇 년간이라도 계속될 수 있었던 건 우리 사이에 뚜렷한 치정시간;;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나마 가능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우리는 서로 다른 몸이다, 그럼에도...

하지만 그 시간들을 지내면서 우리는 아니 나는, 누군가 긴 설명을 하지 않고도 '아' 했을 때 '어' 할 수 있는 감각을 서로에게 허용하게 되고, 좀 더 다면적이고 내밀하면서도 지지받는 관계를 맛보았던 것 같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학생이라는 비교적 안정됐다고 생각했던 지위와 익숙한 관념들로부터 무언가 변화를 준비해야하는, 그 사이의 취약하고 어린 시간을 함께 하면서, 움쭉거리며 자기 안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힘들을 나누었던 게 아닐까.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그랬다. 이제까지의 그 어떤 사람에게보다 이들에게 더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도, 상처란 언젠가는 아물 수 있다는 것을, 나 역시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것을, 관계는 그 누구의 탓만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나 자신'이 되었다면 그 이상은 내 몫이 아니라는 것을, 미워죽겠네 어쩌네 해도 그것이 내 모습의 반영이기도 함을, 아주 조금씩 느꼈던 것 같다. 그리고 **공동체(共同體)**라는 것이 실은 '우리는 서로 다른 몸'이라는 것을 철저히 알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한 가지 덧붙이면,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까지 조그맣게 각주.



그렇게 몇 년이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가 변했고, 우리는 그때만 해도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들로 떠나 각자 다른 커뮤니티들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막달레나공동체'라는 공간에서, 또 그밖에 여러 공동체들에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아가며 관계 맺기를 배우고 있다. 카페 블루스타킹은 방문자가 없어 폐쇄되었고, 아쉽게도 미리 저장해놓지 않아 예전 글들을 찾을 길은 이제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 생활의 소소한 이야기를 알지 못하고, 오랜만에 만나면 꽤 삐그덕거리기도 하며, 이제 서로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공연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예전에 서로에게 가질 수 있었던 정도의 관심과 소통방식을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무리일 것이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공유했던 세계는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다. 관계는 계속 재해석되고 새로워지니까. 나는 더 이상 이들을 자주 만나지 못해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서로에게 깊이 관여했던 시간의 지층을 기억하며, 또 다른 곳에서 X,Y,Z'이기도 한 A,B,C들을 만나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속에서 성장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지' 알아가는 과정들, **여자들 사이의 내밀한 소통과 말 없는 말들을** 배울 것이다.

원래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했다.

나의 여성공동체 경험사도 그러할 것이다.

*그림 출처(위에서부터) : Georgia O'keeffe, Lawrence Tree

천경자, 헤밍웨이의 집

김남호, 낮선 풍경

*글을 펴 가실 때에는 출처를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월간 언니네(www.unninet.co.kr) 2007년 7월 특집 '흔외 正事'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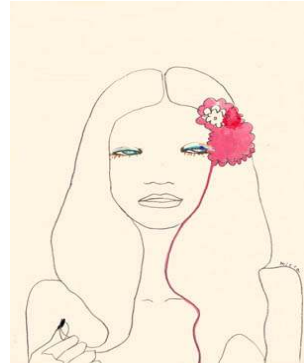
[86호] 비혼, 여성, 생태, 공동체

이완&길날 / 언니네 회원

싹을 틔우기 위해, 자연처럼 재생再生하기 위해 – 비혼, 여성, 생태, 공동체

종종 나는 / 진보를 믿지 않는다 /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은 이미 그려
졌고 / 가장 아름다운 시들도 / 내 곁에 모아두었다 / 음악도 더 이상은
필요 없다 / 가장 멋진 뇌성 번개를 / 이미 머릿속에서 그려보았고 / 가
장 아름다운 눈썹 은 / 내 머릿속에서 내린다 / 제일 중요하다는 봉우리
들을 보았으며 / 가장 깊은 계곡도 구경하였다 / 바다는 상상 속에서 /
언제나 가장 괄목할 만하다 / 자동차의 속도가 어찌 / 쏟아지는 비나 시
편의 시들 / 평범한 지역과 간단한 문장 / 소박한 생활을 / 능가할 수 있
겠는가? / 종종 나는 모든 것이 충분하다고 믿는다 / …… (중략)

– 가브리엘레 보만, <나는 종종 진보를 믿지 않는다> 중에서



‘단순하면서 충분한’ 삶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일상을 왜 견뎌야 하는지에 대해 묻고 있는 이 시는 독일의 페미니스트 시인, 가브리엘레 보만이 쓴 것이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진보’는 과학 기술의 진보를 일컫는다. 전쟁과 폭력, 억압과 착취, 소음과 매연이 무성한 과학 기술의 진보가 이룩해놓은 산업사회 속에서 인간의 속도는 제 갈 길만을 간다. 옆에서 산이, 흙이, 하늘이, 바다가, 강이, 나무가, 풀이, 꽃이, 심지어는 같은 인간이 상처를 입고 신음을 하든지 말든지 안중에 없다. 인간은 속도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사유도 성찰도 딴 세계의 언어일 뿐이다.



좀 폭넓게 말한다면 비혼여성생태공동체 모임은 ‘과학 기술의 진보’를 맹신하면서 이윤과 자본 축적을 위해 사람들의 일상과 자원, 자연을 획일화된 통제 아래 두려는 자본주의를 반대한다. 또, 자본주의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차별과 억압을 정당화해온 가부장제와, 이것을 떠받치는 대표적인 제도로 기능해온 ‘결혼’이라는 관습적 절차에 의문을 품는다. 비혼여성생태공동체 모임은 이러한 삶의 양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여성들이 한데 어울려 서로가 가진 힘과 기운으로 새로운 삶의 양식을 위한 지혜를 모아보려는 시도다.

하지만 비혼여성생태공동체 실험을 위한 모임은 아직 ‘항해’에 오르지 않았다. 어딘가에 닻을 내리기 위해 배를 띄울 준비를 막 시작했고, 이 배에 올라탈 사람들이 여럿 모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제부터 풀어나갈 글은 이 모임을 제안했던 몇몇 사람의 비혼여성생태공동체에 대한, 아

직까지 구체화된 것이 없는 어떤 상상이 반영된 것인지, 이 모임에 함께하고자 하는 모든 이의 지향과 의견을 담은 것은 아님을 밝혀 둔다.

‘이완’의 긴 물음표: 정착민인 동시에 노마드

내게 있어서 ‘비혼’이란 ‘결혼’의 문제가 아닌 ‘이성애자가 아닌 것’이라는 정체성을 표현하는 한 완곡한(?) 단어일 뿐이다. 또한, 혹 여러 다양한 퀴어들의 파트너쉽을 국가가 제도화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거부할 것이다. 당연한 권리 실현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환영하겠지만, 개인적으로 거부하는 이유는 **관계맺음이 제도 속에 억이는 것, 이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기능하는 ‘가족’의 대열에 합류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부당하게 차별받는 현실적 제약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그러하다)

‘비’혼이라는 어떤 관계 -국가와 나, 혹은 이성애적 요소와 나- 를 분리·부정하는 나는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며 ‘또 다른 관계’를 상상하고 추구하고 있다. 여성과 자연. (내가 쓰는 ‘여성’이라는 단어는 유동적이며 변화무쌍하다. 그리고 실은 부적절한 단어 선택이다.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다.) 어릴 적부터, 산 아래 살던 나는 일상적으로 그리고 폭력적으로 자연과 관계맺음 해왔다. 내게 쌓인 긴장과 불충분함, 억압을 해소하기 위해 자연을 ‘이용’하면서 자연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상실해 왔다’. 내 안에 내재된 다양한 폭력성, 이것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망을 이루어 나를 분열시켜 왔는데, 내가 지금 주로 바라보는 부분은 ‘자연과의 관계’에서의 폭력성이다. 이것은 사실 ‘나와의 관계’이기도 하다. 자립하여 스스로에게 자연 ‘속’ 생명의 기운을 주고받는 일상을 만들어 주는 것 - 이러한 일상적 생활양식의 변화 욕구가 근본적인 문제로 느껴지면서 시급하게 풀어야 할 것으로 다가왔다. 내 삶이라는 각본의 출발점이면서 뼈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다. 여성과 여성. 사람들은 ‘비혼’을 지속적인, 안정적인 관계맺음을 멀리하고 ‘홀로 서다’를 선언한 것처럼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결혼을 노후대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말이다. 난 외롭고 고독하고 적적하게 ‘나와 분리되기’, ‘타자와 분리되기’ 를 좋아하지만, 또한 ‘그녀’들이 그리기도 하다. **기운을 주고받는 종족. “농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에 대한 고민을 삶 속에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녀들. 가는 길목마다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행복하게 긍정할 수 있는 사람-공간-장場이 서로에게 되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이 필요하다(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란 아프리카 속담. 내가 나의 부모가 되어 나를 보호하고 살리자고 생각했을 때, 만난 문장이다. 내게 ‘마을’이란 정착지나 유목지나 하는 문제의 차원을 떠나 있다. 온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돕는다고 누군가 말했다. 그러나 그런 기운을 실감한 적이 있었던가? 그런 충만한 안정감, 지속적인 것에 대한 만족은 염두에 두지 않았으며, 그런 것은 꿈도 끈적이 없었다. 그저 불안정함과 혼란 속에서 비틀거리는 것이 나와 어울린다고, 자유로움의 이면이라고, 때로 그것이 힘들고 불편하지만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 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도 별 다르지는 않다. 단지 나는 내게 ‘마을’도 필요하다는 걸 인정했다. 별별 것이 다 있는 마을, **국가와 시장·가부장제의 영향력으로부터 ‘나’를 보호·치유하고 안정적이고 근본적인 저항·실험·놀이의 삶과 문화가 숨 쉬는 터전.** 이러한 생각들을 모아 그린 이 그림은 애매모호하며 추상적이고, 모순투성이에다 그리다 만 것 같은 (여백이 아닌) 공백의 느낌이 있다. 이제 함께 먹고 똥 쌀 사람들과 채워 나갈 부분이다.

비혼여성생태공동체 – 지금, 여기서 시작하기



변변한 직업도, 반반한 생활력도 없으면서 의식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여성들을 불온시하는 이 사회의 '폭력적인' 시선은 비혼을 택한 여성들에게 꽤나 집요한 위협이 된다. 분열하는, 혼란스러운, 소외되는, 파편적인, 불안하고 위태로운, 비틀거리는, 폭력적인, 메마른, 과장된…… 갑갑증과 울증을 증폭시키는 사회의 편견과 위협 속에서 조각난 채로 부유하는 꿈들이 찾고자 했던 자리가 있으리라 생각했다. 떠도는 의지들을 하나로 꿰어내볼 필요를 느꼈다. 지속적인 삶을 위한 개인들의 자유로운 연대체 – 따로, 또 같이 꾸는 꿈을 꾸고자 하는 의지들이 한데 모이면 이것이 한결 쉬울 것도 같았다. 물론 '이런 필요가 없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이다. 개인의 의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체제와 사회의 숨 막히는 구조, 반동의 질서가 커뮤니티의 필요성을 '촉발'했다.

비혼여성생태공동체에서 지향하는 바는 어떻게 살아야 즐겁고 유쾌할지를 서로에게서 배우는, 생기와 긍정적인 의미의 싸움 힘을 상승시키고, '자급적 관점'으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여성들 간의 연대다. 무분별한 소비로 위태롭게 유지되는 도시의 삶을 떠나 자연 속의 나로 지립하려는 '경제적인' 움직임을 도모한다.

여성들만의 '생태공동체'를 꾸린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사실 여성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여성들만이 모여 사는 마을을 만들어 병원과 학교를 짓고, 텃밭과 과수원과 농장을 꾸리고, 이곳만의 거래 방식으로 농작물과 물건과 자원을 서로 교환하는. 오직 여성들을 위한 일터, 서점, 극장, 공원, 시장, 도서관이 있는. 상상해보면 편이나 즐겁다. 이렇게까지 클 필요도 없다. 소비를 최소화 하면서 규모를 작게 하여 유지할 수 있다면 차라리 더 쉽지 않을까. 복잡한 도시에 나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하면서 철따라 필요한 작물을 심어서 가꾸어 나누고, 함께 가공하여 시장에 내다 팔아 적은 돈으로나마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살아가면서 가난



과 불편함과 더러움도 삶의 고유한 모습의 일부임을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해나가는 삶. 도시, 남성, 자본, 속도 중심의 현대적 삶이 주는 피로가 과부하 상태에 도달했을 때 훌쩍 일상의 거처를 떠나 찾아든 여성들을 위해 자그맣고 편안한 '쉼터/놀이터'를 지어서 그들을 맞이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이런 삶의 모습이 생태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비혼여성들의 감수성으로 기존의 질서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 함께 놓고 일하고 부대끼다 보면 내공은 자연스레 쌓여갈 것이다. 내공이 쌓이는 것에 비례하여 치유 능력 또한 자라나리라. 비폭력적 커뮤니케이션이 일상화되리라. '관계'에 대한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리라. 세상은 그래도 살아볼만하다는 생각을 아주 오랜만에, 경우에 따라서는 태어나 처음으로 하게 될 지도.

*글을 펴 가실 때에는 출처를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월간 언니네(www.unninet.co.kr) 2007년 7월 특집 '혼외 正事' 중

[86호] 언니네는 공동체 실험 중

이채 / 언니네트워크 편집팀, ichae1982@hanmail.net

집주인은 우리 모두. 공동출자해서 집을 지었지. 설계사인 '수가' 설계해주고, 집값을 싸게 분양받았어. 이렇게 우리 모두 건설 비용을 줄일 수 있었지. 나머지는 공동주택건설 대출을 받아서 각자 얼마씩 갚아 나가고 있어. (중략) 이런 꿈, 실현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 않을까? 당신도 혹시 꾸고 있는 꿈? 아, 방가방가.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일을 벌려봐?" - 사탕내사탕님, '내가 꿈꾸는 집' 중에서(언니네 살롱 '비혼으로 함께 잘 살기')

일은 바로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다.

언니네에선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살아가려는 언니들의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비혼으로 함께 잘 살기' 살롱 언니들은 '결혼'이라는 사회적 규범과 무관하게 행복한 삶을 즐기(려)는 비혼여성 공동체를 꾸려가고 있다. 지난해 8월 비혼을 향한 사회적 시선과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감자모임 '비혼을 비혼이라 부르지 못하고'에서 시작된 비혼 살롱은 비혼과 관련된 팁과 비혼여성들의 수다로 가득하다.

'비혼생활백서'는 건강, 경제, 생활 등 각종 생활의 지혜가 쌓여 있다. 과일껍질을 이용한 살림법이나 녹차 활용법부터 전월세

계약이나 소득공제시 유의사항 등 비혼여성이 마주치는 여러 상황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다. 비혼으로 살아가는 언니들에겐 건강이 꽤 중요한 관심사인 터라 건강 관련 팁도 많다. 비혼여성 의료비 절감법이나 여성의 생식기 자기검진법, 산책하기 좋은 수도권 워킹 코스 등은 꽤나 유용한 정보다.

언니들이 대량 거주하고 있는 서대문/은평/마포, 관악/동작 지역은 별도의 메뉴를 만들어 혼자 밥먹기 좋은 곳이나 추천 카센터, 맛집 등 소소한 동네 정보를 나누고 있다.

지난 3월 10일에는 비혼을 알리고 긍정하는 1회 비혼축제 '비혼, 꽃이 피었습니다'를 열기도 했다.

'나무위에, 빵집' 살롱은 빵 만들어 먹는 공동체다. 빵집 주인장인 히와 밥빵님은 30여가지가 넘는 빵을 몸에 좋은 재료들만으로 정성껏 구워내 집까지 배달해준다. 유기농 밀가루는 기본이고, 건강에 나쁜 포화지방산 기름 대신 올리브기름이나 포도씨유, 카놀라유 등 식물성 기름을 쓴다. 소금과 설탕, 지방은 가능한 적게 쓰고, 비타민과 섬유소, 미네랄이 풍부한 잡곡과 아채, 생과일을 최대한 활용한다.



두 언니가 얼마나 꼼꼼하고 인심이 좋은지, 빵에 들어가는 재료도 최대한 손수 가공하고 넉넉하게 쓴다. 시금치를 말려 가루로 만들고 오렌지를 껍질째 채썰고 쇠고기나 부추도 듬뿍 넣는다.

빵 만드는 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다. 매주 빵 굽는 날 미리 신청을 하면 빵공장(현재 밥빵님네 거실이 공장 노릇을 하고 있다) 견학이 가능하다. 두 분이 빵을 어떤 과정과 고민으로 만드는지 지켜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빵소풍도 같 생각이다.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날 좋은 날, 잔디밭에 둘러앉아 빵 나누어 먹으며 빵 맛있게 먹는 법 등 '작은 강의'를 해보면 좋겠다는 것이다.

올해 안에 가게를 열 계획인 나무위에, 빵집은 언니들이 많이 모이는 신촌이나 홍대 등지에 동지를 틀 예정이다. 주인장들은 **공동 출자를 제안하기도** 했다. 500만원(5만원씩 10회 분할도 가능)을 내면 2년 안에 원금을 갚고, 빵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언니를 만나다' 인터뷰에는 공동출자에 참여하겠다는 언니들이 들개처럼(!) 모여들기도 했다. "지나가다 들러 차 한 잔에 빵 한 쪽 먹고 가는 쉼터가 되면 좋겠다"는 두 주인장의 바람이 실현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놀이 공동체도 여럿이다. 불과 몇 주 전에 1주년 기념대회를 치루고 역사와 전통에 빛나게 된 '**짜토아간축구회**'는 이름 그대로 짝수 토요일마다 공차는 언니들의 공동체다. **짜토마다 저녁에 홍대에서 모인다.** 축구를 잘 못해도 괜찮다고 한다. 진짜 인지는 모르겠다. 언니들이 날아다닌다는 소문만 들려올 뿐이다 --). 축구든 농구든 신나게 몸을 부딪히며 돌아보고픈 언니들에게 활짝 열려 있다.



그에 비하면 역사와 전통 따위 미천하지만 이름처럼 잘 노는 언니들은 다 모인 '**언니야 놀자!**' 살롱도 있다. 클럽 문화에서 열린 퀴어니잇 번개로 화려한 출정식을 가진 놀자 살롱은 놀자 페미니스트 번성의 원대한 목표를 향해 바지런히 놀고 있다. **클럽도 가고 운동번개도 하고 강촌도 가고 등등 하이터 놀 계획은 지구 끝까지 잡혀 있다.**

이런 작은 움직임들 하나하나가 함께 살아가려는 고민과 노력의 결과물들이다. 사회가 정해놓은 규범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지 일일이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 과정은 때론 고단하지만 언니들은 그 고단함이 안겨주는 깊은 자유와 성취감을 알고 있다.

지금도 여기저기서 많은 언니들이 반짝이며 다양한 공동체를 구상하고 만들어가고 있다. 이 글에 소개한 것들은 내가 잘 알고 있는 몇몇 공동체일 뿐이다.

말 나온 김에, 언니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공동체나 공동체를 꾸리려는 움직임들을 다른 언니들과 나누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공동체 정보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우린 **함께살기의** 정보를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D

다음은 편집팀원들이 살짝 미리 달아본 상상 댓글.

그림의 L 영상공작소

L 영상공작소가 있었으면 해. 영상을 함께 볼 수 있는 작은 세미나실, 편집실이 있는 영상공작소! 편집실에는 컴퓨터 몇대와 상시대여 가능한 캠코더를 놓고 언니들에게 늘 개방하는 거야. 난 이 공간에서 연인을 향한 사랑고백, 100일 같은 기념일 축하영상을 만들어주거나 언니들의 라이프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주고 싶어! 물론 영상을 만들기 귀찮아하는 언니들을 위해서이고 만약 자신이 직접 만들고 싶다는 언니들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한달에 두 번 정도 영상촬영편집 교실도 여는 거야.

가장 함께 해보고 싶은 것은 비디오 다이어리 교실. 비디오 다이어리를 만들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 매주 금요일 밤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아시아 영화나 레즈비언 영화를 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 각자의 영화리스트를 공유하고 도란도란 즐기는 거지. 특히 레즈비언 영화는 다같이 볼 때 더 재밌으니까

마지막으로는 이 공간에 작은 아카이브를 만들어 공동체의 역사를 기록한 영상테이프를 보관했으면 좋겠어. 함께 쓰고 누구든 기록할 수 있는 비디오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야.

해나의 공동 요리장

나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게 사람 사이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혼자 밥 해먹는 사람들의 밥건강도 몹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언니네 공동체 마을엔 공동 요리장이 있으면 좋겠어. 각자 집에 부엌이 없어도 되니 훨씬 효율적이지? 밥때가 되면 요리장으로 가서 서로 도와가며 애기도 해가며 요리를 하고 식탁에 둘러앉아 먹는 거지. 테이크아웃해갈 수도 있고 말이야, 고 옆에 막 따와서 먹을 수 있는 텃밭도 있으면 좋겠어~ 우와우와 :)

고래의 페미니스트 북카페

예전에 고마가 이대 앞에 있었을 때 그냥 아주 작은 공간이었지만 너무 소중하고, 안심이 되고 뭔가 든든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곳이 없지. 물론 홍대앞에 무수하게 생겨나고 있는 크고 작은 개성적인 카페 중에서 언니들이 많은 곳도 있지만, 그래도 페미니스트 북카페가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곳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할 수도 있고, 액션박람회도 상시적으로 열고, 뭐 여러모로,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은 공동 투자, 혹은 공동 출자로 카페 운영. 예전에 아게하라는 곳은 조합원에게는 차값 및 행사장 대여비를 할인해줬을 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책은 기증을 받는거지. 여성주의 책들을 모으고, 작은 페미니러리가 하나 더 생기는 걸까. 예전에 연대 총여에 있는 페미니러리 갔었는데, 좋긴 하지만 공간이 책읽고 하기엔 조금 비좁고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그래서 책들을 볼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만들고.

때론 독서 토론회를 여는 거야. 신간 소개나, 혹은 중요한 여성주의 고전 읽기 모임도 만들어서 거기를 기점으로.

페미니스트 북카페니까, 그에 걸맞은 행사들도. 저자 혹은 유명한 여성주의 학자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듣는 자잘한 행사도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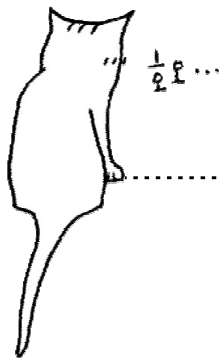
중요한 건, 맛있는 음식과 맛있는 차를 팔아야겠지. 아 여기서 나무위에, 빵집에서 만든 맛난 빵을 파는 건 어떨까. 페미니스트 북카페에 가면 나무위의 빵집의 빵을 먹을 수 있는 거!

모래의 반려동물 공동체

반려동물을 함께 보살피는 관계망이 있었으면 좋겠어. 여행을 갈 때도, 잠깐씩 집을 비워야 할 때도, 혹여나 내가 죽은 후에라도, 갖가지 특수한 상황을 생각하면 가슴이 쿵 하는 건, 우리 집 고양이 크론과 바리 때문. 지금도 병원이나 친구집에 부탁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거리와 금전적 비용은 차치하고서라도 크론과 바리가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편하게 지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 크론과 바리를 맡겨도 마음이 무겁거든. **우리 집의 반려동물에 대한 지식과 애정이 있는 관계망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넓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글을 펴 가실 때에는 출처를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월간 언니네(www.unninet.co.kr) 2007년 7월 특집 '혼외 正事' 중



비혼, 네 번째 페이지

비혼 여성들이 서로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정치적인 주체이자 집단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비혼 여성들의 목소리를 통해
시민권을 확장하기 위한 활동들을 시작해요

2007년 11월 | 2007년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선거 질의서
2007년 12월 | [감자모임] '비혼여성, 정치적 주체로 거듭나기'
2007년 12월 | [기고] 양날의 차별... 레즈비언과 비혼여성

독신과 결혼의 차이는 단 한글자이다
지루함과 지루함들

- 그랑 카르트레

페미니즘이 결혼을 금하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나의 페미니즘은 그걸 원해

- 소설 <동정녀> 마들렌펠티에

오히려 나의 '비혼'은
그 모든 행복이 결혼을 통해서만 가능하리라는
편견을 거부하는 것이다

- 무영 <언니네 방 2> 중

- 2007년 11월 29일 - 2007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선거 질의서 ::: 언니네트워크

언니네트워크

주소 : ☎121-818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84-6 대재빌라 302호 전화 : 02-3141-9069

사이트 주소 : <http://www.unninetwork.net> 담당 : 액션나우팀장 이진주 (action-now@unninetwork.net)

문서번호 : 07-11-29-01

일 자 : 2007년 11월 29일

수 신 : 대통령 선거 O당 000 후보자

참 조 : 대통령 선거 O당 000 정책담당자

내 용 : 비혼여성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대선 후보자 의견 질의

발 신 : 언니네트워크

담 당 : 언니네트워크 액션나우팀장 이진주 02-3141-9069 action-now@unninetwork.net

1. 이번 2007년 대선에서 귀 후보님과 선대위의 건승을 기원하며, '언니네트워크'에서 각 후보님의 진영에 아래와 같은 질의서를 드립니다.
2. 본 단체는 2004년 11월에 설립된 '언니네트워크'라는 여성 단체로서, '여성주의로 숨쉬는 마을 언니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회원 5만 1천여명)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 친화적 환경 형성과 여성주의 네트워크의 확장을 통해 모든 종류의 성적 차별 및 억압이 종식된 새로운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본 단체는 최근 2년 동안 '비혼 여성'에 대한 이슈로 줄곧 활동하여 왔으며 현재 200명이 넘는 비혼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회 비혼여성축제(참가자 450여명)'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 매년 비혼여성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 최근 서울시는 25~34세의 여성 2명 중 1명이 미혼이며, 미혼여성의 비율이 10여 년 전에 비해 80% 가까이 증가했다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15세 이상의 여성 중 35%는 더 이상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혼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담론은 우리 사회 가치관의 변화와 여성들의 삶의 모습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을 맞이하여 각 선대위와 후보님들께 '비혼 여성'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정책 마련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렇게 질의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4. 아래 각 호의 질문에 대하여 2007년 12월 5일까지 이메일 주소 및 팩스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6일부터 본 단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언니네(회원수 5만 1천명)'를 통해 귀 후보님과 선대위의 정책 및 공약과 관련된 답변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FAX : 02-323-2934 / E-MAIL : action-now@unninetwork.net)

5. 본 질의서는 아래와 같은 사회단체 및 인권연대모임의 지지를 받았으며 귀 후보의 답변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언니네트워킹의 본 질의를 지지한 단체 및 연대모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여성의전화’, ‘인권운동사랑방’,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언니네비혼살롱’, ‘문화세상 이프’, ‘레즈비언권리연구소’, ‘여성영상집단 움’, ‘여성성공센터 워’,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아무쪼록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귀 후보님과 선대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끝.

언니네트워킹

1. 한국사회는 이성애중심 법률혼 및 혈연 중심의 가족을 ‘정상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중심의 가족개념은 독신, 혹은 동성·이성과의 파트너십 관계, 비혼 공동체로 살아가는 다양한 비혼 여성들의 가족구성권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법률혼 및 혈연가족 중심의 가족개념은 국민연금 및 유족연금, 공·사보험 내에서 비혼여성이 수급권자를 자의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로 인해 이성·동성과 파트너십 관계 혹은 공동체를 꾸리며 살아가는 비혼여성의 경우 오랜 시간 함께 가족으로 생활하더라도 수급권자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1) 이성애 법률혼 및 혈연가족중심의 ‘정상가족’ 개념에 대한 귀 후보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2) 다양한 가족이 배제되지 않도록 국가연금 및 공·사보험에서의 수급권자 지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공약이 있습니까?

2. 비혼여성의 사회적 차별은 가족구성권 뿐 아니라 여성의 경제권에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현행법 소득 공제 자격 요건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없는 비혼 여성의 경우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6년부터 소수자 추가 공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비혼 여성 및 이혼 여성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혹은 근로자 서민 주택 구입 자금 등 영세민 전세 자금 대출권자의 자격 요건 상 3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인 비혼 여성은 대출권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비혼 여성의 안정적 주거 공간 확보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우선순위가 높은 가구에 대한 한정적 재원의 효율적 지원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비혼여성이 상대적 차별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 1) 비혼여성의 독자적 경제권이 차별받고 있는 현 정책에 대한 귀 후보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2) 소수자 추가 공제 제도 폐지에 따른 비혼 여성들의 세금 과중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안이 있습니까?
- 3) 3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인 비혼 여성의 대출 자격 불인정에 대한 견해와, 이에 따른 비혼 여성의 전세 자금 대출, 창업자금 대출 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공약이 있습니까?

3. 한국 사회 내에서 저출산 문제는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혼여성들의 출산권에 대한 사회적 보장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오히려 저출산의 주범으로 간주되는 등 정책적·문화적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기증받은 정자로 임신을 하려면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생식세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비혼 여성은 배우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출산에 있어 제약을 받게 됩니다.

또한 2007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개정된 ‘입양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비혼 여성 또한 입양이 가능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입양 기관들이 사실상 “정상 가족”의 잣대를 자격 조건으로 들고 있어 비혼 여성으로서의 입양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 비혼 여성이 입양했을 경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비혼 가정의 입양지원정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 1) 비혼여성의 출산권 및 양육권에 대한 귀 후보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2) ‘입양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비혼 여성의 입양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 3) 비혼 여성, 단독가구의 입양을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정책으로 어떠한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까?

질문 1.

1) 이성에 법률혼 및 혈연가족중심의 '정상가족' 개념에 대한 귀 후보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 : 가장 바람직한 가족은 이성간의 만남으로 이뤄지는 가정입니다.

2) 다양한 가족이 배제되지 않도록 국가 연금 및 공·사보험에서의 수급권자 지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공약이 있습니까?

답변 : 60세 이상 노인수당 70만원 지급 결혼수당 남녀 각각 5000만원씩 출산수당 3000만원 지급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핸드폰요금 각 5만원 무상지원 국민연금 폐지 자동차세 폐지 재산세, 상속세 36 가지 세금제도 모두 폐지합니다.

질문 2.

1) 비혼여성의 독자적 경제권이 차별받고 있는 현 정책에 대한 귀 후보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 : 여성들에게는 영농지도자격을 주지않는등 그에따라 금융차별까지 주고 있으나 제가 대통령이 되면 비혼여성의 독자적 경제권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촌의 비혼여성이 차별을 많이 받고있습니다. 비혼여성이 차별을 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2) 소수자 추가 공제 제도 폐지에 따른 비혼 여성들의 세금 과중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안이 있습니까?

답변 : 경제공화당은 36가지 세금제도를 폐지하여 서민중산층까지는 물건을 살 때 들어있는 소비간접세 비외에는 어떤 세금제도도 없어지므로 지금 비혼여성들과 중산 서민층이 부담하고있는 80%의 국가세금 부담률을 5%로 바꾸겠습니다.

3) 3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인 비혼 여성의 대출 자격 불인정에 대한 견해와, 이에 따른 비혼 여성의 전세 자금 대출, 창업자금 대출 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공약이 있습니까?

답변 : 비혼여성도 기혼남성과 금융세계면의 똑같은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3.

1) 비혼여성의 출산권 및 양육권에 대한 귀 후보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 : 비혼여성의 출산권과 양육권을 기혼여성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2) '입양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비혼 여성의 입양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답변 : 비혼여성이 아기양육에 대한 경제적 보장과 사회지도층의 보증이 섞이면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3) 비혼 여성, 단독가구의 입양을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정책으로 어떠한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 : 비혼여성입양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마련하겠습니다.

질문 1.

1) 이성에 법률혼 및 혈연가족중심의 '정상가족' 개념에 대한 귀 후보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 - 이미 우리 사회에는 이성에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 핵가족, 이른바 '정상가족'의 비율이 47%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절반 이상이 1인 가구나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비혈연관계의 공동체들입니다. 결혼과 가족의 의미는 달라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을 위해 이미 변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 동성애커플, 입양가족 등 결혼관계, 혈연관계로 맺어지지 않았어도 서로 보살피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들이 많습니다. 법률혼 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상호 부양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가족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가족법은 이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회정책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권리 보장 정책 뿐 아니라 이러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재산분할, 상속 등에 대한 분쟁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장치 또한 없는 상황입니다.
- 민주노동당의 가족정책 기조는 누구나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방식으로 함께 살 수 있는 가족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동반자등록법' 제정을 통해 동성커플, 이성 동거커플 등 다양한 가족 공동체의 법적·사회적 지위를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이와 함께 결혼·가족관계의 미형성·단절 등이 개개인의 삶의 안정성을 위협하지 않도록 돌봄의 사회화, 기초생활 보장 등을 확대하고, 성적 지향·가족상황 및 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2) 다양한 가족이 배제되지 않도록 국가 연금 및 공·사보험에서의 수급권자 지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공약이 있습니까?

답변 - 민주노동당은 '동반자등록법'을 제정하여 동성이든 이성이든, 두 명이든 그 이상 이든, 서로 성적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성년인 개인들이 서로 합의하에 지속적인 생활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일정한 등록절차를 통해 법적 '동반자'의 지위를 보장할 것입니다.

- '동반자' 가족에게는 상속권, 일상적인 가사대리권,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복지 수급권, 주택임대차 승계권 등 법률혼이나 법적 가족과 같은 권리가 보장되며, 직장, 학교,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일상생활에서 가족에게 보장되는 제도들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장기적으로 전 국민 1인 1연금을 현실화하고, 영국 NHS와 같은 보편적 의료보장체계를 갖춘다면 지금과 같은 수급권자 지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이라도, 동반자등록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법령 개정이나 해석을 통해 유족연금 수급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원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 2.

1) 비혼여성의 독자적 경제권이 차별받고 있는 현 정책에 대한 귀 후보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 - 법률상으로는나 관행상으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시민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비혼여성, 이혼여성 등 결혼상태에 있지 않은 여성에게 더욱 심각한 것이 현실입니다.

- 비혼여성, 이혼여성을 경제적 무능력자로 보는 관행은 사라져야 하며, 또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라는 명분으로 무조건 자녀를 여러 명 키우는 가족이나 노인부양 가족에게 세금·주택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은 오히려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반대합니다.

2) 소수자 추가 공제 제도 폐지에 따른 비혼 여성들의 세금 과중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안이 있습니까?

답변 - 세금은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며 그러한 원칙에 철저한 세금제도가 가장 올바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소수자 추가 공제 제도 폐지가 비혼자의 세금 부담을 과중시키기 때문에 무조건 차별이라고 보는 시각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지난 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소수자 추가 공제 제도 폐지, 다자녀 추가 공제 제도 신설은 소득이 많은 가구일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고 정작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의 경우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역차별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조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인적 공제 제도가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의 생계에 대한 책임을 가족 내 주 소득자에게 부과하는 원리에 기반하여 설계되어 있다는 점, 또 지출에 대한 공제는 결혼, 자녀 양육과 교육, 주택 마련 등 이른바 '정상가족'의 생애주기를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라 할 것입니다.
- 즉 소득세 책정이 가족의 특정한 인적 구성을 바탕으로 세제 혜택 부여함으로써 개인의 가족구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변화하는 가족 현실과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보다 형평성 있는 조세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3) 3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인 비혼 여성의 대출 자격 불인정에 대한 견해와, 이에 따른 비혼 여성의 전세 자금 대출, 창업자금 대출 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공약이 있습니까?

답변 - 대출 등 금융거래 자격에서 특정한 연령, 가족형태를 무조건 배제하는 조치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의 정비 뿐 아니라 사회적 관행을 바꾸기 위한 노력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 주택 등 제한된 자원 자체를 늘려 1가구 1주택 등 보편적인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해결책이라면, 단기적으로는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 연령과 가족형태, 부양가족수만을 우선적 기준으로 삼지 않는,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질문 3.

1) 비혼여성의 출산권 및 양육권에 대한 귀 후보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답변 - 부계혈통중심 가족제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여성이 단독으로 가구를 구성하고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호주제 폐지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부계중심 가족제도의 잔재(부성승계원칙, 혼인외 자의 구별 등)를 없애고 공보육 확립 등 여성이 혼자서도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 '입양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하여 비혼 여성의 입양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 답변 - 2006년 '혼인 중일 것'을 '양친될 자격'으로 규정하였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비혼자도 일정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친될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는 입양기관이 자체적인 심사 기준을 통해 양부모 자격을 판단하고 있어, 이른바 '정상가족'에서 벗어나는 동성애커플, 성전환자, 비혼자 등은 입양 자격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입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법령 이상의 기준이 되고 있는 개별 입양기관의 입양자격 조사기준을 새로 작성하고 표준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 될 자격', 아동의 복리와 인권이 존중되는 가정환경에 대해 각계각층의 논의를 수렴하고, 변화하는 가족구조를 고려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마련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비혼 여성, 단독가구의 입양을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정책으로 어떠한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까?

- 답변 - 입양 절차상의 위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함께,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 과 이를 고려한 지원 정책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 양친 모두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보육시설 및 유치원, 학교 운영의 관행을 개선하고 입양가정·한부모가족에 대한 모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한부모의 경우 입양휴가·휴직(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나 입양수당 지급 시 휴가·휴직 일수나 지급액을 가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1.

1) 이성에 법률혼 및 혈연가족중심의 '정상가족' 개념에 대한 귀 후보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 : 기본적으로 법은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아직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 주장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불합리하게 받는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의 극단적으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기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정상가족의 개념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의 민법은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의 개념을 바꾸기 위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민법의 기본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2) 다양한 가족이 배제되지 않도록 국가 연금 및 공·사보험에서의 수급권자 지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공약이 있습니까?

답변 :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비혼여성도 일정한 민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연금이나 보험에서도 그러한 개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역시 민법의 기본 체계 변화를 수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존 체도를 바꾸는 방식보다는 이러한 비혼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보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질문 2.

1) 비혼여성의 독자적 경제권이 차별받고 있는 현 정책에 대한 귀 후보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 : 비혼여성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가족구성 방식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법률혼은 이미 그 자체가 '법적인 책임과 권리를 포함한 선택'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은 가족에 대해 권리만을 특별히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가족구성 방식에 맞게 현행 제도를 전반적으로 수정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2) 소수자 추가 공제 제도 폐지에 따른 비혼 여성들의 세금 과중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안이 있습니까?

답변 : 현 정부의 소수자 추가 공제의 폐지는 결국 소수자 가구의 지원을 삭감하여 다자녀 가구 지원을

확대했다고 주장하는 문제성 있는 정책입니다. 이는 향후 전면적으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봄.

3) 3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인 비혼 여성의 대출 자격 불인정에 대한 견해와, 이에 따른 비혼 여성의 전세 자금 대출, 창업자금 대출 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공약이 있습니까?

답변 : 현행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도 없고 유효성도 떨어지는 정책입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계층의 주거 안정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조정이 필요함. 특히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전세 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한편, 전세자금을 조달하기에 신용이 부족한 계층을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신용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복지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3.

1) 비혼여성의 출산권 및 양육권에 대한 귀 후보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 : 비혼여성이 법적으로 차별받는 것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직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비혼여성의 출산권과 양육권을 확대하면 그 자녀들이 또 다른 차별에 노출되어 고통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이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점차 개선될 것입니다. 법, 제도적 변화는 이러한 사회적 추세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2) '입양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하여 비혼 여성의 입양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답변 : 비혼여성의 입양 보장 문제는 비혼여성 가정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된 후에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혼여성 가족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최소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입양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3) 비혼 여성, 단독가구의 입양을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정책으로 어떠한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양 대상 아동의 기본적 권리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이들 가족의 입양이 확대되는 경우, 입양된 아동들이 자라서 그러한 사회적 결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원정책은 전통적인 입양의 관점과 구분되는 개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질문 1.

1) 이성에 법률혼 및 혈연가족중심의 '정상가족' 개념에 대한 귀 후보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 : 가족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사회 변화에 맞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그 어떤 이유에서든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필수단위입니다만, 그 형태(독신 포함)는 개인의 자유와 의지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국가가 가족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형태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가족은 사회 구성단위로써 권한의 단위인 동시에 의무의 단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동성애 가족, 이성파트너십 관계, 공동체 가족 역시 현재의 법률혼 규정 외에라도 법적인 등록절차를 따르고, 그에 따른 권한과 의무를 함께 가져야 할 것입니다.

창조한국당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해 '동거가족 등록제도'를 만들고, 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 다양한 가족이 배제되지 않도록 국가 연금 및 공·사보험에서의 수급권자 지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공약이 있습니까?

답변 : '동거가족 등록제도'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 공동체가 국가 연금 및 공·사 보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등록 동거가족에게는 연금 및 보험수급권 외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복지 수급권, 상속 및 재산분할 등 법적 가족이 갖는 권한을 동등하게 보장하고, 민법 등의 개정을 통해 다양한 가족공동체가 국가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2.

1) 비혼여성의 독자적 경제권이 차별받고 있는 현 정책에 대한 귀 후보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 : 비혼, 이혼여성들이 겪는 제도적인, 정책적인 이중차별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수자 추가공제제도 폐지와 무관하게 다자녀가족, 노인부양 가족에 대한 세금·주택 등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지원도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국민에 대한 지원은 계속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향 평준화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혼여성, 이혼여성들의 독자적 경제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노인과 다자녀 부양의무를 지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를 똑같이 누리

지 못한다고 해서 이를 차별적 요소로만 인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소수자 추가공제 제도를 폐지해서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는 조세정책은 “밑돌을 빼서 윗돌에 개는 형국” 이므로 이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고, 또한 다자녀가족, 노인부양가족의 경우에도 소득별로 혜택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추후 조세형평성을 위해 전면적인 검토를 시행하겠습니다.

2) 소수자 추가 공제 제도 폐지에 따른 비혼 여성들의 세금 과중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안이 있습니까?

답변 : 세금정책은 국민 각 층의 소득과 지출의 특성을 고려한 형평성의 문제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혼 여성이라 할지라도 고소득 비혼여성과 저소득 비혼여성에 대해 똑같은 조세원칙을 적용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현 정부가 소득 계층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전체적으로 소수자 추가공제를 폐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 비혼여성, 이혼여성들을 고려한 추가 공제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 3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인 비혼 여성의 대출 자격 불인정에 대한 견해와, 이에 따른 비혼 여성의 전세 자금 대출, 창업자금 대출 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공약이 있습니까?

답변 : 35세 미만 비혼여성 대출자격 불인정은 여성은 결혼 전까지 부모와 함께 살고, 결혼을 해야 독립한다는 보수적인 인식에서 나온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혼 여성의 경우에도 독립적이면서 안정적으로 주거를 확보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전체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전세 대금, 창업대금 대출자격과 관련, 결혼유무, 연령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조항의 삭제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3.

1) 비혼여성의 출산권 및 양육권에 대한 귀 후보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 : 비혼여성의 출산권 및 양육권은 보장받아야 합니다. 덧붙여 비혼여성의 출산, 양육과 관련하여 비혼여성과 그 자녀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해소하고, 국가의 지원이 동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창조한국당에서는 비혼여성의 출산, 양육을 포함하여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위해 ▲한부모 가정을 위한 임대주택 제공, ▲직업훈련 과정 중 생계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2) '입양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하여 비혼 여성의 입양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답변 : 입양기관이 법률이 정하는 바를 위반하고 자체적으로 가족에 대한 자격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주의, 제재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개념, 입양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범정부차원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입양 대상 아동의 인권과 복리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3) 비혼 여성, 단독가구의 입양을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정책으로 어떠한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 : 기본적으로 이제 생명의 탄생과 양육의 문제는 사회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국민 모두가 함께 하는 돌봄의 사회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에서 제시했던 한부모 가정의 자립방안(▲한부모 가정을 위한 임대주택 제공, ▲직업훈련 과정 중 생계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 장학금 지원 확대)와 더불어서

- i) 돌봄 노동의 부담 완화(가족중심, 여성중심의 돌봄 노동을 사회적으로 분담/유아교육 3년(3~5세)의 완전무상교육 추진/가족 간호휴가제 도입)
- ii) 돌봄 노동에 효과적인 환경 조성(보육 및 양육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 및 재구성/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설치 및 확대)
- iii) 돌봄 노동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 체계를 마련/저소득 돌봄 근로자의 임금보전제도 실시) 등의 정책을 시행,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1.

1) 이성에 법률혼 및 혈연가족중심의 '정상가족' 개념에 대한 귀 후보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 : 이성에 법률혼 및 혈연가족중심의 정상가족 개념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독신 가구, 한부모비혼모 가구 등의 가족구성원들은 법과 제도로부터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나 성소수자들은 가족구성에 대한 권리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현실에서 다양한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정상가족 개념은 하루빨리 폐기하며 나아가 가족에 대한 정의 자체가 필요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아주 다양합니다. 가족을 법적으로 정의하는 순간, 이에서 벗어나는 모든 다양한 모습의 가족은 비정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2) 다양한 가족이 배제되지 않도록 국가 연금 및 공·사보험에서의 수급권자 지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공약이 있습니까?

답변 : 국가 연금 및 공·사보험에서의 수급권자 지정 범위의 확대는 가구 단위를 규정하는 현행법의 개정으로 해결의 단초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민 한국사회당 대통령 후보는 주민등록 단위 가구를 기준으로 실질 가구를 규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모든 정책을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헌법상의 가족 규정과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동체가 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질문 2.

1) 비혼여성의 독자적 경제권이 차별받고 있는 현 정책에 대한 귀 후보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 : 이는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평등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모든 국민은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국민을 진짜 국민과 이등 국민으로 나누어 끊임없이 차별하고 있습니다. 비혼여성이라고 누가 밥을 공짜로 주지도 않으며, 길거리에 천막을 치고 살 수도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비혼여성의 독자적인 경제권을 차별하고 있는 현재의 정책은 모두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소수자 추가 공제 제도 폐지에 따른 비혼 여성들의 세금 과중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안이 있습니까?

답변 : 세금은 사회연대적 성격과 형평성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당 정책위원회는 사회연대성과 형평성이 모두 만족될 수 있도록 소수자 추가 공제 제도에 대한 정책을 마련 중입니다.

3) 3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인 비혼 여성의 대출 자격 불인정에 대한 견해와, 이에 따른 비혼 여성의 전세 자금 대출, 창업자금 대출 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공약이 있습니까?

답변 : 대출 자격을 규정하는 항목 중에 차별을 내포하고 있는 항목을 삭제합니다. 전세 자금 대출과 창업자금 대출 시 배우자의 동의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비혼여성과 현행법상 혼인이 인정되지 않는 동거커플의 대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성별, 결혼여부, 그리고 나이를 대출 자격에서 삭제하며 대출 자격은 개인의 경제적인 상태만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질문 3.

1) 비혼여성의 출산권 및 양육권에 대한 귀 후보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 : 비혼여성의 출산권과 양육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저출산이 한국사회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떠들어대곤 하지만, 비혼여성이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려고 해도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비혼모 가구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민 한국사회당 대통령 후보는 앞으로 좀 더 채워가야 할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비혼모 가구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여성정책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입양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하여 비혼 여성의 입양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답변 : 입양 기관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비혼 여성의 입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당 정책위원회에서 좀 더 고민하고 논의하여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비혼 여성, 단독가구의 입양을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정책으로 어떠한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 : 무엇보다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한 해체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정상가족 개념을 해체하는 것과 함께 단독가구와 동거커플이 입양할 수 있도록 ‘입양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합니다. 더불어 입양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들을 조성하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전담부서를 설치합니다. 프로그램은 크게 가족의 정서 안정과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으로 구성합니다.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복지정책과 교육정책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 (6)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 질의서 답변 없음

양날의 차별.. 레즈비언과 비혼여성

[대선후보들, 성소수자 인권과제 좀 들어보슈](4) - 여성 성소수자

데조로 (한국레즈비언상담소), 나방 (언니네트웍)

결혼하지 못한 여성? 결혼하지 않음을 선택하다

올해 초, 언니네트웍에서는 1회 비혼여성축제를 통해 그동안 사회적으로 비가시화 되어 있던 비혼여성들의 목소리를 이끌어내고, 선언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비혼여성이 단지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의 소소한 커뮤니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별과 억압에 반대하고 더 많은 여성들이 결혼제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상상할 수 있는 운동의 중요한 쟁점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이 자리를 통해 비혼을 선언하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던 나 자신 역시 복잡한 심정이 들었던 것은 ‘레즈비언’이라는 정체성 때문이었다. ‘레즈비언에게 결혼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의문과 함께, ‘스스로 박탈당한 권리에 대해 합리화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레즈비언 여성들이 남성성소수자와 위장결혼을 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거나, 결혼하라는 집안의 압력에 시달린다는 주변 레즈비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레즈비언 여성은 결국 ‘결혼제도-여성’이라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중의 억압 속에 위치하고 있음을 절감하게 된다.

‘결혼’이라는 제도는 그것을 선택한 사람과 선택하지 않은 사람, 혹은 선택하지 못한 사람들을 분열시킨다. 여성들은 ‘결혼한 여성’이라는 지위를 획득해야만 가정과 사회, 국가로부터 온전한 성인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법률혼 및 혈연가족 중심의 가족개념 때문에 국민 연금 및 유족 연금, 공·사보험 내에서 비혼 여성이 수급권자를 자의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지난 2006년부터 소수자 추가 공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비혼 여성 및 이혼 여성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였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혹은 근로자 서민 주택 구입 자금 등 영세민 전세 자금 대출권자의 자격 요건 상 3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인 비혼 여성은 대출권자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입양 및 출산권에서의 배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성애중심’적이며 ‘정상가족 결혼이데올로기’로 똘똘 뭉쳐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합리적이고 편협한 ‘이성애부부, 정상가족중심’의 정책과 제도는 레즈비언 여성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결혼’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는 무력감과 ‘이등시민’이라는 낙인을 부여한다. ‘내가 정말 비혼을 선택할 수 있는거야? 레즈비언은 결혼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 선택권이 있어?’ 라는 의문이 레즈비언들로 하여금 비혼여성으로서의 자긍심과 운동성을 위축시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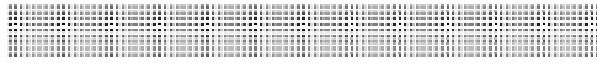
비혼여성운동과 여성성소수자 운동이 만나는 지점은, 기혼/미혼이라는 경계로 여성의 지위를 분열시키는 국가적 체제를 변화시킴으로써 더 많은 여성들이 성정체성, 결혼유무를 떠나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상상할 수 있게 하는 점일 것이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정치적 차별이 존속되는 한, 여성 성소수자들은 동성애 혐오와 여성차별이라는 이중의 억압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레즈비언으로서 당당히 비혼을 선택하고, 선택한 삶을 통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비혼여성들의 경제권과 사회적 지위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
- 참세상 기사에는 ‘레즈비언 인권실태, 세대별로 상황 달라-테조로(한국레즈비언상담소)’가 함께 게재되어 있으나, 이 자료집에는 ‘결혼하지 못한 여성? 결혼하지 않음을 선택하다-나방(언니네트워크)’ 부분만을 게재합니다.
 -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참세상이 생산한 저작물은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를 따릅니다.

- 2007년 12월 15일 - [감자모임] '비혼여성, 정치적 주체로 거듭나기' :: 홍보문

열린 감자



언니네트워크 | www.unninet.net

12월의 열린 감자 : "비혼여성, 정치적 주체로 거듭나기"

비혼 감자 모임은 끝나지 않았다.(두둥!)
2007년의 화려한 대미를 장식할 감자 모임에 언니들을 초대합니다

바야흐로 선거철인데, 다들 고민 있으시죠?
도대체 누구를 뽑아야 하나??
내가 찍은 그 후보가 당선된다 한들 비혼 여성의 편에서 좋은 정치를 해줄 것이냐!!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 이외에 비혼 여성이 더 잘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대선을 앞두고 이러저러한 생각이 더 많이 스쳐가는 요즘입니다. 언니들은 어떠신지요?

언니네트워크는 작년 초부터 '비혼 여성'을 이슈로 여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세 차례의 감자모임(2006년 8월 '비혼을 비혼이라 부르지 못하고...', 9월 '비혼 맞춤형 경제생활', 10월 '비혼 차별적 제도, 이건 아니잖습니까!')을 통해 **현재 한국사회에서 비혼여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함께 인식해보는 자리를 가졌구요. 그 흐름을 이어 2007년 3월에는 '1회 비혼축제'를 열어, 우리가 비혼여성으로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신나게 풀어보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는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비혼 여성은 이기적인, 혹은 어딘가 부족한 존재라는 인식이 사회 곳곳에 고스란히 스며 있는 현실임에도, 정작 비혼 여성들은 비혼이기에 해야 할 일도 책임져야 할 것도 많으니 우리의 목소리를 더 많이 모아내기란 참 녹록치 않았지요.

하지만 계속 해봐야하지 않겠습니까?
이름하여, '비혼 여성의 정치 세력화'.
비혼. 정치. 세력... 조금은 낯선 단어들의 조합이지만, 그리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단지 비혼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아야 하는 부당한 편견과 차별을, 더이상 개 개인의 비혼들이 감내하지 않는 것. 대신 함께 목소리를 높여 그것들을 바꾸고, 함께 놀며 문화를 만들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2회 비혼축제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으니, 많이많이 와주세요!!

발제

1. 언니네트워에서 비혼여성운동하기 - 난새 (언니네트워 대표)
2. 비혼/여성, 정치의 이등시민 - 김향수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여성부장)
3. 비혼여성의 가족구성권을 위한 즐거운 운동 - 나비야 (언니네트워 액션나우팀)
4. 비혼여성 공동체를 꿈꾸며 "여성주의 의료생협" - 무영 (언니네트워 액션나우팀), 어라 (언니네트워 사무국장)

p.s

액션나우팀에서는 이번 감자모임 준비의 일환으로, 각 대선 캠프에 '비혼 여성 정책' 관련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각 선거 캠프에서 보내온 답변을 이날 공개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일시 : 2007. 12. 15. (토) 오후 4시 12분(감자타임!!)

장소 : 아이샵센터(종로3가역 1번출구 종로 아이샵센터) "<오시는 길 클릭~>"

연락처: 011-9666-7275 / ssjin27@hanmail.net (쌤)

* '열린감자' 모임에는 언니네트워 회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언니네트워 (121-818)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84-6 대재빌라 302호 | Tel. 02-3141-9069

언니네트워킹에서 비혼여성운동하기

난새 (언니네트워킹 대표, 소통과공감팀)

‘언니네트워킹의 비혼여성 운동 역사’를 주제로 한 발제를 청탁받고,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비혼감자모임을 시작했을 때? 회원 워크샵에서 ‘비혼’을 단체의 중심 의제로 선정했던 때? 아니면 여성가족부에 대한 반대 성명을 냈을 때? 그러다 자꾸 자꾸 머릿속의 필름들이 거꾸로 돌아가 결국 언니네트워킹의 시작을 궁리하던 시절까지 회귀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왜 케케묵은 옛날 얘기부터 읊어야만 하는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언니네트워킹은 어쩌다 생겼을까?

아시다시피(모르셨다면 이번 기회에!), 언니네트워킹은 여성주의 사이트 언니네(www.unninet.net)를 기반으로 2004년 11월 27일, 첫 불을 지핀 여성단체입니다.

2000년에 문을 연 언니네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회사로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체로서의 전망을 접고 비영리 사이트로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죠. 그리고 2003년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성주의자 혹은 여성주의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오픈되어있는 사이트를 NGO로 운영하기에는 벽찬 난제들이 존재함을 느끼게 되었죠. (비영리단체가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비영리단체는 ‘언니네’ 사이트 그 자체였거든요.) 예를 들어 ‘단체로서 어떤 특정 사안에 의견이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언니네 회원 4만명(당시 회원수, 지금은 5만명이 넘는답니다. ^^) 모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여성주의 단체인 언니네트워킹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점과 지향을 보다 분명히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런 물음표가 던져지겠죠. ‘대체 언니네트워킹으로 분명히 표현하고 싶은, 다른 관점과 다른 목소리는 무엇이었는가?’

언니네트워킹, ‘비혼여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다.

어쩌면 언니네트워킹이 첫 불을 지피던 날까지도 운영진이나 회원들 중 그걸 정확히 콕 꼬집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놀랍게도 한 달 만에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2005년 새해 벽두에 열린 수다번개의 뒤풀이에서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보를 공유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액션나우팀에서 아심차게 준비한 ‘월례토론회 감자모임’의 첫 번째 주제는 ‘심란하다, 여성가족부(2005년 2월 23일 개최)’가 되었습니다. 언니네트워킹은 이 토론회의 결과물로 <다양한 삶의 형태를 선택할 권리, 여성이 가족구성원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행복할 권리를 위해 여성가족부에 반대합니다!>는 릴레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언니네트워킹이 내지른 첫 번째 다른 목소리였죠. 언니

네트워크가 ‘여성가족부 반대’ 성명서를 준비하던 그 즈음, 어느 유력한 여성단체에서는 ‘여성가족부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으니깐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일회성의 토론회와 성명서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성을 가족의 틀 안으로 기어이 밀어 넣고 말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사악한 의지 표명을 접하면서, ‘정상가족의 바깥에서 공동체를 꾸리며 살고 있는 혹은 가족을 구성하지 않은 비혼 여성들의 삶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시작되었으니깐요.

‘비혼’ 모여라!

다음해(2006년) 1월, 언니네트워크 회원 워크숍 및 총회에서는 열띤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바로 ‘언니네트워크 운동의 핵심 주제’를 설정하기 위해서였죠. 그 자리에서 <한국 사회의 비혼 여성 차별에 대한 저항>이 주요 운동 과제 중 하나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를 더욱 깊이 있고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액션나우팀에서는 ‘비혼’을 화두로 2006년 8월부터 10월까지 세 차례의 감자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비혼인의 사회적 위치와 범주를 고민한 첫 번째 감자모임은 다양한 비혼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고, 후속작업으로 언니네에 ‘비혼으로 함께 잘살기 www.unninet.net/jalsalza’ 살롱을 열어 더 많은 비혼인들과의 교류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비혼 맞춤형 경제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두 번째 감자모임, 비혼 차별적 제도를 점검하고 문제의식을 고취시킨 세 번째 감자모임은 비혼 이슈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일깨우는 기회가 되었죠.

비혼, 꽃이 피었습니다.

그 깨우침을 바탕으로 언니네트워크는 ‘비혼인들의 축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3월,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1회 비혼여성축제>를 통해 지금까지 ‘미혼’이란 이름에 갇혀 불완전한 존재로, 사회적 성인(成人)이 되지 못한 존재로 인식되어 온 비혼인들은 사회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비혼들만의 새로운 통과 의례를 만들고, 비혼으로 살아온 그리고 살아갈 서로에게 축하와 고마움의 마음을 전하고, 비혼들만의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면서 말이예요.

결혼하지 않겠다고 백번쯤 선언해도 ‘너는 언제 결혼할건데?’라는 백 한 번째 질문이 돌아오고, 친구들과 공동체를 만들어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 거라는 기막힌 포부를 밝혀도 ‘늙으면 그저 남편(아내)이 최고’라는 맥 빠지는 소리나 들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비혼여성 운동은 이제 시작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참으로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거기 멋진 언니! 언니네트워크에서 비혼여성운동 함께 하지 않을까요? ^^

비혼 · 여성, 정치의 이등시민

김향수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부장)

1. 비혼 후보 vs 미혼 후보

- 사회적 시선
 - 비혼이 아니라 미혼, 아직 결혼하지 않은 후보.
 - <비혼 남성 - 남자가 주변머리가 없어 아직도...>
<비혼 여성 - 여자가 얼마나 독하면 / 지 잘난 맛에 ...>
- 강금실 vs 오세훈 서울시장후보
-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
 - : 출마 당시 “뽐아주시면 임기 중 결혼해서 애도 낳고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겠다”
 - 결혼 당시 인터뷰 “유권자들과 약속을 지켜서 기쁘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②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신설 2005.8.4]

제68조 (어깨띠) ①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를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 비혼 · 여성의 피선거권, 출발선부터 다르다!

- : 과거와 변화된 다양한 가족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남성 출마자와 헌신적 내조를 하는 주부인 여성 배우자를 모델로 하고 있음. 특히, 60조의3은 (혼인신고를 한)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어찌하란 말인가?
- : 가족이란 삶을 공유하는 공동체라기 보다는 배우자, 결혼제도와 배우자라는 존재가 이성애를 전제로 한 개념.

3. 2007 대통령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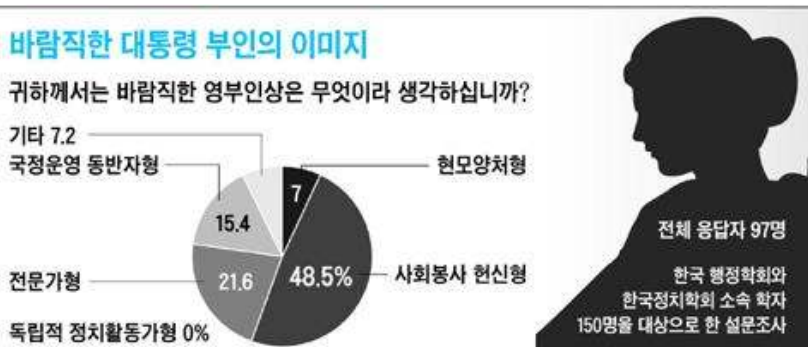
1) 실종된 여성 공약 (성평등사회비전)

- 후보와 정당의 정책비전보다는, 누가 막판까지 레이스를 뛰는지(후보단일화), 대선후보 비리의 진위 여부로 진흙탕이 되어버린 선거.
- 이번 대선에서 여성공약은 주변 중의 주변의제가 되고 있으며, 그나마 발표된 각 당의 공약들도 선명성 부각에 집중되어 있어, 여성의 삶의 질 개선과 성평등사회 비전에 대한 총체적 전망에 대한 입장차는 가시화되지 못함
- 정동영후보는 ‘행복한 여성, 행복한 가족,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기치 하에 100대 여성공약 발표, 이명박 후보는 ‘양성평등사회가 됩니다’는 제목 하에 여성경제활동관련 공약 발표. 보수정당 여성공약은 출산?육아, 일자리, 일가족 양립 측면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이전 정부가 표방해온 이른바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일맥상통하고 있음.
- ‘신가족주의’란 이름으로 혈연가족과 가부장적 제도를 강화하려는 일련의 공약들이 제출됨

이명박 “신혼부부 내집마련 지원정책”

- 목적 : 신혼부부세대의 보호 및 육성 /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대비
- 지원대상 : 34세 미만의 주 출산연령(여성) 세대, 무주택 세대, 수도권 및 광역시 거주세대

2) 후보 부인은 내조나하란 말인가?



대통령 후보 부인의 선거 영향력

귀하께서는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 부인이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내조’ 잘하는 여성이 되라! : 후보자 부인의 일상 소개, 만남에서 결혼까지, 근검절약, 요리실력 자랑, 하루 밀착취재를 통해 내조 잘 하는 현모양처 재현.
- 주부들은 후보나 그 부인들의 일상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편견에 치우쳐, 실생활과 관련된 후보들의 공약을 설명해 주거나 정책 비교는 사라짐.
- 육영수 모델링 남발 vs “자기 색깔을 갖고 독자적 활동하는 파트너”는 시기상조
- 영부인, 성별중립적인 파트너 호칭 필요.

4. 제언

-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의 중간점검 필요. 여성주의 정치세력화의 전략을 재설정해야 함.
- 여성정치세력화라는 여성들 몇몇이 기존 정치권에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적 정치문화에 대한 저항과 성평등 사회에 대한 새로운 틀을 제시하는 패러다임 전환
- ‘정치란 것을 사회를 어떠한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구성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힘과 싸움의 구도라 정의한다면, 사회적 변화는 여성의 삶을 다양화 시킴. 다양한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시민권을 확장하기 위한 일상적 ‘정치참여’를 확대하여야 함.
- 현재 기혼남성 모델로 그려진 가부장적 공직선거법 개정도 필요함.

비혼여성, 그리고 가족구성권

나비아 (언니네트워크 액션나우팀)

정상가족, 지극히 비정상적인

가족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모 대통령 후보의 선전문구가 무색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가 말하고자 하는 '가족'의 범주에 대한 고민 때문일 것이다. 기존의 사회적 가족개념은 이성애 혼인관계를 중심으로 한 혈연중심의 배타적 관계를 의미했다.

이러한 '정상가족'이테올로기는 생계를 부양하는 남성가장을 필두로, 가사전담자 혹은 경제적 조력자로서의 여성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다. 국가는 이러한 가족체계를 기반으로 여성들이 만들어내는 무보수 노동의 수혜를 톡톡히 받아 왔다. 국가가 기본적으로 전담해야 할 복지체계가 대부분 이 가족주의의 중심에 있는 여성들에게 전가되어왔기 때문이다.

성별분업화 된 가족개념과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근간으로 하는 복지정책은 여성의 수입을 보조적인 것이나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할 뿐 아니라, 이성애 혼인제도에 근거하여 가족관계를 인정함으로써 동성가족,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가족들을 배제해 왔다. 이러한 정상가족에 포섭되지 않을 경우 가족수당, 상속, 연금제도의 수혜자가 될 수 없거나 조세제도에서도 무수한 불이익을 감당해야 했다.

이러한 편협한 가족제도, 여성의 무보수 노동을 담보로 한 부실한 복지체계, 가부장적이고 위계적인 가족 질서는 이제 수많은 여성들에 의해 선택적으로 거부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는 여전히 '따뜻한 안식처'로서의 가정을 강조하고, 남성가장과 그의 피부양자로 구성되는 가족형태를 정상으로 대변함으로써 식상한 정상가족 이테올로기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러한 가족제도의 유지방편으로 제시되는 것들이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지원', '출산에 대한 지원금'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은, 가족에 대한 국가적 상상력이 얼마나 빈곤한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이러한 정상가족 이테올로기의 중심축인 '결혼'은 여성들은 기혼/미혼으로 분리시키고 대립시킨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언제까지나 미성숙한 존재일 뿐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이등시민으로 간주된다. 여성들로 하여금 '결혼'을 담보하지 않으면 자립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비혼여성들이 받는 사회적 차별은 결혼중심의 가족체계, 가부장적 사회체계가 복합적으로 작동시키는 차별의 종합선물 세트이다.

비혼여성들에게 가족은 무엇인가

비혼여성들에게 가족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처럼 다가온다. 비혼여성 내부에는 다양한 차이와 정체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독신으로 살고 싶은 여성, 파트너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꾸리고 싶은 여성, 성적 결합이 없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여성 등 각기 위치와 성향마다 삶에 대한 형태가 다르고 필요로 하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8월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의 사례조사팀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결혼제도에 포섭되지 않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형태와 가족형태, 제도적 욕구 등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현재 삶의 형태와 파트너 유무, 앞으로의 삶의 지향 등 각기 자신의 위치에 따른 다양한 입장에 대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기본적으로 국가가 개인들을 가족단위로 묶어 관리하는 복지시스템을 거부하며, 철저히 개인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현 시스템 안에서 기본적인 가족구성원으로 보장받고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 기존의 정상가족이 누려온 복지체계를 해체해야 한다는 입장 등 새로운 가족체계에 대한 생각은 저마다 달랐다. 그러나 이성애중심적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국가가 전담해야 하는 복지분야에 있어 개인에게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통적인 지적이었다. 또한 동성애 파트너 관계에서 가족인정체계에 대한 욕구도 기존의 이성애결혼제도에 대한 편입을 의미하지는 않았으며, 좀 더 확장된 의미의 파트너십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상가족 밖에서 가족체계를 고민한다는 것은 기존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주체적인 행위임이 분명하다. 국가와 사회가 상정하는 가족주의는 단기간의 전략만으로는 해체되지 않는 견고한 틀일 것이다.

비혼여성들의 비혼선언은 어쩌면 비혼으로 살아가기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결혼하지 않음을 선택하는 것이 이 사회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적나라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배타적인 가족개념과 이를 기반으로 한 사회체계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비혼으로 함께 잘살기’는 끊임없는 현실문제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비혼여성들은 성적체성, 계층, 사회적 지위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이루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가족개념은 ‘법률적 관계’에 구애받지 않는 친밀성과 사랑의 정치를 요구한다.

최근 모 정당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동반자 등록법’은 기존의 이성애중심적 혼인제도의 틀에 도전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구성권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구성권과 관련한 법률제정, 사회적 인식 확산이 또 다른 형태의 ‘가족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상상력과 대안이 필요하다. 개인과 가족의 자유로운 결합형태, 가족 내 여성들에게 부가되는 보살핌노동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 그리고 여성들의 독립적인 경제권과 사회적 지위가 보장될 때 비로소 가족에 대한 새로운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비혼여성 공동체를 꿈꾸며, “여성주의 의료생협”

무영 (언니네트워크 액션나우팀) 작성

어라 (언니네트워크 사무국장) 발표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편하게 내 얘기를 하려구 합니다. 난 처음엔 공대를 다녔어요. 대학교 1학년 겨울 방학 성폭력 상담소에서 잠시 자원활동을 하게 되었고, 분노와 동일시, 착잡함 등등 수만 가지 감정들을 경험하면서 확 째었습니다. 이듬해 그때의 짧은 상담소 자원 활동 경험이 바탕이 되고 평소 여자가 살 길은 전문직밖에 없다고 외치던 내 엄마의 말씀이 양념이 되어, 결국 의대 입학 시험을 다시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왜 공대에서 의대로 옮겼냐고 누가 물으면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했죠. “여성들을 위한 병원을 만들고 싶다고!”

정작 의대에 들어와선 학교 다니기 싫어 몇 번 휴학하고 몇 번 유급했더니 한 십년이 지나가 있습니다. 10년쯤 지나고 보니 내가 옛날부터 만들고 싶어 했던 ‘여성 병원’, ‘여자들을 위한 병원’들이 여기저기 생기더군요. 시설도 짱! 서비스도 짱! 여자 의사 필수! 여성들을 위한 병원, 최고의 의료서비스로 여성 고객을 여왕으로 모시는 병원들이 줄줄이 들어서 생필품처럼 되어버린 후에야 나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렸던 병원이 그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째든 여성병원은 여성병원이고, 그 병원들 덕에 여성들의 의료서비스 선택의 폭이 한참 넓어진 것 또한 사실이긴 하네요.

여성병원, 여성병원 노래를 불러왔으나 정작 한국에 자리잡은 여성병원들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던 나에게 “의료생협”이라는 새로운 조직 형태를 누군가가 소개시켜 주었어요. 참 매력적으로 보였죠. 의료생활협동조합, 지역 주민들이 돈과 의지를 모아 의료시설을 직접 설립하는 것. 의료시설의 운영 방침은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회의를 통해 결정되고, 시설을 설립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투자한 데 따르는 이익(일종의 배당금?)은 다시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거나 공공의료를 위해 쓰이게 됩니다.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쓸 지는 모두 조합원들이 결정을 하게 되고, 어떤 의료인을 고용할 것인지, 병원에 어떤 장비를 마련할 것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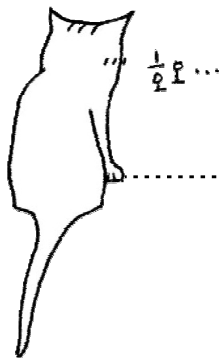
이거야말로 단순히 ‘여성들을 위한 병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는 사실 거대 병원 자본의 움직임에 따라갈 수 없어요) ‘여성들이 만드는 병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점이야말로 단순한 의료서비스의 고객으로 전락해버린 (아무리 비싸게 대우받는 “고객”이라고 할지라도!!) 여성/환자들이 의료의 진짜 주체가 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들고 싶은 조직이 여성병원에서 자연스럽게 여성주의 의료생협으로 옮겨가면서, 그 조직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내 상상도 함께 변했나 봅니다. 이상하게도 내 상상이 여성병원에서부터 여성주의 의료생협으로 옮겨간 이후, 나는 별로 ‘기혼’ 여성들을 상상 속에 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성병원을 만들 생각을 할 때만 해도 ‘여성들에게 호의적인 산부인과 진료, 출산 문화’ 등을 상상하기도 했었는데 말이죠. 비혼 여성 네트워크, 비혼 여성 정치세력화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시켜 나가면서

발견하게 된 사실은, 내가 애초에 단어를 가지지 못하여 정의할 수 없었던 ‘여성들의 병원’에서의 ‘여성’이라는 존재가, 우리 사회 정상 가족 내에 편입되어 있는 ‘기혼 여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말마따나, ‘비혼 여성’이라는 얘기를 듣고 난 이후로 새롭게 ‘아하, 내가 해왔던 (혹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운동이 바로 비혼 여성 운동이었구나’하고 깨달았다고 하듯이 말입니다. 나 역시 ‘아하, 바로 내가 만들고 싶었던 여성주의 의료생협이 비혼 여성들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구나’라고 느낀 것입니다.

뭔가 구체적인 얘기들은 하나도 하지 못했네요. 음... 조합원들이 각각 10만원 이상씩, 또는 매달 얼마씩 조합비를 낸다고 칩시다. 그 돈으로 병원을 마련하고 여성주의에 열의가 있는 의료인들을 고용하는 거죠. 병원은 비혼 여성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에 지으면 좋겠네요. 길목 어귀 어딘가에 있는 병원은 조합원들의 택비를 대신 수령해주시기도 하고, 조합원들이 놀러와서 이런저런 수다를 떨며 놀 수 있는 카페를 자그마하게 운영하기도 하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번 무료 건강검진 사업을 하구요 (초음파와 내시경 등), 여성 노동자들의 장기 농성장에 의료지원을 나갈 수도 있겠지요. 규모가 좀 더 커진다면 야간에 성폭력 위기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의료생협 부설 여성건강연구소 이런 것도 재밌지 않을까요? 아, 정말, 이런 상상은 직접 얼굴 마주보며 얘기해야 여러 아이디어들도 퐁퐁 솟고 그러는데, 아 쉽네요. 그건 발제하시는 분이 잘 알아서 커버해주시리라 믿고.

어쨌든 비혼 여성 네트워크! 그리고 여성주의 의료생협!! 의료라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을만한 분야에서 비혼 여성들이 주체가 된다면, 자신의 몸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누릴 조직을 만들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진짜 “자치”가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난 저번 액션나우팀 회의 시간에 비혼 여성운동이야말로 가장 급진적인 여성운동의 모델인 것 같다고 주저없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무엇인가 필요한 것들을 정부에, 혹은 남자들에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아예 우리에게 필요한 조직들은 우리가 갖춰나가는 거, 그래서 분리주의를 주장하기 이전에 아예 실천하고 있는 거, 우리끼리 얼마든지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 그런 게 비혼 여성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의료생협도, 그래서 비혼 여성들의 네트워크가 꼭 만들어졌으면 좋을 멋진 조직이라 생각하고요.



비혼, 다섯 번째 페이지

비혼임을 드러냄과 동시에
소중한 타인에게, 그리고 나와 같은 다른 여성들에게
'새로운 관계에 대한 상상력'으로 훨씬 더 행복해 질 수 있다고-
말을 걸어봅니다

이렇게, 언니네트워크 비혼운동은 현재진행형입니다

-
- | | | | |
|-------|------|--|--------------------------------|
| 2008년 | 5월 | | 2회 비혼여성축제 '비혼, 그 입술을 열어요' |
| 2008년 | 7월 | | [칼럼] '우쭈 플리즈 비혼할래~?' |
| 2009년 | 2~5월 | | [칼럼] '비혼열전' (1)-(3) |
| 2009년 | 6월 | | [발표문] '비혼이야기' |
| 2009년 | 6월 | | [발표문]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그녀들, 비혼 여성' |
| 2010년 | 3월 | | [비혼세미나] '비혼의 집단 현상, 적극적으로 읽기' |

독신 여자들은 특정한 나이에 이를수록
더더욱 특정한 행동을 하게된다
그리고 그 특정한 행동이라는 것은
꼭 결혼반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섹스 앤 더 시티> 중

어쩌면 독립성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살아갈 능력이 아니라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도 자기 자신일 수 있는 유연함
폐 끼치면서도 자존감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힘
타인이 폐를 끼쳐올 때 그것을 관계의 기회로 생각할 수 있는 개방성일지도 모른다
- 시타 <언니들, 집을 나가다> 중

비혼의 삶은 자기만의 정원을 가꾸는 것과 닮아 있다
지금의 나는 한 손에는 희미한 구상도를, 다른 한 손에는 삽을 든 정원사다
삽질을 거듭하다보면 물집이 생기고, 때론 내 발등을 찍기도 하지만,
삽질을 통해 나의 근육은 단단해지고, 정원의 흙은 부드럽게 몸을 열어준다
무모하고 철없어 보이는 '삽질'을 통해 나의 정원은 내 속도대로 성장한다
- 강위 <언니들, 집을 나가다> 중

2008년 5월 25일

2회 비혼여성축제 '비혼, 그 입술을 열어요'

● 2008년 5월 25일 - 2회 비혼여성축제 '비혼, 그 입술을 열어요' :: 홍보문

2008 비혼여성축제
2008년 5월 25일(일) PM 4:30
홍대입구 롤링홀

**비혼,
그 입술을
열어요**

우쭈 플리즈
비혼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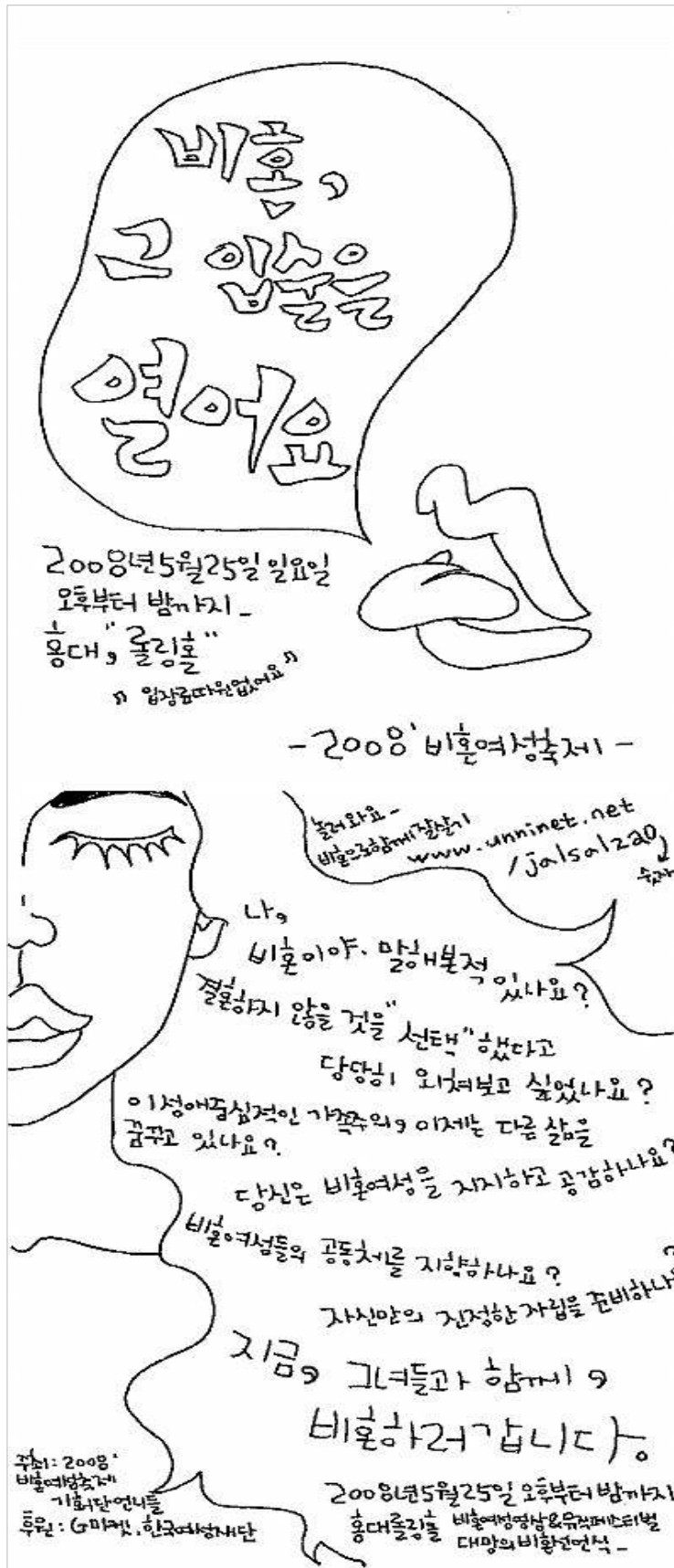
<p>the B word 4:30~ 전시 함께 그리는 비혼 역사 속 비혼여성찾기! 비혼열전 언론 속에 비친 비혼 침여코너, 결혼주심사회에 탈출선달기</p>	<p>2부 7:00~ 비혼 퍼포먼스 비혼에 관한 예측불허 앙케이트 엇달리기와 비혼 프로젝트 비혼 지지선언, 그리고 비혼뽀쪽~</p>
<p>1부 5:00~ 비혼영상제 우리들의 비혼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다큐멘터리 <비혼 프로젝트> 영화 <고양이들></p>	<p>비혼 음악제 운동으로 비혼을 노래하다 말없는 라디오, 시와, Zenith Trail, 스윙시스터즈의 공연!</p>
	<p>3부 9:30~ 국수먹는날! 오~래 비혼해라~</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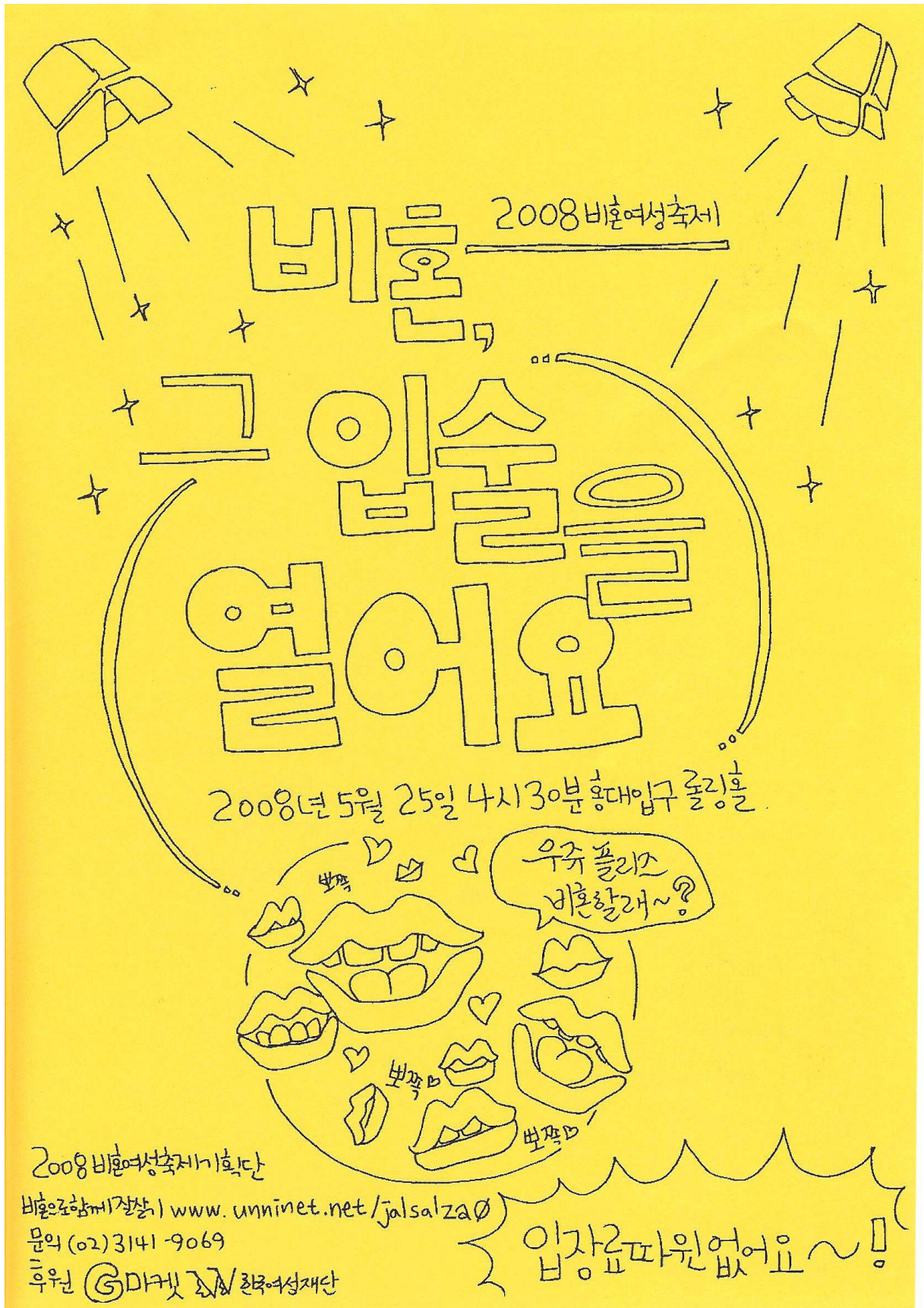


2008 비혼여성축제 기획단
후원 G마켓 W 한국여성발전
비혼으로 함께 질살기 <http://www.uninet.net/jalsalza0>

- 2회 비혼여성축제 기획단 (나비아, 더지, 신치, 몽, 캔디, 이감독, 슬로모, 강뚜경, 하루, 차이, 풍경, 승지)

● 2008년 5월 25일 - 2회 비혼여성축제 '비혼, 그 입술을 열어요' :: 리플렛 (1)





우주플리즈 비혼할래~?

미혼? 기혼? 비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혼여성들은 단지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이와는 관계없이 미성숙하고 미완된 존재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미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완전한 한 사람의 독립된 성인이 아닌 불완전한 존재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대서" 우리는 비혼(非婚)이라고 말합니다. 비혼은 누구나 결혼해야 하고, 결혼하고 싶어한다는 고정관념에 물음을 던집니다. 비혼은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숙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는 편견에 반대합니다. 비혼은 이성간 결합만 허용하는 협소한 혼인제도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비혼은 누구나 원하는 방식으로 살 자유와 권리가 있다는 우리 자신의 선언입니다.

2008년 5월 25일 비혼여성축제 "비혼, 그 입술을 열어요" 취지문에서 -

2008년 5월 25일 일요일 오후 4:30부터 ~

the Bword: <전시> 함께 그리는 비혼

4:30 ~

- 역사속 비혼여성찾기! 비혼연결
- 얼굴속에 바친 비혼
- 참여코너, 결혼중심사회에 맞선 달기

5:00 ~ 1부: 비혼영상제

우리들의 비혼이야기를 소개합니다

→ 다큐감독리 "비혼프로젝트" 감독 - 송지
Synopsis 우리주변에는 어떤 비혼연인들이 살고 있을까? 다양한 비혼여성들의 삶이 그려져야 한다. '나'는 그녀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관계 맺고 있을까? '비혼'이 끊임없는 감독의 비혼프로젝트 -

2008 비혼여성축제 그 입술을 열어요

2008 비혼여성축제 "비혼, 그 입술을 열어요"

2008 비혼여성축제 기획단은 언니네비혼살롱 '비혼으로 함께 살자' www.unninet.net/jalsalza를 기반으로 모인 비혼여성 언니네비혼살롱입니다. D

비혼여성영상제 & 비혼여성음악제 & the Bword: 전시회 & 비혼여성퍼포먼스 & 비혼피로연 등!! 그녀들의 무내박 향연에 꼭~ 비혼해보아요.

기대평화위원회

2부: 7:00 ~ 비혼퍼포먼스

비혼에 관한 여객불어 양키이트 & 비혼자지선언 & 그리고 비혼프로포자 and 비혼프리그 & 비혼뽀족

비혼음악제: "웬몸으로 비혼을 노래하다"

"사람들은 외면하며 제발살만 비배가던데
기분좋은 여자들만이 비싼살에 희망을 사줄" **말없는 라디오**

"당신의 따뜻한 그말 한마디에 우주를 위안할
선율을 읊어줄" **시와**

"너러도 난관항아 동가면 그거언때
I believe in me I believe in me" **Zenith Trail**

"참을 수 없는 쓰윽의 즐거움 &
그녀가 그녀를 만났을 때" **스윽시스터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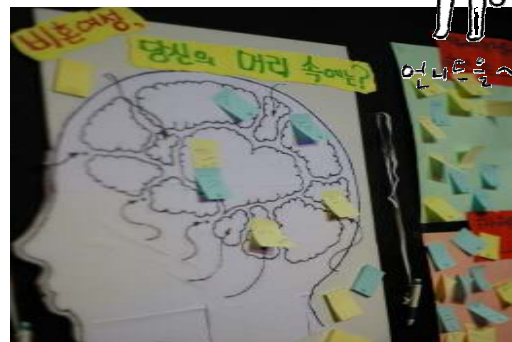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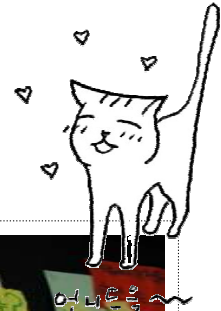
→ 영화 "고양이들" 감독 - 평경
Synopsis "언나 나 독립할까요", "남자없이 아이를 기를 수 있다면"
"우리 결혼하자", "넌 대체 결혼이 뭐라고 생각하?"
혼자만의 공간을 통해 자립을 꿈꾸는 시과, 남자없이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치과 의사, 언나와는 관계를 결혼으로 지목시키고 싶은 상상 그리고 그녀의 그녀와 비혼여성들 내부의 다양한 차이를 기반으로 그녀들이 살아 사할 담을 '고양이들' 때문 외롭거나 쓸쓸하고, 불안하거나 어둡다는 그녀들이 바란 '당신 결혼' 딱딱딱딱 걸어나다.

and, 감독과의 대화 - free 뽀족

그리고, 이어지는 비혼피로연!

꼭 아십시오.. 언니네비혼살롱에서 다시 만나요!
www.unninet.net/jalsalza

● 2008년 5월 25일 - 2회 비혼여성축제 '비혼, 그 입술을 열어요'



2008년 7월 7일

[칼럼] '우주 플리즈 비혼할래~?'

'우주 플리즈 비혼할래~?'

글 : 몽 / 언니네트워크 액션나우팀

2008 비혼여성축제 '비혼, 그 입술을 열어요'



비혼여성축제를 떠올리면 어김없이 지독히도 추웠던 작년 3월의 축제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비가 내리다가 강풍이 불었다가, 행사에 꼭 필요한 엠프는 오지 않고, 비혼선언을 하기 위해 무대에 올라간 참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이 밥 짓는 시골집 굴뚝 연기처럼 선명했던 날. 지난해의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일까요^^; 올해 축제는 1년 중 가장 화사하다는 5월! 너도나도 결혼에 대한 환상과 낭만을 나누고 '행복한 (정상)가족'을 이야기하는 '가정의 달'의 끝자락에서, 다른 삶을 꿈꾸는 많은 언니들이 하나 둘 홍대로 모여들었지요.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은 기억이지만 자, 이제부터 '비혼, 그 입술을 (다시) 열어요~'

축제의 시작은 '전시, 함께 그리는 비혼'과 함께

축제가 열리는 롤링홀 계단을 내려가다 보면 길을 따라 뿌려놓은 도토리처럼 여기저기 눈길을 끄는 전시문구들이 보이네요.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비혼여성들에게 힘을 주는 '센스' 있는 한마디. "노처녀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백지위임장이다. 일단 '그 미친 노처녀'로 찍히고 나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부당한 낙인을 조롱하며 '그래, 날 미친 노처녀라고 부르라지!' 낄낄대다 보면 어느새 공연장 안입니다.



허둥대며 준비하는 기획단들 사이로 일찍 도착해 <역사 속 비혼여성 찾기! 비혼열전> 전시를 구경하는 언니들도 보이구요. 언론을 통해서 본 <언론에 비친 비혼> 전시를 보고 있자니, 2000년도 언론에 ‘비혼’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고부터 중요한 사회적 집단으로 기사화되고 있는 지금까지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네요. 2009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들이 기사화가 될까요? 우선은 “내달부터 미혼 대신 비혼으로 표기 바뀌…”가 눈에 띄지만,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비혼여성연대 발의한 이명박 탄핵 결의안 국회비준…”에 마음의 표를 던져봅니다.

전시를 보다보면 비혼여성들의 역사를 ‘발견’해내고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비혼여성인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돼요. 패트리셔 J. 윌리엄즈는 이렇게 말했다죠. “기록 없이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 지속되기 힘들고, 쉽게 역사 밖으로 떼어져나가고, 내 과거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다시 쓰려는 사람들의 손에 너무도 위험스럽게 돌아날 수 있다”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그 때 그 언니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곧 상영될 영화를 기다립니다.

비혼 영상제_우리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사회자인 난세님과 해송님의 외침을 시작으로 드디어 축제가 시작되었네요. 가장 두근두근 하며 기다렸던 첫 번째 순서는 바로 비혼영상제! 더 이상 남성감독들의 영화에 등장하는 ‘독신여성’, ‘골드미스’와 같은 이미지로 덧씌워진 여성들을 보며 빈정대지 않아도 되는 역사적인 순간인거죠. 우리의 입으로 비혼의 삶과 일상을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것, 그 첫 번째 작업이 영상으로 탄생하는 순간이요.



그런데 (보신 분들) 승지 감독의 다큐멘터리 <비혼프로젝트>에 등장하는 여자들이요, 어디서 많이 본 여자들 같지 않아요? 탱고를 추며 자유를 느끼는 여성, 동거하는 여자들, 결혼이라는 제도에 편입되지 않은 채로 함께 살아가는 가족… 아주 가까이, 그것도 내 옆에 있는 것 같은 익숙한 모습들이예요. 어떻게 하면 혼자서 잘 살 수 있을지를 탈모를 걱정하면서까지 고민하기도 하지만 씩씩함만은 잃지 않았다는 듯 웃고 있는 언니들이 생각나기도 하구요.

게다가 레즈비언 커플, 싱글맘을 계획하는 비혼여성, 자신만의 독립을 꿈꾸는 비혼여성이 등장하는 영화 언니들의 모습이 마치 고양이처럼 느껴진다는 풍경 감독의 <고양이들>이 하얀 화면 가득 비춰질 때는, 어두운 그 공간 안에서 울리는 언니들의 웃음소리, 차분한 숨소리, 가끔 작게 코 훌쩍이는 소리까지도 생생했어요.

비혼여성축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 두 편의 영상을 볼 수 있는 날이, 곧 오겠죠? (그러니 못보신 분들 너무 아쉬워 마시길~)

비혼 퍼포먼스 '우주 플리즈 비혼할래~?'

영화제가 끝나고, 결혼에 대해 떠드는 모두에게 큰 소리로 '우주 플리즈 닥쳐줄래~?'를 외치는 비혼UCC로 새로운 순서가 시작되네요. 축제 전부터 아는 모든 비혼여성들에게 설문지를 뿌려 얻어낸 <비혼에 관한 예측불허 앙케이트> 발표. 하지만 결과는 완전 예측가능 앙케이트라니! '비혼으로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람'으로는 친구(47%), '비혼으로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기술'로는 사교술(29%)이 각각 1위를 차지해, 모두들 '역시 비혼에게는 친구만한 것이 없다'는 경험적 지혜에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네요.



축제의 부제이기도 한 '우주 플리즈 비혼할래~?'는 바로 그 소중한 존재들과 함께 비혼으로 지지하며 나아가고픈 비램을 담은 것입니다. 지난 축제가 '비혼, 꽃이 피었습니다'를 제목으로 비혼여성이 스스로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올해 비혼축제는 <비혼 프로포즈>를 통해서 함께 비혼으로 나아가고픈 소중한 누

군기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하고 싶음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둔 것이죠. 프로포즈를 하는 개인들은 친구들, 여동생, 애인, 선배언니, 만나본적도 없는 김연아양에게까지도 손을 내밀었어요. (참... 그 분들이 손을 잡아줄지는 의문이지만...~) 더욱이 지난 비혼축제에서 비혼선언을 했던 분들이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무대에 올라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함께하자' 말해주었을 때, 다시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비혼음악제 온 몸으로 비혼을 노래하다



마지막 순서는 바로 열 마디의 말 보다 한 소절의 노래, 조용한 몸의 움직임들이 더 마음에 깊숙이 와 닿는 사람들의 무대에요. 우는 듯 웃는 듯, 위로하는 듯 담담한 듯 노래하는 시와님의 목소리. 무지개-(무지개-) 하나가 되는 두 목소리로 비혼여성축제에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를 불러준 **말없는 라디오**. 정말 온 몸으로 여성들끼리의 끈적~한 유대를 표현한 **스윙시스터즈**. 시원하고 신나게 마지막 무대를 채워준 멋진 밴드 **제니스 트레일**까지. 비혼으로 살아가는 삶이 두렵고 외롭기도 하지만 곳곳하게 살아가는 언니들에게 보내는 축하와 지지의 무대들을 보면서, 내가 비혼이고 페미니스트인 것이 새삼스레 뿌듯했어요.

자, 이렇게 길고 긴 2008 비혼여성축제가 끝이 나네요. 작년, 올해의 축제를 지켜보면서 다음 해에는 또 어떤 비혼축제가 만들어질까 생각해요. 어쨌거나 그때에도 나는, 우리는 여전히 비혼으로서 살아가고 있을 테고, 더 많은 비혼인 언니들을 만날 수 있겠죠. 비혼임을 말하고 **함께 비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혼자서 살아간다는 의미로서 뿐만 아니라 새롭게 다양한 관계들을 재설정하고 다양한 형태의 삶을 지지하고 지향함을 의미하듯이, 더 많은 비혼언니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것이 매년 비혼축제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유랍니다.**

마지막은 프로포즈로 마무리할까요?

우리는 싫어하는 게 많지. 마초 대하는 거. 재미없는 거. 평범한 거. 남들처럼 사는 거. 싫어하는 걸 멀리하며 살고, 또 그것에 자부심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제 당신이 거울 뒤에 숨겨놓은 소주병을 보았네 이 사람아. 어떻게든 완벽하지 않도록 만들어진 사람의 삶, 수많은 불안과 가능성을 가진 우리의 삶을 즐기고 만져가며 함께 살아가자. 너희들에게 이렇게 프로포즈할게.



우리 같이 비혼할래? 대답은 내년 비혼축제 때 듣겠다.

~비혼 프로포즈> 申 더지님의 프로포즈~

내년에도 우리 함께 비혼국수 먹어요 :)

* 좀 더 생생한 비혼여성축제가 보고 싶으시다구요? 여기로 오세요~ [클릭!]

[기획칼럼] 비혼열전



2008년 비혼여성축제의 전시 제목이기도 했던 ‘비혼열전’은 역사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던, 하지만 ‘비혼으로’ 기록되거나 기억되지 않았던 여성들의 다채롭고 구체적인 삶의 방식들을 들여다보고자 기획된 칼럼입니다. 언니네트워크에서 새롭게 태어난 <액션+공감팀>에서 준비하는 역사 속 멋진 비혼 언니들의 길 찾기, 함께 따라가요 :)

[기획칼럼] 연재순서

- ① 낭만적 우정과 보스턴 결혼
- ② 중국의 자소녀와 불가회(不嫁會)
- ③ 조선시대 화기(和氣) 논쟁

2009년 2월 3일

[칼럼] 비혼열전 - ‘영혼을 위한 흰 히아신스’

[비혼열전_1] “영혼을 위한 흰 히아신스”

레이첼 카슨과 도로시 프리먼의 ‘보스턴 결혼’

글 : 몽 (언니네트워크 액션+공감팀, canicular@hanmail.net)

언니들. 이런 경험 있으세요?

‘난 비혼이야라고 누군가에게 말하는 순간, 그 상대가 떠올리고 있을 것 마음속의 말들이 말풍선처럼 그려져 눈앞에 뽕뽕 나타나는 순간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그러다간 한평생 외롭게 살다가 늙어서 시체로 발견될텐데...’, ‘아직 제대로 된 사람(남자)를 못 만나서 그래~’ 이런 말들이 들리는 것 간단 말이지. 정말 비극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와 상관없이 중국엔 그런 말들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초라하고 비참하죠. 하지만, 단 한번도 ‘혼자’ 살거라거나, 누군가와 평생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을 거라고 말한 적은 없다는 거, 그 사람들은 알까요?



사랑, 평등, 야심, 자기 성취감, 낭만적 우정, 갈구하는 눈길, 뜨거운 연애편지.....

아, 하나하나 곱씹어보아도 (너무 좋아서) 손발이 오그라들 것 같은 이 단어들의 조합이라니! 제인 오스틴의 소설에서 뽑아낸 문구라고 해도 부정할 수 없을 것만 같아요. 하지만 실은 비혼으로 살아갔던 여러 언니들의 인생을 요약하는 단어라고 한다면, 너무 찌릿하지 않나요? 이제부터 그 언니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낭만적 우정과 '보스턴 결혼'



남북전쟁 이후로 미국에서는 서로에게 헌신적이고 낭만적인, 심지어 해방적이기까지 한 여자들의 관계가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보스턴 사람들>(1885)이라는 소설 제목에서 유래한 '보스턴 결혼'이 바로 그것이죠. '미국 동부 뉴잉글랜드 지방에서 흔한, 여자들 사이의 우정을 그린 다분히 미국적인 이야기'인 이 소설의 제목이 어떻게 당시에 결혼이나 육아에 얽매이지 않고 진취적인 삶을 개척하는 여성들의 삶을 표현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죠?

'답은 <텍사스의 풍운아>(1986)라는 의외의 영화에서 찾을 수 있어요. 남북전쟁으로 수많은 남자들이 죽어가자, 가장 노릇을 해야 했던 그 만큼의 많은 과부나 미혼 여성들은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막 이상한 법이 생겨나요. "사형선고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살인범만 아니라면 부동산을 소유한 신부 감이 보증을 설 경우 사면할 수 있다" 헉?! 남자 주인공이 사형당하기 직전에 결혼도 하고 금도 캐서 멕시코로 탈출한다는 이 영화의 줄거리를 보니,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도 많은 언니들은 이렇게 중얼거리지 않았을까요, '강 전처럼 우리끼리 살면 안되겠니...'

하지만 여기까지 쓰고 나니 좀 뭔가 짝짝하네요. 마치, 남자는 부족하고 여자는 남아돌아서 원치 않는 비혼의 길과 보스턴 결혼을 시작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구요. 흠... 하지만 '남자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자마자 서로 상부상조 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한 여자들'이 떴로 등장했다는 것이 조금 신나기도 하지 않나요? 어쩌면 그건 계기였을 뿐일지도 몰라요.

'보스턴 결혼'의 가장 큰 특징은 여자들끼리 함께 살기 시작했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공동의 가치관과 관심, 배움에 대한 강한 열정, 서로의 영혼과 창작열에 자양분을 주는 책임 있는 관계, 바로 이런 것들이 그녀들의 '결혼'을 지탱시키는 힘이었던 것이죠. 물론 '동거' 여부가 낭만적 사랑과 보스턴 결혼을 구분짓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했지만요^^ 그럼 '보스턴 결혼'을 한 대표적인 언니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당신은 나의 힙 히어닝스

미국에서 환경운동의 바람을 불러일으킨 책 <침묵의 봄>의 저자, 레이첼 카슨을 아시나요? 하지만 그녀의 삶에서 <침묵의 봄>만큼이나 중요한 한 사람이 있어요. 고양이를 사랑한다는 점에서 비슷하고, 함께 바닷속 생물들을 수집해 망원경으로 관찰하고, 바닷가 별장 마당에 앉아 조수 소리를 듣기도 했던 그녀, **도로시 프리먼**.

'보스턴 결혼'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 두 사람은 레이첼 카슨이 46살, 도로시 프리먼이 55살일 때 처음 만났다고 해요(게다가 도로시 프리먼은 결혼 29년차의 유부녀였답니다, 물론 도로시의 남편도 둘의 관계에 대해서 '지지'했다고 하는군요). 레이첼 카슨이 죽을 때까지 두 사람은 계속 서로의 삶에서 창조적인 동반자로,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친구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으로서 만나게 됩니다.

“저는 요즘 아주 깊이, 감사히 생각하곤 합니다.
당신의 변함없는 헌신과 관심이 제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요.
만일 그게 없었다면 지금처럼 모든 것이 암담하기만 할 때
과연 어떻게 헤쳐 나갈지 막막했을 겁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동일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치된 의견은 아름답고 만족스럽고 위안이 됩니다.
실럼 정확한 것과는 동떨어져 있고,
모든 신비와 장려함을 다 담지 못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 레이첼 카슨

“그대가 내 인생에 안겨준 행복감,
자연 세계에 대한 흥미와 통찰을 새로이 일깨워준 점……
하지만 그대도 그렇듯 완벽하게 마음을 열어 보일 수 있는 사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을 발견한 것이야말로
정말 믿기지 않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더한 최고의 기쁨은
바로 나에 대한 그대의 사랑이라는 선물입니다.”

- 도로시 프리먼

(아... 옮겨 적는 저이지만 닻이 되어 날아갈 듯 합니다...)

나이가 들어 한 참 뒤늦게 만났다는 것, 두 사람이 함께한 시간을 다 합쳐도 채 6개월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결혼한 도로시가 남편과 변함없이 애정 깊은 부부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은 두 사람의 관계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강렬했던 감정’의 폭풍우를 지나, 자신의 죽음 이후가 걱정되어 편지를 남겨놓을 정도로 서로의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누군기를 만났다는 사실이 중요했던 것이니까요.

서로 얼마만큼 사랑했나구요? 도로시에게 레이첼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2페니가 있다면 1페니로는 빵을 사고 나머지 1페니로는 ‘영혼을 위해 흰 하이신스’를 사겠다고, ‘당신은 나의 흰 하이신스’라고요.

하이신스를 찾아



어쨌든 레이첼 카슨과 도로시 프리먼 역시 자신들 이외에 타인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이 ‘미친 듯이 반한’ 감정 때문에 조금쯤은 괴로웠을지도 몰라요. 충동적인 키스를 나누기도 하고, 자신의 감정이 도로시의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기도 하죠. 자연에 대한 왕성한 호기심과 탁월한 관찰력으로 이미 명성을 얻은 유명작가 레이첼에 비해, 그 당시에 결혼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교사직을 그만두고 살아가야 했던 도로시는 레이첼과의 관계가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했을거예요.

하지만 보스턴 결혼이 의미 있는 이유는 여자들끼리 모여 자신들이 가진 인생의 목표를 서로 공유하고, 경쟁과는 다른, 열정으로서의 자극과 영감을 불어넣어 주고, 서로를 의지하고 존중하며 지지했다는 점-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이 맺어온 여타의 관계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이룰 수 있었다는 점일 거예요. 결혼이라는 '완전한' 관계의 길을 벗어나 '불완전'하지만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여성들에게, 같은 길을 걸어가는 또 다른 여성들의 존재는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리니까요.

언니들도 영혼을 위한 1페니의 히아신스를 찾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

덧. 당시 미국에서 '보스턴 결혼'은 특히 여자의 꿈을 북돋아주는 여자 대학이나 여성 단체에서 유행했다고 합니다. 우후후후.

[참고자료]

영화 <텍사스의 풍운아> :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772302> 참고

<독신의 탄생>. 엘리자베스 애보트 저, 이희재 역. 2006. p. 572-581.

<레이철 카슨 평전>. 린다 리어 저, 김홍옥 역. 2004. p.387-421.

* 두 권의 책은 모두 언니네트워크 사무실에서 대여 가능합니다 :)

[비혼열전 2] 피로 맺은 비혼의 맹서

_중국의 자소녀와 불가회

글 : 더지 (언니네트워크 액션+공감팀, huwomism@naver.com)

언니들은 꼬마였을 때, “나 결혼 안해!”라고 외쳐본 적이 있나요? 그럴 때마다 어른들이 ‘허허’ 웃으면서 “그런 애들이 나중에 시집 빨리 가겠다고 난리친다더라”며 사기를 꺾어놓지는 않았나요? 그런데 어찌지오, ‘니중’이 되어도 역시나 남자에게 시집 갈 생각은 요만큼도 안드는데 말이에요. 비혼의 맹세를 사사로이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이 언니들을 소개시켜주고 싶네요. 1920,30년대 중국에서, 서로에게 비혼을 맹세한 ‘자소녀’와 ‘불가회’를 말입니다.

스스로 머리를 빗는 여자,

자소녀, 自梳女

중국에서는 결혼생활로부터 탈출하거나 결혼을 거부한 여성들을 ‘자소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독신으로 살고자 한 여성들이 머리를 홀로 올리는 의식을 치른 데서 나온 말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삶의 희노애락을 스스로 다스리고 해결하며 자신을 지킨다는 의미라고 하니 이 어찌 멋진 이름이 아닐 수 있을까요. ‘노처녀’라는 말과 비교하면 더더욱 그렇지요.

영화 「자소」 (1999, 장지량, 홍콩)에서 이 ‘자소 의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소녀로 살기로 결심한 ‘의환(양채니)’은 한 자소녀 공동체에 들어가 의식을 치릅니다. 홀로 머리를 올리는 대신, 자소녀자매들이 머리를 딸아주며 다음과 같은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첫째는 복. 둘째는 장수. 셋째는 자유. 넷째는 순결. 다섯째는 강인한 마음.

여섯번째는 자매 간의 우정. 일곱번째는 행운. 여덟번째는 평화.

이런 자소의식이라면 매일 아침 하고싶을 정도. 여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정말 소중한 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순결’을 창조적으로 재해석할 수만 있다면...) 자소녀들은 ‘취향 별난’ 언니들이 아니라 자유와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려운 길을 택한 여성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삶은 다음과 같이 서로를 지탱해주는 피자매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피의 자매들 Scene #1

집안의 부채를 갚기 위해 남자에게 팔려가야했던 의환. 의환을 남자에게로 데려가기 위해 자소녀공동체에 들이닥친 강패들.

피의 자매들 Scene #2

집안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면, 강패들을 따라가라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자포자기한 의환. 가위를 들어 가슴을 찌르려고 하는데...

이 묘령의 여인은 한 사업가의 여덟 번째 첩이었던 ‘옥환’이었는데, 남편이 사업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자신을 이용하는 것에 염증을 느끼고 뛰쳐나와 ‘의환’과 더욱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고 ‘옥환’과 ‘의환’은 후에 서로에게 일생의 여인으로 남게 됩니다.

2006년의 한 기사에 따르면, ‘자소녀 마을’로 알려진 곳이 현재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15명의 여성들이 모여살고 있는 자오칭시(肇?市)의 한 자소녀 마을은 최고령자가 86세의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 여성이 열여섯살 정도였던 1930년 즈음, 홀로 머리를 쪽지고 자기와 같은 여성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기로 결심을 했던 그 ‘자소녀’였겠지요. **혹시 이 영화의 여주인공 ‘의환’일지도요.**

중국에는 ‘자소녀’ 외에 또 다른 비혼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불가회’입니다.

“以立志不嫁, 終身自由爲目的 이입지불가 총신자유위목적”

:시집가지않는 것을 뜻으로 세움을 죽을 때까지 목적으로 삼는다

평생을 ‘비혼’으로 살겠다는 이 결연한 문구는, 당시 상해와 같은 도시지역에 존재했던 ‘불가회;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여성들의 모임’의 하나였던 ‘입지불가회’의 모토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입회한 뒤에는 절대 다른 사람의 혼인에 참여해서도 안되며 만일 사사로이 남자와 왕래했다가 발각되면 제명”**이라는 회칙이 있을 정도로 이 비혼결사체의 의지는 강력한 것이었지요. **누가 비혼을 호락호락하다 했던가.**

입지불가회 여학교의 여학생 8명이 만든 비밀결사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남자와 왕래하지 않으며 우리끼리 비혼으로 살기로 서로 맹세했다니, 이 여성들 사이에 있었던 이 끈끈함(@.@)이 어떤 것이었을까 흐뭇-므 훗하게 짐작해봅니다.

이 외에도 ‘남경지불가회’, ‘여자불가구락부’ 등이 있었다고 할 정도니, 결혼에 편입되지 않기 위해 당시 비혼여성들이 서로에 의지하며 분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런 불가회의 대부분은 여학교, 혹은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고 하네요. 금릉여대의 교장이었던 오이방(吳貽芳)은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교육사업에 일생을 바쳤다고 합니다. 또, 1928년 『부녀잡지』의 조사결과 1919~1927년 금릉여대의 졸업생 105명 중 결혼한 여성은 17명에 불과했다고 하니, **청출어람이랄 수밖에요.**

이 때문에 당시 신문잡지가 분석한 '독신의 원인'의 하나로 오이방과 같은 독신 교장에게 감화되어 나타난 '모방심리'를 지목했다고 합니다. **여성의 고등교육은 노처녀 제조공장이라는 비판이 드높았다고도 하죠. 여자는 배운 것도 죄라지요.**

당신 중국 여성들이 독신으로 살고자 했던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불가의 가르침으로 독신을 선택하기도 하고, 생활고를 이유로 부모의 부양을 위해 결혼을 할 수 없었다고도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세상이 떠드는 만큼 결혼이 여성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은 오늘날과도 별반 다른 것은 아닐 거예요.

1920,30년대 중국의 도시 여성 자살률이 비교적 높았다고 합니다. 1917년 1월 2일 12명의 여성들이 부모가 결혼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음독자살을 했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이니 당시 결혼 때문에 겪었던 여성들의 고통과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요. **'자소녀'며 '불가회'와 같이 여성들끼리 삶을 꾸려나가고자했던 것은, 그런 세상에 맞선 여성들의 연대의식이었겠지요.**

함께 비혼하자는 약속.

오래 전부터 혼자가 아니었던 비혼여성들.

언니들도... 함께할래요?

<참고 자료>

영화: 「자소」 1999, 감독 장지량, 홍콩

논문: 천성림(2002) 「모성의 거부, 20세기초 중국의 '독신여성' 문제」

[비혼열전 1] “인생 백년도 안 되는데, 성질대로 살겠습니다.”

조선시대 '화기(和氣)논쟁'

글 : 예르 (언니네트워크 액션+공감팀, dare0906@hanmail.net)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조선 사회에서 당연히 나의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여성들의 비혼사, 알고 계셨나요?

여기, 조선시대 '화기(和氣) 논쟁'을 소개합니다.

화기(和氣)는 풀이 그대로 서로 화합한 음양의 기를 말하는 것이죠. 요즘 궁합을 보거나 작명을 할 때, 부부간의 화기(和氣)가 좋단다고 풀이하며 좋아라 하는걸 보면 옛날에 쓰던 말만은 아닌 듯 싶어요. 조선시대 조정에서는 기뻐나 나라에 큰 재난 현상이 있을 때 그 원인으로 '화기가 상했기 때문'이라는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화기를 상하게 하는 원인으로서는 백성에 대한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했다거나 백성에게 고된 노역을 시켰을 때라고 생각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평균적인 나이보다 늦도록 혼인을 하지 않은 처녀가 화기를 상하게 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혼가(婚嫁)에 때를 잃어 음양이 고르지 못한 것도 가뭄을 부르는 실마리입니다. 지금 나이 장성한 처녀가 집이 가난하여 미처 때를 맞춰 혼가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한 계집의 원망이 3년을 가물게 한다.' 하였으니, 이치가 혹 그럴 것입니다.

이는 종종 4년, 한 대신이 아뢴 내용으로 '시집가지 못한 처녀의 원망이 3년을 가물게 하니 재앙의 원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화기가 상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혼인을 장려하는 정책이 시행되었고 이는 인구를 늘려 양민을 확보하려는 실질적인 정책이기도 하지만 혼인하지 못한 처녀가 울부짖어 나라의 화기가 상하게 되면 재앙이 생긴다는 담론을 통해 정상적인 부부가족을 만들고 나아가 유교적 가부장제 국가를 이루어 내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남자들의 시각에서 쓰인 역사 <조선왕조실록>이 다 기록하지 못한 많은 여성들 중, 스스로가 원해서 비혼을 선택하고 그 삶을 당당히 살아간 언니들을 만나 볼게요.

검녀 이야기

멸문지화를 당한 양반집 딸이, 그 비(婢)와 함께 남장을 하고 검객이 되어 원수에게 피의 복수를 한다는 '검녀 이야기' 입니다. 양반집 딸이었던 여성은 복수를 마친 후, 부모의 묘 앞에서 자결하며 뜻을 함께한 비(婢)에게 뜻있는 군자를 찾아 혼인을 하라고 말합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 당대 유명한 선비를 찾아가 첩으로 삼아 달라 청하지만 몇 년이 지난 후, 선비의 작은 그릇됨을 탓하며 다시 남장을 하고 홀연히 떠납니다. 떠나는 날, 선비와 술상을 마주 두고 검객으로서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 한 후,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일 새벽에 떠나겠습니다. 먼 바다와 조용한 산에서 노닐렵니다. 남장을 그대로 두었으니, 기쁘히 갈아입고 나설지라. 어찌 다시 여자로서 음식을 장만하고 바느질 하는 일에 얽매어 지내겠습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따지려는 선비 앞에서 천둥이 번쩍이고 하늘이 갈라지는 소리가 나는 검술을 선보여 그를 혼비백산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보면 이 ‘검녀 이야기’는 설화일 가능성이 높지만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를 모아놓은 <삽교집>에 기록되어 지금까지 전해진 걸 보면 비범한 비혼 여성에게 꽃혀 열광하는 건 비단 우리 세대 뿐은 아니었을 겁니다.

조선 시대에도 역시나 찌질한 남자들이 차고 넘쳤을 것이고 여성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를 남편으로 삼고 밥을 해 먹고 옷을 지어 입히느니 혼인을 하지 않고 홀로 사는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 똑똑한 여성들이 적지 않았을 것은 임금과 조정 대신들이 ‘화기가 상한다.’는 이유로 각종 혼인장려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애썼던 역사적 사실들이 뒷받침 해주고 있지요.

경계 밖의 여승들

<세종실록>에 보면 농사철에 가뭄이 들자, 또 다시 ‘화기(和氣)’를 들먹이며 혼인하지 않는 여성에 대해 이야기 하는 꼴통 양반이 등장합니다. 이 때 대표적으로 ‘여승’에 대해 언급한 것이 흥미롭습니다.

나이 어린 여승들이 마음속으로는 정욕(情慾)을 쌓으면서도 밖으로는 절의(節義)를 가장하니... 30세 이상의 여승들은 머리를 기르게 하여 혼인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세종실록

여승이 된 여성들은 유교의 경계 밖에 놓여 있게 되니 조선 사회에서는 여승은 승려보다도 더 위협적인 존재였겠지요. 또한 경계의 자유를 느낀 여성들이 이를 포기할리 없으니 머리를 기르게 하자는 간절한 양반의 소망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되는 처녀와 과부는 갈수록 늘어났다고 해요. 양반들이 올린 상소를 보면 여승의 무리가 산에서 모여 놀이하고 떼를 지어 놀며 풍속을 어지럽힌다고 우려했다고 하는데, 이를 지금의 우리 언니네트워크로 보면 어떨까요? 가부장적 남성들이 걱정하며 말하는 ‘풍속을 어지럽히며 노는 것’ 만큼 재밌는 것도 없지요. 그 때의 언니들은 무엇을 하며 놀았을지 궁금해요. 얼굴을 갑갑하게 하는 분칠이나 겹겹이 몸을 감싼 치마를 훌훌 벗어 던지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제모나 브래지어 따위는 잊어버리고 노는 페미니즘 캠프처럼 말이에요.



‘성질이 사나운’

부모의 원수를 갚거나 종교적 신념과 같은 이유 외에도 혼자 사는 길을 택한 여성도 있습니다. 기록 속에서는 이러한 여성을 ‘성질이 사나운’ 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기록자의 부정적인 의도에도 불구하고 이 대목에서 만큼은 ‘성질이 사나운’ 이라는 말이 ‘매력적이고 당당한’ 이라고 보여 집니다. 얼마나 매력적인 성질이 사나운 여성인지, 감탄하며 읽은 기록이 있어 적어봅니다.

한 권문 재상 처녀가 모든 재주를 갖췄으나 나이가 들어도 결혼을 하지 않고, 성질이 사나워 부모도 함부로 하지 못하였다. 부친이 걱정하니, “ 인생 백년도 안 되는데, 부부의 즐거움 때문에 성질을 굽히고 사느니 부모님 모시고 성질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 기문(奇聞) 중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유교 국가를 표방 하였고, 유교적 질서에 순응하는 여성들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맞춰 살아가야 하는 여성이 혼인을 하지 않거나 불교의 테두리로 들어가 무리를 지어 다니기까지 한다는 것은 국가의 근간을 흔들 위협적인 일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거칠고 성질이 사납다.’ 거나 ‘화기를 상하게 한다.’ 는 이유를 들어 여성에게 혼인을 필수불가결한 선택으로 강요한 것입니다.

조선시대 지배층 남성들에게 혼인하지 않은 여성은 ‘사납다.’고 표현할 만큼 불편한 존재들이었겠지만 저는 새삼 멋진 언니들을 재발견한 기분에 힘이 납니다.

몇 백 년 전부터, 우리가 살아 숨을 쉬는 이 땅에서 멋진 언니들은 당당히 비혼을 선택하고 살아갔던 겁니다. 지금과는 또 다른, 상상하기 힘든 억압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겠지만 여성들은 쉽게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비혼주의자’ 라는 나에게 아직 사랑하는 남자를 못 만나서 라거나,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 인생 백년도 안 되는데, 우리 그냥 성질대로 살자고요. " :)

[참고 자료]

논문 : 정지영 (2004) 「조선시대 혼인장려정책과 독신 여성: 유교적 가부장제와 주변적 여성의 흔적」
김건우 <나는 당당하게 살겠다> 문자향

비혼이야기

푸근 (언니네트워크 @아시아팀)

얼마 전에 엄마가 지나가는 말로 "우리집 형편이 기울어져가고 있지만, 남동생이 장가갈 때 1억짜리 전 세집은 마련해줘야 할텐데.."라는 말을 씩씩히 내뱉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내가 독립할 때가 떠올랐다. 부모님은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집을 나간다는 것도 탐탁지 않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독립을 '진정한' 독립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도 아니었다. 집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남동생에게 해준다는 돈의 5분의 1도 마련해주지 않았다. 현재 직장생활을 하는 나로서 1억을 모으려면 족히 10년은 저축을 해야 할 것이다. 내가 10년 동안 주야로 뼈 빠지게 일하는 동안 남동생은 부모가 인정한 결혼 한번으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돈의 양의 문제라기보다는 결혼과 함께 남자 집에서 살집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가부장제 결혼 제도의 뿌리 깊은 관습과, 이로 인해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지원받기 더 쉬운 사회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나처럼 결혼을 원하지 않는 여성들에게 그 돈이 얼마나 모으기 어려운 것인지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 엄마가 야속했으나,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부장제를 유지하고, 여성의 역할을 규정해 왔던 한국 사회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성은 그 삶 자체만으로도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적 의미를 지닌다. 나이가 차면 무조건 집안/학력/나이 등 조건에 맞고, '적당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한다는 통념이 뿌리 깊게 내려앉은 한국 사회에서 그 동안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미혼, 즉 아직 혼인 하지 않은 여성으로 간주되어 왔다. 지금은 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혼인하여 결혼이라는 완성된 구조 안으로 편입될 여성이었다. 하지만 비혼은 '언젠가는 결혼 한다' 미완성의 의미보다는 결혼제도에 편입되지 않으면서도 온전한 독립적 주체로서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언어이다.

비혼의 삶은 기존에 '정상적 삶'으로 간주해왔던 이성에 가부장제 결혼 제도에 편입하지 않으면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비혼 운동은 비혼으로 살아가는 개인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며, 이러한 삶의 방식을 사회적으로 인정해주시기를 주장하는 것이다. 결혼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다양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권리의 연장선에서 한국사회가 다양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중하길 원한다. 한편으로는 결혼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결혼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각종 제도와 관습을 타파하기 위한 이슈페이팅도 벌인다.

언니네트워크에서는 비혼 이슈를 통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었다(몽의 열린토론회 발제문 참조). 한국

사회에서 언니네트워드를 중심으로 한 비혼 운동을 소개함으로써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는지, 활동가로서 비혼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

각 나라별로 비혼에 대한 논의 및 이슈페이팅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그리고 아시아에서 여성주의 연대를 통해 함께 비혼을 이슈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 외에도 비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물음들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2009년 6월 27일

2009 아시아 프로젝트 - 열린토론회

: 춤추는 액션, 흔들리는 아시아 - 아시아 영페미니스트를 생각하다
[발표문]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그녀들, 비혼 여성'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그녀들, 비혼 여성

몽 (언니네트워크 액션+공감팀)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단순히 사회제도적인 단위를 지칭하는 의미를 넘어서는 공고한 범주이다. 가부장적 이성에 중심주의가 강력한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개념은 남/녀의 혼인 및 혈연관계 중심으로 한 배타적인 범주만을 지칭할 뿐만 아니라, '여성'을 '가족 안의 여성'이라는 한정적인 틀 안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끊임없는 시도들을 드러낸다.

2005년 초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재편되었을 때에도, 2008년 '여성가족부'가 다시 '여성부'로 축소 개편되었을 때에도, "저출산·가족변화, 돌봄 노동의 공백으로 인한 가족 위기는 여성문제가 그 핵심이며, 여성정책과 분리된 보육·가족정책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인구문제와 가족해체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¹⁰⁾라는 주장이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보육과 돌봄 노동을 가족의 틀 안에 한정시키고 그 역할을 여성에게 위치지음으로써, 여성 이슈가 곧 가족 이슈이며 가족의 문제가 곧 여성의 문제임을 드러낸다. 그동안 정상가족 안에서 그 구성원으로서만 인정받으며 살아온 여성들이 가족밖에서 다른 삶의 형태를 기획하고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이러한 인식은 다양한 형태의 삶과 가족을 '위기'로 문제화하고 억압하게 된다.

이처럼 '여성'이 '가족' 바깥에서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결혼하지 않음을 선택'하는 비혼 운동은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여성의 존재를 구성하는 방식'을 다른 목소리를 통해 비판하고 거부하며, 새롭게 구성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시도들은 비혼 여성들이 겪는 법적, 제도적, 사회적 차별들을 드러냄과 동시에 어떻게 비혼을 사회적으로 가시화하고 이슈화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운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글에서는 '정상가족'의 바깥에서 공동체를 꾸리며 살고 있는 혹은 가족을 구성하지 않는 비혼 여성들의 삶에 대한 고민들로 시작된 언니네트워크의 비혼 운동¹¹⁾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강력한 한국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10) 여성신문. "'가족'은 어디가고 '여성'만 혼자남나". 2008. 2. 23.

11) 난새. "언니네트워크에서 비혼여성운동하기". <비혼 여성, 정치적 주제로 거듭나기>. 언니네트워크 감자모임. 2007. 12. 25.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

- 가족은 우리가 젠더화된 (젠더에 갇힌) 자아로 구성되어가는 공간이다.
The family is the place where we become our gendered selves.
- 사적 영역은 정치적 결정에 의한 발명품이다.
The domestic sphere is itself created by political decisions

- 수잔 몰러 오킨(Susan Moller Okin)¹²⁾

1.

언니네트워크의 비혼 운동의 주요 이슈들은 여성의 위치를 '가족'이라는 틀 안으로 한정짓는 것과 그에 따라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규범적인 역할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위의 문구처럼 가족이 젠더화된 자아를 구성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는, 그동안 가족 내에서 여성의 젠더 역할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요구되어 왔는가에 대한 비판적 물음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물음은 2005년 '여성가족부 반대 성명서'로부터 시작해 비혼 여성 차별에 대한 저항을 주요 활동 과제로 삼기까지, 언니네트워크의 비혼 운동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2007년 1회 비혼여성축제를 통해 많은 여성들이 <우리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未婚)이 아니라, 누구나 결혼해야 하고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고정관념에 물음표를 던지는,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비혼'(非婚)>이라고 선언했다. 이러한 비혼 여성들의 주체화는 : 1) '여성'이 가족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 존재, 여성이 개별적인 사회구성원이 아니라 가부장제 부계혈통의 유지와 영속에 기여하는 존재로서만 인식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2) '여성'을 '기혼'과 '미혼'이라는 두 가지의 범주로만 제한하고 '이분화 할 수 있는' 젠더 권력 관계 그 자체에 물음표를 던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결혼과 가족을 '통한' 여성 정체성만이 용인되고 (그래서) 요구되는 체계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성은 사회적인 젠더 규범을 수행하고 실천해야하는 억압적인 상황에 놓인다. '혼'(婚)의 여부가 정체성 구성의 유일한 중심축이자 기준이 되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여성도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젠더권력 관계의 체계에서 빠져나갈 수 없게(갇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비혼 운동은 남성권력이 자신의 가부장적 이익을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해 여성 정체성을 규정하는 두 가지 범주만을 가진 시스템을 만들어 낸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비혼 여성이라는 '비규범적인 젠더'를 이슈화하면서 이러한 억압적인 체계를 '다시 구성할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사실 결혼여부로 여성을 이분화하는 사회는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을 불쌍한 존재, 어딘가 결함이 있는 존재로 인식하도록 만든다. 하지만 언니네트워크의 비혼 운동은 이러한 인식이 이분법적인 범주화에서만

12) Okin, S. M. 1989. Justice, Gender, and the Family. New York: Basic Books.
위 인용구는 Don Hubin의 요약 자료 참고한 것. 구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통용되는 차별적인 편견임을 드러내면서, 비혼여성축제를 통해 결혼식과는 또 다른 비혼들만의 통과 의례 '비혼식'을 진행하고 서로의 삶의 방식을 지지하며 축하해 왔다. 이는 단순히 기존의 범주들을 벗어나는 '일탈적인' 삶의 방식을 드러내는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범주들을 재편하고 새로운 목소리들을 공론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2.

하지만 '결혼제도에 반대한다'는 명제가 비혼 운동을 설명해주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비혼의 정치학이 단순히 결혼/가족제도 '바깥에' 있는 여성을 상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혼/가족제도의 '안과 밖'이라는 경계 구성을 통해 어떻게 여성이 규범화되어 왔고, 차별받아 왔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기존의 결혼제도에 편입되기를 거부>한다는 선언, <비혼 여성이 나이와는 관계없이 미성숙하고 미완된 존재로 규정된다>, <온전한 한 사람의 독립된 성인이 아닌 불완전한 존재로 설정되어 있다>라는 문제제기는 여성을 가족 내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사적인' 존재, 아내, 어머니, 딸의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 그래서 공적 정체성을 획득하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로 규정하는 것을 문제시한다. '남편'의 아내, '아들'의 어머니, '아버지'의 딸이라는 말이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여성들은 남성과의 가족관계를 통해서 공적 영역에서의 정체성을 획득하고 인정받아 왔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늘 어떠한 남성주체를 필요로 하는, 보호받아야 하는 미성숙/불완전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는 곧 여성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된 '시민'으로서 인정받지 못함을 드러낸다.

비혼 여성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자신을 명명하는 것은 이러한 '부계남성과의 관계맺음' 없이 사회적으로 온전한 주체로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드러내며, '시민됨'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인정 체계에 대한 재구성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동안 사적/공적 구분을 통해 가족 내 여성을 사적인 존재(비시민)로 규정해 온 인식주체의 권력을 문제시한다. '사적 영역이 본래 이미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실체가 아니라, 남성권력에 기여하는 공/사 이분법에 의해 발명된 영역이라는 인식, 그래서 가족문제가 사적이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 그 자체라는 인식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 <다양한 삶의 형태를 선택할 권리, 여성이 가족구성원이 아니라 '개인'으로 행복할 권리를 위해 여성가족부에 반대합니다!>라는 성명서는 사적인 존재인 여성으로 규정되기를 거부하며 사회적 개별 주체로서의 시민권을 요구하는 중요한 정치적 행위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 가족에 포섭되지 않는 여성은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법적인 제도 안에서 너무나 쉽게 이등시민으로 취급받는다. 그리고 실제로 독립된 주체로 자립할 수 없는 물리적 제도와 구조이다. 그래서 토론회를 통해 비혼 여성들이 겪는 차별적 제도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운동 또한 펼쳐왔다. 2007년 12월 대선이 있던 당시, 언니네트워크 액션나우팀에서는 각 대통령 후보 진영에게 정상가족에 대한 견해를 물음과 동시에, 비혼 가구의 경제권, 주택 문제, 세제 혜택, 입양 및 출산 등과 같은 제도적 차별 개선을 위한 공약 및 계획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이는 비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운동만큼이나, 실제로 여성들이 비혼으로서 삶을 구성하면서 마주치게 되는 실제적인 차별적 제도들을 어떻게 바꾸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포함한

다. 왜냐하면 비혼 여성을 온전한 정치적 시민으로 간주하지 않는 결혼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체계의 증거들이 법적, 제도적 장치들로 구현되기 때문이다.

3.

비혼 운동이 문제제기하는 또 다른 중심축은 '정상가족' 개념이 굳건한 '이성애중심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 사회에서 가정하는 결혼 혹은 가족의 이상적인 모델은 공적영역에서 활동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남성' 가장과 사적영역인 가정에서 가사업무를 전담하는 '여성'이라는 억압적인 젠더이분법과 성별분업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규범화된 이성애제도에서 기존의 결혼/가족관은 사회가 이성애 연애각분을 장려하고 개인들이 이분법적인 성별 역할을 인식하고 실천하면서 더욱 공고해진다. 결혼과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정상가족은 오직 이성애관계'만을 허용할 때 가능한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혼은 이성간 결합만을 허용하는 협소한 혼인제도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낸다". 비혼 여성들의 존재는 가부장적 이성애중심의 사회가 가정하고 있는 '잠재적으로 특정 남성에게 소속되어 있는 존재'로서의 여성이라는 규범을 비껴가기 때문이다. 비혼 여성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질문 중 하나는 '(남자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불쌍하다'는 것인데, 이는 모든 여성이 남성에게 사랑받고 싶어한다는 것, 그리고 여성은 남성에게 사랑받을 때 그 존재 가치가 인정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결혼하지 않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불쌍한 일', '외로운 일'로 여겨진다.

비혼 운동이 특정한 유형만을 정상가족이라고 여기는 것, 그리고 그러한 정상가족을 '제도화'하는 다양한 형태를 거부하고 상대화하는 측면이 중요한 지점이기는 하지만, 이는 비혼이 곧 '혼자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말 그대로 <우리는 고립된 섬을 선택하지 않는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이들이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을 구성하며 살아가고 있다. '(정상)가족'의 '바깥에' 있다는 것은, 모든 사회적 관계와 분리되어 '혼자서' 존재할 수 있다는 선언이나 결의만을 포함하지 않는다. 오히려 비혼은 누구나 원하는 방식으로 살 자유와 권리가 있다는 선언을 통해 기존의 가족을 벗어난 새로운 '가족'을 "홀로 또 함께", 새롭게 구성할 수 있음을 드러내는 시도이기도하다.

이처럼 <배타적인 정상가족과 결혼제도를 넘어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는> 비혼 운동은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 그 가족이 정상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억압적인 가족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비혼을 사회적으로 가시화하고 이슈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다. 비혼 여성들이 모여서 만든 '비혼으로 함께 잘살기'와 1,2회 비혼여성축제 모두 이러한 운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계속되는 비혼 운동을 위해

이처럼 언니네트워크의 비혼 운동의 문제제기와 전략들은 단순히 '비혼'을 결혼이나 기혼/미혼에 대응하는 어떤 개념 혹은 주체로서 어떻게 정의하고 이슈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만 설명되기 힘들다. 왜냐하면 기혼/미혼/비혼 등으로 여성을 위계화하고 범주화 할 수 있는, 사적/공적영역, 시민/비시민을 규정할

수 있는 가부장적 권력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니네트워クの 비혼 운동이 '가족 제도'에 비혼을 포함시키라고 요구하거나 기존 '가족 범위'의 수정/확대/확장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보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위치, '가족'의 개념 자체를 재구성하는 방식, 다양한 비혼들의 삶을 드러냄으로써 가족 바깥의 삶의 방식을 상상하고 기획할 수 있는 방식들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가족'과 '비혼'을 주제로 최근 출간된 <언니들, 집을 나가다>¹³⁾는 비혼들의 구체적인 삶의 양식들에 대해 고민하고 그 비전을 드러내고자 하는 활동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 비혼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한국 사회에서 비혼으로 살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닌 '결의'에 가까울 만큼, 비혼 여성들이 겪는 법/제도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차별은 끝이 없다. 비혼 여성들이 스스로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 '지속가능한 비혼'을 위해서는 비혼 주체들이 실제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으며 존재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다.

비혼 여성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합의점에 이른 현재, 앞으로 언니네트워クの 비혼 운동이 어떻게 '비혼'으로 명명되는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드러내면서 사회적인 인정 체계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는 '미혼(未婚)이 아닌 '비혼(非婚)입니다."

- 언니네트워クの 비혼 운동의 역사 -

- 2005년 2월 - 언니네트워ク 감자모임¹⁴⁾ <심란하다, 여성가족부>
- 2005년 3월 - <다양한 삶의 형태를 선택할 권리, 여성이 가족구성원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행복할 권리를 위해 여성가족부에 반대합니다> 릴레이 성명서 발표
- 2006년 1월 - 언니네트워ク 회원워크샵 및 총회, <한국 사회의 비혼 여성 차별에 대한 저항>을 주요 운동 과제로 설정
- 2006년 8월 - 언니네트워ク 감자모임 <비혼을 비혼이라 부르지 못하고...>
- 2006년 8월 - '비혼으로 함께 잘살기'(http://www.unninet.net/jalsalza0) 살롱 개설
- 2006년 9월 - 언니네트워ク 감자모임 <비혼 맞춤형 경제생활>
- 2007년 3월 - 1회 비혼여성축제 <비혼, 꽃이피었습니다>
- 2007년 12월 - 언니네트워ク 감자모임 <비혼여성, 정치적 주체로 거듭나기>
- 2008년 5월 - 2회 비혼여성축제 <비혼, 그 입술을 열어요>
- 2009년 6월 - '가족'과 '비혼'을 주제로 한 책 <언니들, 집을 나가다> 출간

13) 언니네트워ク 엮음. 2009. 예쎬.

14) 여성주의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언니네트워ク 토론회. 화제가 되는 이슈를 '뜨거운 감자'로 표현한데서 유래한 명칭으로, '뜨거운 감자', '한가한 감자', '열린 감자'로 나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혼 여성들은 단지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이와는 관계없이 미성숙하고 미완된 존재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미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온전한 한 사람의 독립된 성인이 아닌 불완전한 존재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비혼(非婚)이라고 말합니다. 비혼이라는 단어는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서 결혼하지 않은 [非] 상태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혼은 누구나 결혼해야 하고,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고정관념에 물음표를 던집니다. 비혼은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을 보는 편견에 반대합니다. 비혼은 이성간 결합만 허용하는 협소한 혼인제도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비혼은 누구나 원하는 대로 살 자유와 권리가 있다는 우리 자신의 선언입니다.

- 1회 비혼여성축제 '비혼, 꽃이 피었습니다' 中 (2007)

우리는 비혼 여성입니다.

결혼하지 못한 미혼여성이라는 아님,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선택한 비혼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립된 섬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홀로 꽃필 수도 있고, 함께 꽃필 수도 있는 자유롭고 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배타적인 정상가족과 결혼제도를 넘어 새로운 공동체를 꿈꿉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활방식으로 살아나기며, 다름이 문제가 아닌 더 큰 힘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려 합니다. 우리는 가장 나은 방식으로 멋지게 살아갈 것이며, 비혼 차별이 없어지는 그 날까지 비혼 여성임을 자랑스레, 끊임없이 선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떠들썩한 축복 속에서 비혼으로 홀로 또 함께 잘 살겠노라고 신성하게 선언합니다!

- 비혼 선언문 (2007)

● 2010년 3월 10일 - 액션+ 공감팀 비혼세미나 ::: 발제문

비혼의 집단 현상, 적극적으로 읽기

- 장 클라우드 카우프만 <혼자 사는 여자, 백마 탄 왕자>

노미 (액션+공감팀, imlinee@naver.com)

“미루는 것은 거절하는 것의 가장 확실한 표현이다”
-시릴 파킨슨 C. Northcote Parkinson 영국 사회학자

- 크리미널 마인드 4. 12화 엔딩에서>

누군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산다는 것이 언제, 왜 사회적인 문제로 다루어지는가? 카우프만은 특별히 현대사회에서 많은 여성들(특히 20~50대 사이)이 독신으로 살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며 위의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결혼은 선택이야'라는 개인적 결정권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사회적, 심리적 현상들에 대해 이론적 분석을 시도한다. 열렬한 개인주의자 또는 페미니스트로서가 아닌 '평범한' 여성들의 '거대한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처럼 거대한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개개인의 특수한 운명을 초월하는 역사적 추동력을 <제도>라는 개념을 동원하여 설명한다. 현대의 **사회, 경제문화적인 어떤 조건들이** 이 여성들로 하여금 남편과 아이로 직조된 <규범적인 사생활의 모델>을 벗어나 **<자립의 제도>라는 새로운 사생활 모델**을 만들도록 추동해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남성과 달리 여성이 혼자 살고자 했을 때 발생하는 규범의 반발과 제동을 드러내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존재가 언제 어떻게 명명되고 소환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카우프만은 19세기 이전과 이후의 독신의 양상과 과급의 흐름이 다른 점을 지적하며, 19세기 이후로부터 지금에 이르는 거대한 흐름이 갖는 특징과 이것이 가능했던 몇 가지 조건을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 19세기 이후 독신의 생활 유형 네 가지

- 1) 도시에서 창궐하여 시골로 과급되는 영향력
- 2) 젊은 층 독신 증가
- 3) 사회 계층상 양극화
- 4) 직장 여성의 증가

■ 결혼제도의 규범성 양화

- 1) 개인의 급부상: 개인을 둘러싼 집단적 흥분상태. 개인/인권 개념 (18세기 이후) → 자립을 욕망하는 여성, 일하는 여성들의 등장 : 결혼과 저울질 가능하다는 가능성 발견. 짐चे기 이후 자유연애, 동거, 가정의 해체와 재구성 등 가정의 탈 제도화
- 2) 젊다는 것의 급부상 + 준비기의 강화(20세기 후반) → 성급히 인생행로에 뛰어들지 않기. 젊음의 유예기간(221)

위의 조건들은 한국의 사례에 대입해도 거의 다르지 않다. 남성과 동일한 수준에서 교육을 받고 직업을 통해 사회적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조건은 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온전히 설명해내기 위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자본을 제공했다. 한국 사회에서도 2009년 여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82.4%로 남학생 81.6%를 앞지르고 있고, 여전히 유리천장의 문제들이 남아 있지만 많은 여성들이 상당한 정도의 자원을 확보해 가고 있는 흐름이다. 서울이라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비혼 여성이 압도적으로 확장되고 있고, 지역으로 그 파급력이 이전되고 있는 현상, 학력자본을 기반으로 비혼양상이 계층화되는 현상과 직장 여성이 증가하면서 비혼이 늘어나는 현상도 한국의 상황과 거의 맞아 떨어진다. 나는 여성학과 석사 논문을 통해(노미선, 2008) 위와 같은 현상을 들어, 현재의 30대 여성이 갖고 있는 세대적, 사회경제적 배경이 이들로 하여금 비혼의 삶을 유지,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왔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과 프랑스 등 서구를 통틀어 아버지, 남편에게 속하지 않은 채로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사회적 존재로서 공익을 위해 기여하거나 또는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왜 여성들에게 매력적인 것일까? 무엇이 여성들로 하여금 자립을 갖게 되면 '자립하겠다'는 욕망을 갖도록 하는 것일까? **그 자립의 내용은 무엇일까?**

카우프만은 <마리끌레르> 독자들로부터 받은 설문과 편지내용을 통해 이 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정체성의 분열을 겪고 있음 발견한다. 이들은 “남편과 아이가 없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편안하게 성찰할 수 있고, 타인을 향해 마음을 비워둘 수 있는”(57) 존재로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괴팍한 여자라는 비난의 손가락질”(59)을 동시에 받고 있었다. 더 끔찍한 것은 그 “베일에 싸인 존재처럼 어렴풋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미는 <백마 탄 왕자>”(11)가 미치는 영향력이다. 기든스(2001)와 백&백-게른사임(2006)은 현대사회의 중요한 특성으로 ‘자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절대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자아를 확인하고 확장하는 중요한 장으로서 ‘사랑’을 불러온 바 있다. 더욱 간절한 인간관계와 상호 보완적 정체성을 ‘사랑하는 부부’라는 간판 아래 결혼이 재의미화되는 맥락이 작용하는 측면이다(101). 이제 자원이 결집되는 곳이 아니라 진정한 자아가 연결되는 장으로서 ‘커플’이 다시금 결혼의 정체성을 정립시키는 시기에 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정체성의 틀 안에서 자립의 의미는 혼자있는 것을 정당화시켜주지 못 한다. 이에 더해 나이라는 무시무시한 시간의 톱니바퀴가 선택을 강요하기 시작한다. 어찌면 일에서 성공할 때 사랑에서도 더욱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감은 젊은 시절의 것으로 사라져버리고, 사랑은 결국 섹슈얼리티의 유효기간이 있을것만 같은 불안이 엄습한다. “진짜 왕자가 아닌 평범한 왕자”나 “첫아기를 가져야 될 나이에 얼마나 멀리 지나쳐 와버렸는지”(124-5)를 생각할 때가 온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백리시들을 끈질기게 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하며 독신의 삶을 위협하는 결혼규범의 개입이라고 설명한다. 결혼제도는 유연하게 모습을 바꾸면서 적절한 규범의 틀을 지속해가는데, 이를 통해 가족주의가 강화되고 여성의 존재가치는

여전히 **홀로 정당하지 않은 상태**를 재생산하는 것이다.

결혼을 유보하며 독신의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무엇을 원하는 지는 확실치 않지만, 무엇을 원치 않는 것인지는 확실한”(219) 상태를 설명할 언어와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들의 불안정성은 남편, 아기, 집 따위의 규범적 요소가 갖는 권위를 통해 ‘공허함’, ‘사상누각’, ‘외로움’이라는 정서로 매도된다. 이때 정체성의 분열이 부정적으로 표출될 때 자아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거부감을 보일 수 있다. 갑자기 결혼으로 방향을 선회하거나, 자립의 꿈을 ‘한낱’ 젊은 시절의 꿈으로 치부하는 태도에서 이런 예를 찾을 수 있다(275).

결국 저자는 내면의 정체성이 일관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정립되어야만 이러한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는 혼자만의 결의가 아닌 “더불어 사는 자립”(279)을 통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될 때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혼란은 동반된다. 단, 자기 분열로서의 혼란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묻고 창조하는 자유와 그 대가로서의 자기 혼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결국 비혼의 증가라는 현상이 역사적 추동 앞에 강요된 것인지, 개인이 적극적으로 선택한 것인지 둘 중 하나만 답이 될 수는 없다. 한 개인의 내면 깊숙한 충동과 광범위한 사회적 흐름의 결합 속에서 형성된 결과(215)라는 점에서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는 사회적 변동이 전제되고 있음은 틀림없다. 또한 보다 애매하고 개인적인 조건들을 통해 결혼으로 유인하는 현상은 과거 어느 때보다 섬세하고 침예한 문제의 한 가운데에 우리가 위치해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나 결혼적령기와 출산 나이를 두고 벌이는 각축전은 그야말로 재생산력을 기반으로 한 여성 정체성에 대한 가치체계, 개입의 형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저자가 말하는 ‘더불어 사는 자립’이 갖는 전복성과 운동성이 의미있다고 평가되며, 거주, 의료, 생존, 여가 등 삶과 밀착된 사회권에 대한 비혼 접근성을 강화하는 운동이 요구되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중요하다. 지금 우리의 비혼 운동이.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이지만, 여럿이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 징기스칸, 박노해

[참고할 책]

기든스(2001),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새물결

울리히 벡 & 벡-게른샤임(2006),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새물결

노미선(2008), <고학력 30대 비혼여성의 성별/나이의 위치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부록 : 비혼 관련 추천도서

○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권명아 | 2000 | 책세상

우리는 가족적이라는 것 속에 투영된 따뜻함, 화목함, 우애, 포근함, 위안 등의 감정을 어디서 회복해야 하는가? 이 책은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박완서, 방현석, 신경숙, 배수아, 은희경 등의 작품을 중심으로 <가족이야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살폈다.

○ 가족의 이름으로 : 한국근대가족과 페미니즘

이재경 | 2003 | 또하나의문화

한국 가족, 그리고 한국 가족의 변화를 여성의 경험을 통해 읽어내고 있는 책. 이 책은 개별적이지만 결국 사회적일 수 밖에 없는 여성문제를 고민하며, 현 시점에서의 가족의 현실을 보여주고 미래를 위한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 새로 쓰는 가족 이야기

또하나의문화 동인들 | 2003년 | 또하나의문화

'가족'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오십대 동인들과 이십대 동인들의 생각을 엮었다. 오십대 페미니스트와 이십대 페미니스트가 가족에 대해 정리한 글을 수록하고, 이십대를 회고하며 쓴 삼십대 여자의 글, 그리고 삼십대 남자의 이혼을 다룬 글 등 자전적인 글도 함께 실었다. 또한 영화평과 서평, 현장 연구를 통해서 다른 세대의 삶을 엿볼 수 있다.

○ 언니네 방 1 (내가 혼자가 아닌 그 곳)

언니네 사람들 | 2006 | 갤리온

가장 깊숙이 숨겨놓은 비밀을 마음껏 풀어내고, 당차게 세상을 살아가는 여자들이 삶의 지혜를 나누는 사이버 커뮤니티 '언니네'. 이 책은 '자기만의 방'의 글들 중,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글을 모아 엮었다. 여자들이 말하는 성, 사랑, 삶에 관한 가장 깊은 진실과 용감하게 얻어낸 지혜를 통해 삶에 대한 강한 애정과 성찰을 보여주며, 용감하고 지혜로운 4만여 명의 언니들이 언니네의 '자기만의 방' 코너를 통해 서로를 지지하고 위안과 힘을 주고받으며 사는 모습을 솔직담백하게 담아내고 있다.

○ 언니네 방 2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 내게 힘이 되어줄 그곳)

언니네 사람들 | 2007 | 갤럭시

관계를 풀어나가는 열쇠!

혼자라도 즐겁고, 타인과 함께라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언니네 사람들'이 선택한 '새로운 관계 맺기'에 대해 보여준다. '언니네 사람들'은 가깝기 때문에 가장 괴로울 수 있는 '일상의 관계'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풀어놓고 있다. 가족, 친구, 애인, 그리고 직장 동료 등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은 상처를 보여주고, 그것을 치유하며 얻어낸 지혜를 가르쳐준다. 또한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단순한 말이 복잡한 관계를 풀고 새로운 관계로 거듭날 힘을 준다는 것도 알려주는 등 모든 어려운 관계를 풀어나갈 열쇠를 건네고 있다.

○ 언니들 집을 나가다 (가족 밖에서 꿈꾸는 새로운 삶 스물여덟 가지)

언니네트위크 | 2009 | 에씨

세상 살 만큼 살아본 언니들의 수다

결혼하지 않는 독신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담아 낸 『언니들 집을 나가다』. 세상에 자신을 맞추기보다는 가장 자신다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 모험을 거쳐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용감하고 지혜로운 여자들이 있다. 그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언니네'에 모여 공감을 나누며 살아간다. 그녀들의 3번째 이야기에는 결혼을 피해 홀로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과 진지한 고민이 담겨있다.

○ 친밀성의 거래

비비아나 A 젤라이저 | 2009 | 에코리브르

이 책은 친밀함과 경제 활동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으로 시작해, 친밀함의 법적 처우에 대해 살펴보고, 친밀한 커플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돌봄 관계 그리고 가족의 생활을 살펴봄으로서 정책적 함의를 포함한 일반적인 결론에 이르고 있다. 또한 사람들이 실제로 실행 가능한 대인관계와 삶의 방식을 어떻게 구축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이끌어내고 있다.

○ 결혼제국 (결혼이 지배하는 사회 여자들의 성과 사랑)

우에노 치즈코 | 2008 | 이매진

이 책은 '왜 결혼을 하는가'에 대한 특별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된 결혼 생활은 그 안에 얽힌 근본적인 문제들은 제쳐두고 다만 '결혼 유지'를 위한 애정, 인내, 배려라는 울가미로 여자들을 희생시키며 억압자와 피억압자를 양산하고 있음을 얘기한다. 저자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결혼제국 속에서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 시대의 여자들에게 결혼에 간하지 않는 능동적인 선택을 하라고 제안한다.

○ 새로 쓰는 결혼 이야기 1,2

또하나의문화 편집부 | 1996 | 또하나의문화

10년 전 오늘, 결혼을 안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정상인'으로 억압당해 온 비혼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책. '문화다양성'이 한국의 화두가 되었던 시절, 기존의 결혼 제도를 넘어서고자 했던 젊은 세대(?)들의 급진성을 읽어 낼 수 있다.

○ 엄마는 미친 짓이다

주디스 워너 | 2005 | 프리즘

미국 엄마들이 미약한 사회보장제도와 함께 사람들 사이에 일반화되어 있는 '엄마'라는 환상(신화) 때문에 받는 억압과 심적 고통이 어떠한 수준에 이르렀는지에 대해 쉽고 친근한 언어로 기록한 책.

○ 난 죽을 때까지 여자로 산다 - 아이 없는 여성에 대한 8가지 편견

수지 라인하르트 | 2010 | SUBOOK

학술적 연구와 실제 아이를 낳지 않은 여성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와 동기에 대해 밝히고, 옹호하는 책. 특히 엄마가 되는 것에 대해 미화된 거짓들의 실체를 폭로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자 한다.

○ 우리가 알던 가족의 종말

야마다 마사히로 | 2010 | 그린비

1970년대부터 진행된 일본의 장기 불황 속에서 가족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변화해 왔는지를 '경제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책. '미혼화 현상'을 '전업주부를 포기할 수 없는 여성들의 문제'로, 초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돌봄 노동의 성편향에서 비롯된 문제'로 규정하며 독자들에게 가족과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 혼자사는 여자 백마 탄 왕자

장 클로드 카우프만 | 2001 | 문학세계사

마리 끌레르 Marie Claire」誌를 구독하는 독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앙케트 조사자료와 상담편지를 토대로 프랑스 사회학자가 그려낸 독신(비혼)여성에 대한 보고서. '자립의 삶'과 '결혼생활의 규범을 향한 미련' 사이에서 선택과 불안이 공존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새로운 사생활의 모델, 자립의 궤도는 과연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

○ 화려한 싱글 돌아온 싱글 언젠간 싱글

우에노 치즈코 | 2008 | 이덴슬리벨

비혼, 이혼, 노령화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싱글로 살아갈 운명에 놓인 많은 여성들에게, 이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간다.

○ 뻘속까지 자유롭고 치맛속까지 정치적인 (프랑스 남자와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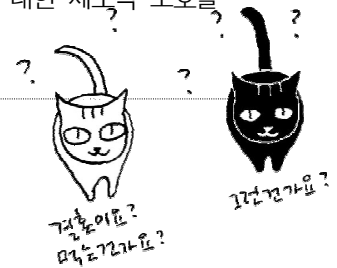
목수정 | 2008 | 레디앙

2007년, <레디앙>(www.redian.org)에 연재했던 '프랑스남자와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모태로 출간된 책. 저자는 프랑스에 유학을 갔다가 만난 프랑스 예술가와 사랑을 나누고, 결혼 없이 아이를 낳았다.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비혼으로, 프랑스에서는 시민연대계약(PACS)을 한 동거인으로 살아온 이야기를 담았다.

○ 대안적 가족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집 :담론·제도·사례연구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 2008 | 민주노동당

한국사회 새로운 가족담론 확산과 생활동반자관계 가족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가족구성원 연구모임'이 논의 결과를 정리하여 발간한 보고서. 가족에 대한 기존 논의와 제도 밖의 가족 사례를 검토하고, 고용관련법 등 제도가 보호하는 가족의 구성요건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기존의 가족 형태가 아닌, 생활동반자관계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회, 정치, 문화적 토대들을 점검해본다.





| 발행일 2010년 5월 28일
| 위은이 언니네트워크 액션+공감팀

나를 바꾼 여성주의,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 언니네트워크

| 주 소 (121-819)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204-17번지 101호
| 전 화 02-3141-9069
| 팩 스 0303-0799-1217
| 이 메 일 unni@unninetwork.net
| 홈페이지 언니네트워크 www.unninetwork.net
언니네 www.unninet.net
페미지아 www.femisia.net

- 비혼자료집 인쇄비의 일부는 언니네트워크 회원이자 (전)액션나우팀 활동가였던 무영님께서 지정후원해주셨어요, 사랑해요♡
- 비혼자료집 곳곳의 사랑스러운 고양이들은 언니네트워크 회원이자 (전)액션나우팀 활동가였던 시타님께서 그려주신 것입니다♡

